



#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7호 2014년 11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 제35차 Homecoming Day에 참가한 동문들이 성낙인 총장(가운데)을 중심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 제35차 Homecoming Day 참관기

### 미주 동문과 가족 14명 참가 친목과 단합의 장

서울 - 총동창회에서는 매년 10월 세번째 일요일마다 모교 관악 캠퍼스에서 homecoming day 행사를 개최하고 동문들과 가족들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금년에는 제35차로 지난 10월 19일(일)에 개최되었는데 북미주에서는 동문과 가족 등 14명과 함께 참가했다.

참석 동문은 가나다 순으로 구명순(간호대 66·Heartland)동문 부부, 나승욱(문리대 59·LA)동문 부부, 노명호(공대 61·LA)동문 부부, 박희례(간호대 70·SF)동문과 아들, 손재욱(가정대 77·Philadelphia)동문, 필자(오인환 문리대 63·DC), 이서희(법대 70·LA), 이진구(농대 60·NY)동문, 지홍민(수의대 61·Philadelphia)동문 부부 등이었으며 그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동문들이 더 있었

을 것이다.

행사 접수처에서 등록한 후에 총동창회 사무국의 안내로 성낙인 총장을 예방하고 각자 소개와 인사 등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여러 장의 사진도 찍었다.

성 총장께서는 내년 제24차 미주 전국 평의원회의(2015.6.19 ~ 21, Philadelphia, 손재욱 차기회장 지역 동창회)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사 전까지 한 시간여 여유가 있어서 미주 참석자 동문들은 등산보다는 캠퍼스 탐방을 선호하여 필자(오인환 회장)와 함께 규장각을 둘러 보았는데 친절한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때 우리 미주 동창회를 늘 아껴 주시는 국내에 계신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공대식 총동창회 부회장, 그리고 이형균 총동창회 부회장도 동행하여 주었다.

옛날 궁터에 있던 규장각이 서울대 캠퍼스로 옮겨 오면서 중앙도서관에 있던 여러 관련 도서들이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규장각은 도서관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그후 캠퍼스내 버들골 광장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된 VIP석에 자리 잡고 서정화 총동창회장과 성낙인 총장과 함께 도시락 점심을 하였는데 막걸리와 소주도 나왔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진행된 행사에서는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환영사, 성낙인 총장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여흥 시간이 채현구(사대 78)·박주애(미대 2011) 동문들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3부 친목과 단합의 행사는 서울대 마당극 동아리(마당패탈), 정세욱(법대 56) 총동창회 부회장의 독창, 서울대 아카펠라 동아리(인스트로), 서병규(농대



## Homepage 새롭게 단장

미주 동창회가 homepage (www.SNAAA.org)를 새롭게 단장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동문에게 공개했다.

울 초, 필자(김원영·미대 81)는 미주동창회 homepage 개선 제안서를 요청받았다. 망설이다가 제안서를 보내게 되었고 몇달 후, 제작의뢰를 받았다.

지난 9대 회장단(이진구 회장, 2007-2009년)시절 미주동창회보 편집인으로 2년간 동창회보 제작에 참여했다. 당시 회장단이 모두 15년 이상 선배들이었다. 2007년에도 동창회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회장단은 동창회보를 성실하게 만들고 '인명록

(미주동문 주소록)'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문 층이 주로 고령자라는 이유는 아니었다. 신문과 홈페이지를 병행할 여건이 못됐다. 대신 'daum 카페'를 적극 활용했다.

당시 동문 카페에 글 올리고 댓글 달고 답글 다는 일이 친분 있는 동문끼리 연결되어 반짝 인기를 끌었다. 다행히 제10대 회장단(회장 송순영)이 미주동창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오늘에 이르렀고, 제12대 회장단(회장 오인환)이 그동안 활용하며 드러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김원영·2면에 계속>

57) 동문의 시 낭독, 서울대 판소리 동아리(추임새), 그리고 동문들로 구성된 COE합창단 공연이 있었다. 동문들과 가족을 위한 게임행사는 2인 1조 달리기, 공굴리기, 줄다리기, 그리고 어린이들 춤추기 대회가 있었다.

5-6세 미만의 어린이들 춤 대회는 가히 불만하였다. 자기 아이

들이 상을 탈 수 있게 안간힘을 쓰는 동문들의 자식 사랑도 대단했다.

행사의 백미는 역시 참가 동문들과 가족들의 최대 관심사로 상품 추첨이었다. 상품이 너무 많아 추첨 티켓을 뽑는 시간과 시상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인환 회장·2면에 계속>

한인사회의 벽을 넘어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코너스톤 메디칼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변재준 원장은 우리 한인 동포들은 물론 소수민족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모교 서울대에서 가정의학을 전공한 변재준 박사는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유학 길에 올라 텍사스에서 공부한 뒤 캐나다를 거쳐 워싱턴주에 정착하며 미국 의료체인인 헬스포인트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8년 신창범 박사와 함께 '코너스톤 무료 진료소'를 창립한 뒤 무료 진료를 해오다 올초 상설 클리닉 전환을 주도해왔다.

변 원장은 개인적으로 무려 4,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해 건강보험 회사인 몰리나 헬스케어로부터 제5회 '커뮤니티 챔피언상'을 받기도 했다.

고교 때 이민 온 와다씨는 워싱턴대학(UW)을 졸업하고 복권국에 취업, 최초의 한인여성 워싱턴주 공무원으로 한인사회와 소수민족 권익보호에 앞장서왔다.

워싱턴주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커미셔너로도 활동 중이며 현재는 오바마 케어를 비롯 각종 보험업무를 총괄하는 주 보험감독국의 수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다.

더욱이 한인생활상담소와 코너스톤, 한인교회 등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그랜트를 받아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일에도 열성을 다해왔다. \*\*\*

<한국일보>

## 시애틀 코너스톤 메디칼서비스 변재준(의대 78)원장

### 아시아 위클리 선정 최고 공로상

올해의 수상자로 로리 와다씨와 공동 수상, 12월 5일 시상식. 소수민족 건강·보건에 공헌

워싱턴주 시애틀의 코너스톤 메디칼서비스 변재준(의대 78) 원장과 보험감독국(OIC) 로리 와다 수퍼바이저가 시애틀 영자 주간지인 '아시아위클리'가 선정하는 '최고 공로상'을 수상한다. 아시아 위클리는 변 원장 등 아시아인 커뮤니티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2014 최고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하고 12월 5일 오후 5시



45분 시애틀 '하우스 오브 흥'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매년 미 전역의 동문 10명 중 3명(30%) 이상이 동창회비를 내주셔도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니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새 회원 영입 Campaign

미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 중에는 해당지역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를 모르고 계신 동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니다. 주위에 있는 그러한 동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각 지역 동창회 행사에 참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 제35차 Homecoming Day에 참가한 동문들이 캠퍼스 내에 있는 규장각을 방문했다.

<1면에서 계속>  
 총동창회장, 총장의 티켓 추천 후에는 미주 동창회장인 필자와 손재욱 차기회장에게도 몇 차례 경품 추천하는 기회도 주어졌다. 서정화 총동창회장께서 다른 일정으로 환영사 후 자리를 비우시면서 마지막 대상인 승용차 경품 추천을 필자(오인환 회장)가 할 수 있게 해주어 영광이었다. (오른쪽 사진)  
 이날의 행사는 대상 추천 후 교가 제창을 끝으로 폐회하고 내년에도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미주 참석자 동문들은 모든 행사 후에 호암회관에서 총동창회 서정화 회장께서 제공한 저녁만찬을 하면서 즐거운 만찬과 답소 시간을 가졌다.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박승희 사무총장과 이형



균 총동창회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형균 부회장은 기자협회 회장을

을 역임하시고 현재 고문으로 계신데 수십가지 건배사를 소개해주었는데 기억력이 대단하여 모두가 감탄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몇 해 전에 개발했다는 '99 88 23 1(이미 알려진 99 88 23 4와 다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HIT였다.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죽지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니 자손들이 재산 분배를 해 놓았다가 당황하고 실망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humor와 joke가 무궁무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웃다가 시간이 없어 헤어져야 했다.  
**<오인환 회장·3면에 계속>**

<1면 Homepage 기사 계속>  
 이번에 개선한 홈페이지는 회장단과 협의로 '인터넷 동창회 사무실 + 동문 카페' 기능을 담도록 했다. 첫째, 동창회가 관리하는 동문 주소록, 동창회보, 각종 행사, 추진사업, 후원금 및 회비 납부 온라인화, 동창회 자료 클라우드 보관 등 오프라인에서 늘 해오던 일들을 가능한 한 IT의 힘을 빌려 홈페이지에서 해결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둘째, 행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카페나 블로그 형식으로 미주지역 동문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과 각 분야의 빛나는 또는 평범하지만 확실하게 사는 동문 활약상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제작됐더라도 동문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새 홈페이지는 15개의 메인 메뉴와 17개의 서브메뉴로 구성되었다. SNS와의 연결과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포맷의 모니터 환경에 최적화되었다. 여러 종류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새 홈페이지는 세계적으로 웹사이트 구축 도구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오픈소스인 '워드프레스(WordPress)'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워드프레스로 만든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다. 수많은 플러그인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또, 개발되고 있다. 동창회 홈페이지가 원하는 어떠한 기능도 가능하게 만들 여지가 많다. 사용자나 관리자 측면에서 미주동창회 홈페이지를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인도할 도구라고 개인적으로 믿는다. 미국의 영토는 한국의 40배 이상 되는 광대한 지역이다. 50개

의 주마다 독특한 관광지와 문화가 존재한다. 본토인들도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 각 지역 동창회도 자기 독특한 문화와 이벤트가 있다.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뉜다. 획일적 일사불란을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다. 모두가 창조자다. 미주동창회 홈페이지가 그러한 창조자들의 영토가 되길 소망한다.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동문들이 user ID와 password를 받아 글, 사진, 음악 등을 올릴 수 있다. 지역 동창회 website가 link돼 있어 networking은 물론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홈 페이지 가입법** = 서울대 동문이면 누구든 정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카페 게시판에 글, 사진, 음악, 동영상 올리기, 댓글 달기 등이 가능합니다. 가입요령은 홈페이지 로그인 박스 안에 Register를 누르고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맨아래 Submit Form을 누르면 됩니다. 로그인한 후 동문카페 게시판 편집기 사용법은 홈페이지 상단 FAQs를 참조 바랍니다.\*\*\*  
**<Webmaster 김원영(미대 81)>**



↑ 제35차 홈커밍데이에서 서정화 총동창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모교 출신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멋진 화음을 들려주고 있다.



↑ 제35차 홈커밍데이에서 재학생 동아리들이 합창 공연 중이다.



↑ 제35차 홈커밍데이 줄다리기 대회 ↓ 공굴리기 대회 장면



차 례

- 3.오인환 회장 각종 행사에 참석/ 게시판
- 4.<칼럼> 말조심/ 추석성모, 인연생기
- 5.<시국 칼럼> 영어를 바르게 배우자/ 내 장례식에 놀로 오실래요?
- 6-7.<모교소식>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흥천서 개소/ 공대생 20% 의대와 로스쿨 위해 자퇴/ 로스쿨 검사 119명중 서울대 51명/ 877개 일반고 서울대 한명도 못보내/ 국민 56% 통일일은 우리에게도 이익/ 분

- 당 서울대병원 Mayo암센터와 MOU체결/ 이경환 총학생회장 학사경고 누적 제명/ 재학생 2명 중 1명 A/ 신입생 88.7% 사교육 받아/ 모교 도서관 신축 레모델링 캠페인
- 8.<건강의학>항바이러스제와 간암치료
- 8.<의학 칼럼>연암 박지원과 일본 난의학
- 10.60여년 전 이야기<4>/음악 자체가 세계적 언어/ <동문 시 감상>한낮 개심사에서
- 11-13.미주 동문 동정
- 14-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 20-21.<관악새대 아크로 광장>결은 없애고

- 편만 만들어/ 10년 전의 나, 10년 후의 나/남겨진 이의 상실과 애도/ 캄패들에 둘러싸인 법대 교수/스마트폰 없이는 못사는 세상/<건강의학 칼럼>갑상선 종양과 갑상선 암
- 22.<영화 이야기>The Descendants/ 갈라서고 합치고
- 23.<My Journey...> 아메리칸드림 50년<16>
- 24.<달려 속 주인공 이야기> 20달러 지폐의 앤드류 잭슨
- 25.<여행기>건너가 본 두만강<>

- 26.<여행기>아름다운 에메랄드 섬<1>/ 서울대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 27.동창회비 납부인 명록
- 28-29.동문업소록, 편집후기/ 동문 신간
- 30.광고,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 31-32.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오인환 회장, 손재욱 차기 회장

### 각종 행사에 참석

서울대 관악골프 클럽(회장 서정화) - New Korea GC 10월 대회에 참석

보답하려는 뜻이었다.

임광수 전 총동회장의 흉상 제막식에 참석 - 서울대 장학빌딩

10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에는 마포 소재 서울대 장학 빌딩 로비에서 임광수 전 총동창회장

10월 14일 서울도착 이틀 후 16일에는 서울대 관악골프클럽이 주최하는 월례골프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대 선배들이 대부분인 모임에서 임광수(공대 48) 전 총동회장, 강신호(의대 46) 동아 제약 회장, 이인자(가정대 55) 명예교수와 한 조가 되는 영광을 가졌다.

대선배들의 노익장을 따라가느라 한참 고생했다. 나도 선배들 연세가 되면 그분들과 같이 골프를 칠 수 있을까 의문해 보았다.

저녁 만찬 후에는 미주 동창회 10월호 회보를 배부하고 SNUA Korean Studies Group 결성 소식과 SNUA Korean Studies Institute 구상에 대하여 홍보하였는데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어서 고무적이었다.

이어서 'Leadership과 Group IQ' 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작년과 금년 모두 Golf outing 에 초대해주신 선배들께 감사드리며

의 흉상 제막식에 초대받아 참석하였다. 로비의 제한된 장소 때문에 20명 한도내에서 초대를 한 자리였다.

지난 12년간 총동창회장을 맡아 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의 여러 가지 중에 장학빌딩 건립과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 고정적



↑오인환 회장이 서울대 관악골프 클럽에서 특강중이다. 오른쪽이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

인 연간 수입을 확보해 놓으신 점에 많은 애착을 느끼시는 곳에서 흉상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이었다. 현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의 축사도 있었다.

대학원 동창회 월례모임에 참석 - Leadership과 Group IQ 에 대한 특강

10월 20일(월) 오후 4시에는 관악 캠퍼스내 법과대학 동창 기념홀에서 진행된 월례 대학원 동창회(회장 최종고, 법대 66) 포럼에 초대되어 참석하였다. 이 기념 홀에는 서울법대 120년사를 전시하고 있었다. 이 포럼에서 미주 동창회의 한국학 그룹 결성과 SNUA Think Tank 구상에 대하여 홍보할 기회와 'Leadership와 Group IQ' 에 대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이어서 이상혁(법대) 동문의 서울법대 120년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 포럼에는 손재욱 차기회장도 참석했다. \*\*\*

↓사진 왼쪽부터 이상혁 박사, 최종고 회장, 필자, 김병동 명예교수, 맨 오른쪽이 손재욱 차기 회장



## 게시판

### 미주 동창회 제14대 회장 후보추천 공고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미주 동창회원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할 차차기 회장 - 제14대 동창회장(임기 2017.7 ~ 2019.6) -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추천 마감 = 2014년 12월

31일.  
▶회장후보 공약 = 2015년 1-5월중 동창회보에 공약 발표.  
▶2015년 6월 = 제24차 전국평의원회의에서 투표. 차차기 회장 확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인선위원장 김은중(제11대 미주 동창회장) e-mail : edk@npcims.com. 전화 310-667-2350 \*\*\*

### 오인환 회장 출장 일정

▶10월 14 ~ 25일 = 서울 - 총동창회 제35회 Homecoming Day 행사 참석하고 귀환.  
▶11월 8일(토) = 워싱턴 주 동창회 순방하고 Senior Club (Seattle)에서 Leadership & Group IQ 초청강연.

▶11월 15일(토) = North Carolina 동창회 순방.  
▶11월 22일(토) = 의대 동창회 및 뉴욕 동창회 순방, 합동 Annual Ball에 참석해 의대 동창회 시계탑 회보 40주년 기념 및 시계탑 문집 5호 발행 축하.\*\*\*

### 모교 서울대 기념품점

서울대학교 기념품점(SNU Souvenir Shop) Homepage Address를 받아 왔습니다. 지역 동창회 회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캠퍼스 학생회관(63동) 2층 Tel. 011-82-2-880-5533. Fax. 011-82-2-877-5534. SNU Mail: http://www.snuco.com \*\*\*

### Homepage Strip광고 모집

Monthly updates and maintenance를 위한 안정적 자체비용 확보를 위해 Homepage에 strip 광고 기증을 해주시길 동문들을 찾고 있으며 동창회와 관련 사업체와 광고계약을 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동문들과 관련 사업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원영 전화 646-623-7701 Webmaster(wonyoungkim1@gmail.com),  
손재욱 IT 위원장 전화 267-736-2992) jhaahs@tmaahs.com.  
▶오인환 회장 전화 301-775-3919(ioh0858@comcast.net)\*\*\*

### IRS감사대비 내부감사 일정과 담당 감사위원

▶감사기간 = 2014년 1 ~ 12월-100% 마칠 때까지 요청한 세금 보고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 위원(Chicago, 847-707-9693 jhcspsc@naver.com,) = 달라스·록키마운틴·시카고·중부텍사스·휴스턴 동창회.  
▶김창수 위원(NY,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 뉴욕·뉴잉글랜드·조지아·오하이오·필라델피아 동창회.  
▶김지영 위원(남가주, 213-308-0009 jkym@yahoo.com) = 남가주·북가주·샌디에고·아리조나·하

와이 동창회.  
▶노상문 위원(DC, 703-749-1110 cpa\_noh@yahoo.com) = 미네소타·워싱턴 DC·플로리다·캐롤라이나·테네시 동창회.  
▶배규영 위원장(Heartland, kybae8533@gmail.com, 913-709-2335) = 알래스카·오레곤·워싱턴주·유타·하틀랜드 동창회.  
내부감사에 대한 문의는 배규영 위원장께 연락 바랍니다. Kiuyoung Bae, Ph.D. 전화 913-709-2335 Email: kybae8533@gmail.com \*\*\*

### 지역 동창회 후반기 행사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태) 송년회 = 12월 30일(화) 오후 6시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Vienna, VA  
▶샌디에고 동창회(회장 최흥수) 송년회 = 12월 6일(토) 오후 6시 Town & Country Hotel, San Diego, CA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범) = 10월 4일 노스이스턴대 리사이틀 홀에서 동문 음악회 개최(행사 내용은 미주 동창회보 12월호에 게재 예정). 11월 30일 오후 6시 Drury Lane Oakbrook에서 총회 및 송년회.  
▶남가주 동창회(회장 이서희) = 10월 25일(토) 12시 부터 Westridge Golf Club에서 추계골프대회 개최(이날 행사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미주 동창회보 12월호에 게재 예정)  
▶남가주 관악연대 해끝잔치 = 12월 28일(토) 오후 6시.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 681 S. Western Ave., LA, CA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섭) = 11월 8일(토) 오전 10시 Senior Club에서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 초청 세미나. 주제는 'Leadership & Group IQ'. 세미나 후 이원섭 회장 자택에서 2014년 종강 파티.  
= 11월 12일(수) UW 한국학 센터 Korean Peninsula Forum 에서 열린 전 주한 미국대사로 미국 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친한국 인사 Christopher Hill 초청연설 간담회 참가.\*\*\*

시국 칼럼

말조심



서윤석(의대 62) VA 현대 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6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졸업 40주년 기념식장이었다. 기초의학 교실 건물 소강당에 100여명이 모였다. 국내외 동기들과 부인들, 그리고 여러 명의 동창회에 관계된 교수들이 모인 곳이었다.

서울에서 명성이 높은 동기 중 하나인 김상우 동기회장은 적어 온 내용을 조심스럽게 읽어 모든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어 미국 동기를 대표해 이야기를 하라기에 서투른 말로 용기를 내는 생각나는 말을 이어갔다.

기억나는 은사님들(환자들에게 말을 놓으면서 제압하시던 폐결핵의 대가 내과 김경식 교수님, 내가 관여했던 학생단체 건우회를 도와주시던 미생물학과 기용숙 교수님, "물에 빠진 환자를 구해주면 잃어버린 보파리도 의사들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명언을 해주신 예방의학 심상환 교수님)에 대한 에피소드와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인턴으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당황하던 일이 생각나 그 심정을 털어 놓았다. 우수한 서울의대 졸업생,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우리가 막상 이 미국에 도착해보니 영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할 수는 더욱 없었던 부끄럽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나서지 않고 겸손한 것이 미덕이었던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모든 것에 발표력이 결핍되고 여러 면에서 미국의 의대 졸업생들보다 아는 것도 부족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것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미국 인턴들보다 별로 배운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하

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줄에 앉아 있던 동기 김명석 모교 약리학 교수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나는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말을 잘 못 한 모양이구나" 하며 당황했다. 내뱉은 말을 도로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참 난처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이어지는 행사 중 3일 내내 특히 서울에 사는 동문들의 눈치만 슬금슬금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서울에서 중앙대 의대 병원장을 했던 신순현 동문에게 물어보니 "서 형은 어쩌다 그런 말씀을 하셨소?" 하면서 딱하다는 듯이 쳐다본다. 그래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 해서 미국 오하이오에서 20여년 재활의학을 개업하다 인천 길병원에서 활약하는 임윤명 동문에게 "야, 임 교수, 내가 말을 잘못했지?" 하며 물어보니까 "그래, 너 여기 이 한국 땅에서는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말조심을 해야 한다구. 허허" 하며 웃는다.

자타가 공인하던 서울대 의대의 교육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졸업 40년 후 솔직히 털어놓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남모르게 느끼면서 그날 이후 나는 지난 6년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글쎄 서울대 의대가 최고일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럴까?" 이런 질문도 가끔 해보았다.

여러분 모두가 그 답을 아실 것이다. 6.25 한국전쟁 후의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일본식 권위주의를 유지하려던 교수들께서 낙후된 시설과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베풀 수 있었겠는가.

우리 학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배들은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선배들 중에는 본인과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국제화 경쟁시대에서 환자들에게 불손하고 친절치 못했던 기억이 있었던 서울대병원이 좋은 시스템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나는 했다. 그 후 요즈음은 많이 달라진 것을 안다. 그러니 진정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면 쉬쉬하며 사실을 숨기고 말조심만을 해야 되는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지난 몇년간 동창회보에 실릴 글들을 다루며 느끼는 것은 글을 쓰는 일도 말을 하는 일과 같다. 남을 헐뜯고 자기를 내세우는 글

↓ 지난 1967년 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뒷줄 왼쪽부터 김희주(Wayne State Medical Center PMR Prof.), 신용계(Georgetown Medical Center Anesthesiology Prof.), 필자, 장진관(정형외과, 서울), 장환일(경희대의대 병원장, 정신과), 앞줄 왼쪽부터 안세현(Ob-Gyn, Delaware), 신규호(Prof. Radiation Oncology, Buffalo), 김영남(Prof. Endocrinology, Philadelphia, 서재필 박사 클리닉 director), 김주평(Orthopedics, West Virginia)



추석성묘, 인연생기(因緣生起)



박평일(농대 69) VA 미주 동창회 감사

낮잠을 자다가 '우-쿵-쿵-' 재만(개) 짖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나뭇잎들을 때리는 장대비 소리에 잔뜩 놀란 목소리입니다. 지금 썸, 지구 먼 곳 어딘가를 허리케인이 휘날리고 지나가고 있나 봅니다.

'인연생기(因緣生起)', 우주는 하나입니다. 고국의 숲 낙엽지는 소리에 이곳 버지니아 숲속 나뭇가지들도 아파합니다.

숲속 빗소리가 점점 더 세차합니다. 지난 며칠 밤 나뭇잎 사이를 숨가쁘게 숨박꼭질하며 쏟아졌던 한가위 달빛 흔적을 오늘 밤 말끔히 숲 속에서 씻겨낼 기세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이처럼 모두 사라집니다. 오는 인연 막을 수 없고, 가는 인연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세상을 잊

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에카르트 톨레).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내 삶처럼 그 치열했던 계절이 이제 내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위 달빛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비틀스가 불렀던 노래 'Yesterday' 처럼...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어제/ 나에게 아무런 문제들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어제가 바로 내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를 믿고 있습니다.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 Oh, yesterday came suddenly(갑자기/ 나는 옛날 나의 절반 정도의 못난 남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두운 운명의 그림자가 나를 짓눌러 옵니다/ 아, 갑자기 어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왜? 운명이 나를 등지고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아무 말도 나에게 남기지 않았습니

은 쓰지 말아야겠지만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 글이 공익을 위해 바른 글이라면 서슴지 않고 쓰는 것이 용기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 의과대학의 시설이나 교수진도 학문적으로나 환자들에 대한 치료면에서나 많이 좋아졌다고 평한다. 물론 그 부산물인 금전 만능주의적인 윤리적 낙후는 걱정되지만 의학지식과 기술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나는 금년에 졸업한 후배들이 2054년 그들의 졸업 40주년 기념식장에서 무엇이라 말할까 궁금하지만 그들은 나처럼 얼굴을 붉힐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근래 동창회보를 통해 접한 모교 재학생들의 외국 병원 임상실습 교육경험담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아 참 훌륭한

↓ 지난 1967년 여름 서울대병원 4층 학생도서관에서. 뒷줄 왼쪽부터 안세현·강조웅(산부인과·서울)·김태기(내과·서울)·신순철(산부인과·경남 진주시)·안금환(Prof. Pathology, Univ of Sanfrancisco, California), 아랫줄 왼쪽부터 심영수(서울대 의대 교수·69년 졸업)·신규호·김희주·신용계 동문, 그리고 필자, 69년 졸업생.



잘 못이라도 한 것일까? 그러나 이 순간 나는 어제를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어제, / 삶은 나에게 한 쉬운 게임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어제를 믿고 있었습니다).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Mm mm mm mm mm.

(왜? 운명이 나를 등지고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아무 말도 나에게 남기지 않았습니/ 내가 잘 못이라도 한 것일까? 그러나 이 순간 나는 어제를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삶은 나에게 한 쉬운 게임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어제를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때 인간은 등불이 켜져 있는 집과 같다. 등불이 켜져 있는 곳에 도둑은 들어오기를 두려워 할 것이다.'

Now,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늘 깨어 있을 것이다.\*\*\* <버지니아 숲 속에서 한 가위를 보내며>

후배들이 많이 있구나" 하며 감탄한다. 아마도 미국의 의대 졸업생들처럼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에 대한 교육도 잘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력도 훌륭하다. 영어 구사력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선배들로서 이들의 후원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옛그제 북쪽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기 황훈규(재활의학 전문의로 과수원을 좋아하고 스파르타식으로 세 자제를 전문의로 키운)동문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그가 "나 요즈음 눈 수술을 받았는데 책도 읽을 수 없어 이 생각저 생각을 하다가 서 형이 생각나서 전화했소." 한다.

"아니 눈이 전혀 안 보여? 책도 못 읽는가?" 하는 나의 질문에 "양쪽이 다 희미하니까 아내가 대신 읽어 주지. 그런데 말야, 우리 서울에서 40주년 행사 때 서 형이 하던 말이 요즈음 자

꾸만 생각나.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그때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 말 참 잘 했어. 솔직히 말해 우리 졸업 후 곧바로 3년 반의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1년 더 무의촌 근무도 마치고 난 후 머리가 텅 빈 상태로 별로 아는 것이 없이 미국에 왔잖아. 실습을 제대로 못받아 수술실에서는 손을 어떻게 얼마나 씻어야 되는 것도 몰랐잖아. 실습이라고 몰려다녔지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 서울대 의대 나오면 최고라고만 알고 빠진 것이 잘못된 것 같아."

나는 황 동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6년 전 그런 내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도 우리 모두 이제 몸이 쇠퇴한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그 사실을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다니...

나는 구멍이 난 눈 신경에 그가 받은 수술부위가 잘 아물어서 빨리 시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후 우리의 졸업 50주년이 오면 지난 40주년 모임 때처럼 다시 서울에 같이 나가 은발을 휘날리며 반세기 전 모기에 뜯기며 두꺼운 의학원서를 공부하던, 무더운 여름이면 수박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던 4층 학생 도서관에도 다시 올라가 보고 싶다.

포르말린 냄새가 진동하던 해부학 시체실에서 줄줄이 누워 우리에게 인술을 공부하라고 저들의 육신을 제공한 귀한 영혼들에게 감사의 기도도 다시 드리고 싶다. 시계탑 앞으로 가서 더욱 발전하는 대학병원의 모습도 다시 둘러보고 싶다. 모교 서울대와 우리 모든 후배들의 앞날에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한다.\*\*\*

언어 칼럼

# “영어를 바르게 배우자”



유광현(문리대 58) NY 저술가

나는 47년째 미국에 거주하면서 2-3년에 한 번씩 고국을 방문했다. 그 때마다 점점 크게 발전해가는 양상을 유심히 관찰했다. 나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도 비례적으로 커짐을 느꼈다. 이제 한국이 세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반면 수치스러운 먼의 세계 제일인 것 또한 두가지가 아니다.

비영어권 나라들 중 한국은 영어 교육면에서도 세계 제일이다. 가히 'IT 대국' 처럼 '영어 대국' 이라 부르고 싶다. 유치원부터도 모자라 유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함은 물론이다. 말이란 길을 한 번 잘못들이면 만인이 다 그렇게 오랜 기간 쓰다 보면 고치기 힘들다. 언어의식 속에 굳어져 아주 우리말이 되어 버린다. 언어도 생물처럼 진화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 그렇게 써서 잘 통하면 됐지, 무슨 대수인가?

▶ '아르바이트' 와 '알바' = 이 예화는 실제 일이다. 몇년 전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한국 유학생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 담임목사, 그 학생, 사업체 주인인 미국인 신도, 필자 네사람이 말하자면 '잡 인터뷰' 를 하는 자리였다.

학생과 담임목사는 'part time job' 이라는 뜻으로 계속 "아르바이트(arbeit)" 라고 하니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미국 사람이 알아 들을 리가 없다. 영어 사전에도 없는 '아르바이트' 를 그들은 영어라고 믿고 한 말이였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 이란 말을 나의 설명을 통해 이해시킨 그 학생은 인터뷰에 실패했다.

내가 영어로 봉사하는 외국인 대학의 학생들에게 '알바' 의 어원에 대해 물어 봤다. 거의 다 '아르바이트' 의 어원이 영어라고 대답했다. 독일어 전공 학생이 아니었을 게다. 이젠 '아르바이트' 가 줄여서 '알바' 가 된 것이다.

제2차 대전 중 일본은 영어교육을 폐지하고 주축 동맹국의 독일어를 제2의 국어로 채택했다. '일하다' 또는 '직장' 의 뜻으로 '아르바이트(arbeit)' 란 말을 멋있게들 썼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70년 만에, '알바' 는 우리말 유행어 또는 신어 사건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영구히 재

미있는 우리말이 되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 가 변천하여 '바이트' 가 됐다는 사실이다. 외래어를 소화시켜 자국어로 성장시킨 양국 문화의 특성을 상징하듯 '알바' 와 '바이트' 는 신나게 애용되고 있다.

▶ '웰빙' 과 '웰니스' = 언제부터인가 건강식품 붐이 일면서 한국 전체를 '웰빙' 이란 말로도 배를 한 인상을 받았다. 이 말의 원산지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웰빙(well-being)' 과 '웰니스(wellness)' 는 확연히 다른 의미로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다만 두 말이 유사한 뜻으로 겹쳐 쓰는 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식품을 말할 때는 '웰빙' 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웰니스' 로 말 한다. 즉 건강식품상점은 '웰니스 푸드 스토어(wellness food store)' 지, 거기에다 '웰빙' 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쓴다. '웰니스' 는 사람의 '건강에 좋다' 는 국한된 좁은 의미로 쓴다. '웰빙' 은 건강의 뜻도 포함된 보다 넓은 포괄적 의미로 사람의 복지, 안녕의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000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운 할 때는 000의 '웰빙' 이라고 표현하면 제대로 쓴 영어가 된다. 그러나 "강남의 한 건강식 식당에서 만나자..." 할 때 '웰빙식당' 이라고 하면 무슨 영어가 된다. 그때는 '웰니스 식당' 이라고 운운해야 맞는 영어다.

▶ '클래식' 과 '클래시클' = 미국에서 바하·모차르트·베토벤 시대의 고전 음악이나 그런 장르의 음악을 지칭할 때 식자간에 '클래식(classic)'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고전음악 하면 항상 '클래식' 이라고 한다. 아주 우리 말이 되어 버렸다. '고전음악' 은 꼭 '클래시클(classical)' 이라고 한다. 'al' 두 자가 더 붙어 있다. 그러면 언제 '클래식' 이란 말을 쓰는가?

고전서적을 말할 때 쓴다. 가령 "나는 '빅토르 유고' 의 '레미제라블' 같은 '고전' 을 읽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클래식' 이란 용어를 쓴다. 즉 a classic book like 'Les Miserables' 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전음악' 중에서 '말러' 의 '제일 심포니' 를..., 운운할 때는 Mahler's Symphony No.1 among the classical music... 처럼 '클래시클' 이라고 하지 '클래식' 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에 관련하여 '클래식' 이란 표현을 쓸 때도 있다. 그 때는 '오래 되었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넓은 의미의 형용사로 쓰인다. 예를 들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또는 '조용필

# “내 장례식에 놀러오실래요?”



정홍택(상대 61) PA 미주동창회보 논설위원

나의 장례식은 내가 세상을 작별하는 마지막 모임이니 장례식 계획도 내가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물론 나는 그 장례식 날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맡고 있는 엄숙한 관 속에 단정히 누워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안으로 들어와 내 관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 비록 관의 뚜껑은 닫혀 있겠지만 관 앞의 큰 사진 속에서 나는 환한 웃음으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아, 그런데 부탁하건대, 관 뚜껑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는 말아 주었으면 한다.

viewing하러 왔으니 꼭 내 얼굴을 직접 보아야겠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내 가족들은 절대로 관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내가 미리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은 내가 아니지 않은가?

“뭐라고? 내가 아니라고? 시체를 바꿔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거기 누워있는 것은..., 말하자면 평소에 당신을 보면 웃음만 얼굴로 다가가 악수하고 안부를 묻던 그 평시의 '내(我)' 가 아니라는 말이다.

실사 당신이 내 관 뚜껑을 열어 제치고 누워있는 나에게 “하이” 하고 손짓해도 나는 대꾸는 커녕 눈조차 뜨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좋으니 땅에 묻기 전에 꼭 내 실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강청을 하겠다면, 글썽...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과 viewing하는 장례식 사이는 며칠간의 시간 간격이 있지 않은가.

즉 의사가 나의 사망사실 확인

을 해주면 장의사는 시체수송리무진(Limo)을 보내 나를 신고 어디론지 갈 것이다. 내가 실려간 후 가족들은 여러가지 장례 절차 준비 때문에 잠시 나를 잊겠지.

장의사에 홀로 끌려온 나는 그들의 작업장에서 발가벗긴채 누워 여러가지 소독 절차를 거친 후 '화장실' 로 옮겨질 것이다. 이 사람들의 화장실이란 보통 우리가 대소변 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얼굴화장' 만하는 곳을 말한다. 덩치 크고 표정없는 남자들이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다가와 내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 볼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viewing을 위해)내 얼굴을 되도록 내 사진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다.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해야 웃는 얼굴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평소 북어국을 먹으려면 우선 딱딱한 북어를 방망이로 두들겨야 제대로 뜯어지고 맛이 들 듯이, 내 얼굴도 실컷 맛아야 근육이 부들부들해져 표정이 만들어진다. 평생 따귀한 번 맞지 않고 살아 온 내가 지금 여기서 납치된 사람처럼 끌려와 모르는 사람들에게 따귀를 실컷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싫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상한 로션에다가 심지어 입술에 립스틱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내 얼굴에 그러서 나를 만들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무 말 못할 것이다. 얼굴 뿐이 아니다. 내 온 몸의 근육도 그런 식으로 실컷 맞으며 근육이 풀려야 부들부들해져서 웃도 입을 수 있고 두 손도 배 위에 가지런히 놓여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되도록 평화로운 얼굴과 고운 몸 자세로 굳어지게 해 달라고.

내 장례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랑한 분위기에서 환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8.15 해방, 6.25 한국전쟁, 각종 혁명등을 거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힘에 이끌려 미국 땅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살아 오늘에 이르렀다.

더 무엇을 바라랴. 그러니 마지막 길도 밝게 가고 싶다. 영혼을 상송시키는 찬송가와 내가 좋아하던 팝송, 유행가, 클래식

음악이 깊은 산속 냇물같이 흐르는 실내에 초콜렛 냄새가 나는 촛불을 켜서 참석하신 분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 일생을 돌아보게 하는 DVD를 만들려면 간간이 내가 사랑하던 영화의 명장면도 넣어주면 좋겠다.

시인 천상병은 '귀천' 이라는 시 속에 이 세상의 삶을 소풍에 비유했다. 나는 '졸업' 에 비유했고 싶다.

그러면 '장례식' 은 '졸업식' 으로 변하게 되겠지. 졸업식을 마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듯이 나는 더 높고 밝은 세상에 갈 것이다.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행사에 검은 상복에 검정 넥타이를 매고 애써 웃음을 자제하는 모임이 되는 것을 나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포도주와 간단한 안주도 준비할 것이니 식이 끝난 후에 다시 차를 타고 식당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 사랑하는 제자와 나누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당신에게 좋은 포도주와 인주로 대접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 '졸업식' 은 아주 먼 후일에 왔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나는 일생을 같이 한 나의 아내와 부부로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을 되도록 더 많이 갖고싶기 때문이다.

“아니,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려야? 거기서 다시 만나 영원히 부부로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 것이다. 우리가 '부부로 사는 것' 은 이 금생(今生)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누가복음 20:35-36).”

천사들에게는 '남자 천사' 와 '여자 천사' 가 없듯이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모두 동등하게 사는 거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아내 는 저 부엌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우리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저녁이 다 되어가면 큰 소리로 나를 부를 것이다.

“여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수저랑 놓고 상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난 큰 소리로 “O.K.” 할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의 저녁이 끝나면 말하리라.

“설거지는 내가 할게.” \*\*\*

의 단발머리' 는 '클래식' 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오래 되었지만 누구나 좋아한다' 는 뜻이지, 거기에 '고전음악' 이란 뜻은 없다.

▶ 토착화 현상 = 말이란 만인이 같이 오래 쓰다 보면 토착화 현상(acclimatization)이 벌어진다. 그래서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말도 많다.

해방 후 70년이 지났지만 '원래 상태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 의 뜻으로 '모도 시데' 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류의 우리말이 되어버린 일본말은 부

지기수다.

북한의 김일성이 '외래어 퇴치' 와 '우리식 말로 고치기' 운동을 펼쳤다. '코너킥' 을 '옆구탱이 차기' , '친구' 를 '불알' 로, '산텔리어' 를 '때불알' 로 고쳤다.

내가 탈북한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기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벤또' 를 '도시락' 으로, '다꾸앙' 을 '단무지' 로 바꾸어 예쁜 우리 말을 찾았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이 아직도 '다꾸앙' '벤또' 라고 일본 말

을 쓰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강압적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 그 사회에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썼단 말이다. 이것이 민주국가와 봉건 독재국가와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강압적인 명령에 걸이로는 복종하는 척 해야 되지만, 내면으로는 저항하는 인민들의 심리를 읽는 것 같았다.

<재미 작가, 영문소설 'The Unification Symphony' 의 저자. Email: philip.rhyu@gmail.com 719-325-9692> \*\*\*

모교 소식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흥천서 개소

Lab on a Cloud system 갖춘 미래형 연구소  
노벨화학상 수상자 아론 시카노버 박사 참석

모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소장 성승용)가 지난 10월 8일 강원도 흥천군 화촌면 군업리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전 세계대학 및 기업의 실험실과 자원, 기술공유가 가능한 ‘랩 온 어 클라우드(Lab on a Cloud)’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연구소다.

이곳에서는 ▶유전체학(Genomics)의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DNA합성 ▶단백질체학(Proteomics)의 단백질체 글로벌 프로파일링, 단백질체 번역 후 변형 연구 ▶사이토믹스(Cytomics)의 생체 분자간 상호 작용, 초고속 다중 단백질 분석 등이 연구된다.

총 사업비 454억원이 투자된 이 연구소는 9만 4천557㎡ 부지에 건축 연면적 8280㎡ 규모로 건립됐으며, 첨단 유전체와 분자영상, 동물 영상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동, 그리고 최첨단의 질환 동물 모델실험을 위한 동물 연구동과 연구원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성낙인 총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를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리에 참석한 성낙인 총장은 “지리적 접근성 등 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서울대가 총체적으로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에 많은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 곳이 세계적인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분들



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당부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강원지역에서는 현재 생물다양성협회 당사국 총회와 함께 강원선언문 채택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연구시설도 강원지역의 생태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개소식에 앞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시카노버 박사, 일본 교토대학 부총장이면서 T립프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나가히로 미나토 박사가 강연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됐다.\*\*\* <뉴스1 코리아>

공대생 20% 의대·로스쿨 위해 자퇴

서울대와 KAIST의 이공계 재학생들이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의대와 법학 계열로 진로를 바꾸기 위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2013년 서울대 공

대·자연대의 학업 중도 포기자 275명 중 55명(20.0%)이 나중의 약 계열로 재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월 1일 밝혔다. KAIST 역시 같은 기간 중도 포기자 496명 중 72명(7.7%)이 의대와 약대로 진학했다.\*\*\* <조선일보>

로스쿨 검사 119명중 서울대 51명

연대 24명, 고대 17명, 성균관대와 한양대 10명, 1~3기 출신 학부 첫 공개. 사시(司試)보다 학벌 편중 심해져

지난 3년간 임용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 검사 119명 모교 학부 출신이 51명(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선일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1~3기 로스쿨 출신 검사 119명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로스쿨 검사들의 출신 대학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대학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출신 대학을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 검사는 31명, 연세대(16명)와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이상 각 10명)가 검사를 두 자릿수 배출했다.

전국 25곳 로스쿨 중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20곳이다. 서울의 로스쿨 11곳이 검사를 95명 배출해 전체 8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충남대가 6명, 부산대가 5명 순으로 검사를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부를 보면 서울대 출신 검사가 51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상위 6개대 학부 출신들이 88%를 차지하면서 1명이라도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6곳에 불과했다.

이는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강세를 보였다는 증거다. 또 학부의 우수 인력이 여러 로스쿨로 흩어지고, 교육과정 등 로스쿨 간 수준 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20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7곳이었다. 한양

대는 학부 출신 검사는 없지만 해당 로스쿨을 나온 검사는 지난 3년간 10명이었다.

실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47명을 조사한 결과 SKY대 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 충남대, 강원대, 전북대 등 비수도권 로스쿨로 진학한 경우가 9명(19%)이었다. 서울대를 졸업한 A검사는 충남대 로스쿨을 나왔고, 연세대를 졸업한 B검사는 강원대 로스쿨을 나온 뒤 검사가 됐다.

법원은 경력 법관제를 시행하면서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데,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한 1기 출신이 내년부터 법관 임용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 로스쿨 출신 법관은 한 명도 없다. \*\*\* <조선일보>

877개 일반고 서울대 한명도 못보내

2014년 현재 고교는 전국 1천525개교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서울대에 단 한 명도 진학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공개한 교육부·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일반고 1천525개교 중 877개교가 서울대에 한 명도 진학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진학생이 있는 일반고의 수도 점차적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현재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한 전국의 일반고는 1천 437개교 중 53.4%인 811개교였는데 비해 올해는 전국 1천 525개교 중 42.5%인 648개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학생 수도 지난 2010년 1천 972명에서 2014년 1천 570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올해 기준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한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는 전체 49개교 중 48개교, 외국어고는 전체 31개교 중 30개교였다.

전국의 일반고의 지역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보다 경기 등 광역도 지역이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한 일반고 비율이 낮았다.

특히 경북·전남·전북·강원 등 4개 지역의 경우 서울대 진학생이 있는 일반고 비율이 총 10개교 중 3개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일반고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교육부는 일반고 살리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후퇴하고 있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등 자사고 살리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원한다면 자사고와 차별없는 교육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두렵한 대책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설문조사

국민 56% “통일은 우리에게도 이익”

‘통일은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생각 1년새 7% 더 늘어나

우리나라 남북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난 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동시에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체감도 역시 급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7월 전국 성인 남녀 1천 200명을 상대로 실시해 1일 발표한 ‘2014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우리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5.9%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이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래 최고치로 기록됐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7년 55.8%에서 2010년 53.5%, 2013년 48.6%로 감소하다가 올해 급반등했다.

‘통일이 국내의 실업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이라는 응답은 29.8%로 작년에 비해 7.5% 포인트 늘었다.

‘북한이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45.3%로 작년 40.4%에 비해 4.9% 포인트 늘었다.

반면 ‘북한은 적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16.4%에서 13.9%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위험을 느낀다’는 응답이 89.3%였다. 이는 북한이 2~3차 핵실험을 한 지난 2009년(74.3%)과 2013년(78.4%)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국민들이 크게 위협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작년보다 3.4%포인트 높아진 88.0%였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74.9%로 작년(66.0%)보다 크게 늘었다.\*\*\* <조선일보>



분당 서울대병원

## Mayo 암센터와 MOU체결

암 연구, 진료, 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양 병원의 상호 협력 도모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암 연구, 진료, 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 8일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 암센터(Mayo Clinic Comprehensive Cancer Center)와 상호교류를 약속하는 의미의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Towards precision cancer

therapy' 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호협력 내용에 따라 향후 분당 서울대병원 암센터는 앞으로 메이요클리닉 암센터와 ▶연구(공동연구, 임상시험) ▶교육(간호인력, 전공의, 전임의, 박사후 연구원, 교수들의 교환방문) ▶정기적 학술교류(공동 컨퍼런스 개최) ▶비디오 및 텔레컨퍼런스를 통한 정기적 교류와 함께 양 기관에서 개발한 암 치료 진단 기법과 암 예후 예측인자에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철희 원장(오른쪽)이 Mayo암센터 관계자와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 결과를 서로의 환자들에서 검증하는 내용의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개최된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비뇨기암, 소화기암, 갑상선암, 폐암에 대해 각 병원에서 그동안 이룩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양 센터가 보유한 핵심 역량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암에 대한 연구 및 치료의 발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분당 서울대병원 한호성 암 뇌신경센터 부원장은 "‘환자 최우선(patient first)’이라는 메이요의 정신을 계승한 메이요 클리닉 암센터의 가치와 ‘암환자 중심의 진료’를 표방하며 분당 서울대병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이 일치해 교류를 시작하게 됐다"며 "분당 서울대병원 암병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가 향후 양 병원의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협력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전문적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학신문>

부여 비율인 20~30%를 모두 넘었다. 교양 과목은 A,B학점을 합해 70%가 넘으면 전산 입력이 안되지만, 전공은 제어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취업협력을 위해 명문학과라는 곳이 학점 인플레이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고, 다른 단과대들 역시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학점을 부풀리는 상황이다"며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은 대학 학점 인플레이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대부터라도 학점 전산 입력 강제 필수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라다 있다.

▶캠페인 기간=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3년간 총 1천억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도서관 홍보팀>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가구·공간 Naming 모금 종류			
종류	내역	모금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열람석	열람석 의자	100만원(\$1,000)	<input type="checkbox"/>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input type="checkbox"/>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서가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개인캐럴	개인실	1천만원(\$10,000)	<input type="checkbox"/>
그룹스터디룸	4~6인실	3천만원(\$30,000)	<input type="checkbox"/>
	8~10인실	5천만원(\$50,000)	<input type="checkbox"/>
세미나실	30석 규모	2억원(\$200,000)	<input type="checkbox"/>
	60석 규모	3억원(\$300,000)	<input type="checkbox"/>
컨퍼런스룸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input type="checkbox"/>
패컬티 라운지		10억원(\$1,000,000)	<input type="checkbox"/>

## 이경환(물리천문학부 05) 총학생회장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명 후폭풍



총 4차례 학사경고로 2008년 1차 제적, 이듬해 재입학했으나 2014년 1학기 또다시 제명

모교 총학생회장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려고 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관악 캠퍼스내 게시판에는 총학생회 집행부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학생들의 공동자보가 올라왔다. 이들은 재학생 123명이 공동서

명한 자보에서 "학생들의 대표인 총학생회장의 제명 소식을 내부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총학생회장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총학생회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제명에 대한 사실을 재학생들에게 알리기는 커녕 거짓말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경환 전 총학생회장(28·물리천문학부)은 모두 네 번의 학사경고를 받아 지난 2008년 서울대에서 제적됐으며 이듬해 재입학했으나 지난 1학기 학사경고를 받아 모교에서 또다시 제명됐다. 모교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됐다가 재입학한 학생이 또다시 학사 경고를 두 차례 받으면 제명된다.

지난 9월 28일 총운위에서는 김예나(24·국어국문학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이 운영위원 12명 중 7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학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퇴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학생회장이 사퇴하면 현 총학생회는 사실상 존속이 어렵게 된다.\*\*\* <중앙일보>

## 신입생 88.7%가 사교육 받아

'서울대 대학생생활문화원이 최근 학부 신입생 및 졸업 예정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성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올 신입생 3천369명(응답률 26.8%) 중 88.7%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85.9%가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교

육받은 신입생은 2009년 69.5%, 2010년 67.9%, 2011년 58.0% 등 50~70%선을 유지하다 인터넷 강의가 사교육에 추가된 2012년 87.4%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교육 경험 응답자 중 '도움이 됐다'는 학생은 46.0%로, '도움이 안됐다'의 12.8%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연합뉴스>

##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데다가 재학생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로 한계상태에 부닥쳐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aming 모금 캠페인 = 재학생 등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서가에 기부해준 선배들의 이름을 넣어 후진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준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도서관이 관정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조천식 동문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외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 넘게 기부했

다.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모금 액수는 3년간 총 1천억원으로 이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어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겨며 더욱 모교의 미래를 만들어

## "도서관기부 미주 동문들께 감사"

모교 졸업생들의 논문은 모교 도서관이 모두 검색 서비스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석·박사 논문은 KERIS에서 운영하는 RISS 서비스 (<http://www.riss.kr/index.do>)에서

검색 및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대학의 석·박사 학위 논문은 ProQuest PQDT, DOD database(<http://search.proquest.com/pqdt/dissertations/fromDatabases-Layer?accountid=6802>)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Institutional Repository (대표적으로는 <http://dspace.mit.edu>)를 만들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저장해두고 있고 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에서도 pdf로 검색되고 있다.

전 세계 학위논문 상당수가 디지털화 되고 있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여러 database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는 모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디지털화와 검색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모교 도서관 신축 및 네이밍 모금에 미주 동창회 많은 동문들이 참여(표 참조)해 감사하고 있다. 일부 공간과 가구는 네이밍이 완료, 일부는 아직 남아 있다. \*\*\* <모교 도서관 김미향>

기부동문 이름	금액(\$)
이만택(의52)	5,000
김정희(음56)	1,000
오태요(의56)김명자	5,000
강창욱(의57)	1,000
고광선·양남주(공57)	10,000
최인갑(공57)	1,000
정동구(공57)	10,000
김진우(의58)	10,000
이홍표(의58)	1,000
반기문(문63)	5,000
오인환(문63)	1,000
김자역(의69)	1,000
박상원(음69)	1,000
손재욱(가77)	1,000
백승석	3,000
뉴욕 동창회	1,000

## &lt;건강 의학&gt;

## 항바이러스제와 간암치료



한혜원(의대 55)

제퍼슨 의대 교수, 제퍼슨 의대 병원 간질환 예방센터소장

아직도 눈을 감으면 의대생 시절, 교수님 모시고 내과병동을 회진할 때 힘없이 누워있던 50대 남성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황달 끼에 팔다리는 말라 들어지고 복부만 터질 듯 불려와 신음하던 그들 모습이 어제인 듯 선하다. 사망 전 집으로 모셔 가던 가엾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당시 이런 무서운 간암은 한국인이 겪어야 하는 토착병으로 알았다. 1960년 서울대병원에서 자주 목격하던 광경이었다.

그토록 무섭던 병이 이제 원인 규명과 그로 생명을 잃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방과 치료가 발전됐다. 물론 조기발견, 정확한 진단, 환자와 의사의 절대적 협력과 치료에 의한 것이다.

▶**B형간염 바이러스의 발견, 발암과정과 예방접종** = 과거 한국인에 많았던 간염과 간암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65년 원인균인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의 발견으로 시작됐다. 신기하게도 HBV발견은 간질환이 많지도 않은 미국,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소재 암연구소(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현재는 Fox Chase Cancer Center)에서였다.

발견자는 당시 이 연구소 임상 연구과장이었던 Dr. Baruch S. Blumberg였다. 콜롬비아 의대를 나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수혈을 많이 받은 환자들은 donor의 피에 있는 여러 성분은 반응을 일으켜 그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길 것으로 추정해 세계 각처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혈액을 수집했다. 수혈을 많이 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혈루병 환자야 말로 지혈(止血)성분이 있는 정상 기증자의 혈장(plasma)을 혈관주사로 자주 맞아야 함으로 혈루병 환자들에게는 이런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런 가설하에 혈루병 환자들의 피를 세계 각처에서 수집한 사람들의 피와 immunodiffusion시켰더니 한 혈루병 환자의 피에서 불명의 항체가 나타났다. 이 항체를 일으킨 원인성분(抗原 Antigen)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항원이었다. 블럼버그 박사는 우선 이 미지의 항원을 가진 피의 주인공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던 본토인(Australia Aborigine)이었던 고로 그 고장의 이름을 따 Australia Antigen이라 명명한 후 정체 파악을 위

해 이런 항원 소유자의 혈청을 대량으로 모아 농축, 정제했다.

그러는 동안 이 항원(바이러스)의 혈청을 농축하던 연구원에게서 갑자기 황달이 나타났다. 급성간염이었다. 몇달 후 급성간염에서 회복한 연구원의 혈청에서 역사적인 일이 나타났다. 그가 앓기 전 혈액, 황달 발병 시기의 혈액, 회복 후 혈액 세가지를 검사했더니 발병 전 없었던 항원이 황달기에 양성인 됐다가 회복기에 대한 항체가 생긴 것이다. 바로 이 바이러스가 연구원의 급성간염 원인이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뉴욕의 혈액은행을 통해 수혈후 간염을 앓았던 환자와 헌혈자들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이 HBV가 수혈후 간염(post-transfusion hepatitis, 혹은 혈청성 간염 Serum hepatitis라고도 함)의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HBV의 장기간 감염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고 더 진행하면 섬유조직이 침착되면서 점차 굳어지는 간경변으로 결국 간암까지 진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뒤 수혈 후 B형간염과 다른 간염이 관찰돼 이를 Non-A, Non-B hepatitis(A형도 B형도 아닌 간염)로 연구하던 중 1989년 다른 학자들에 의해 다른 바이러

## “최근 제퍼슨대학 병원 우리 팀의 간암 국소치료후 항바이러스 치료로 13년간 생존한 환자들을 비롯한 여러 간암 환자들의 장기 생존률은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결과다”

스가 발견돼 이것이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로 알려지게 됐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블럼버그박사는 B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지 11년 후인 1976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HBV발견 후 1970년 Dane박사팀에 의해 전자현미경으로 HBV의 구조가 더욱 자세히 밝혀졌다. 외피의 표면항원(HBsAg, Hepatitis B Surface Antigen)과 내부에서 핵(core, 혹은 Nucleocapsid)이 보였고 속에 바이러스핵산(HBV DNA)이 관찰됐다. 블럼버그가 발견한 항원(오스트레일리아 항원)은 바로 이 표면항원(HBsAg)이었다. 누구든 HBsAg가 혈액에서 발견되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1972년 Magnus 박사팀이 핵 속의 다른 e항원(HBeAg)을 찾았는데 간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 혈청에 나타나는 것으로 간염치료의 중요한 검사다.

한국에서의 처음 역학적 연구는 블럼버그 박사 연구팀의 일원으로 필자가 과견돼 선배인 서울대병원의 김정룡 박사와 합동연구로 이루어졌다. 1976~77년 병원 위장내과 병동의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환자들의 혈청과 가족들, 그리고 600여 명의 대조군(정상인)을 합한 1천500여 명의 혈청을 필라델피아로 우송해 검사했다. 그 결과 간염, 간경변, 간암환자의 대부분(72~96%)이 이 HBV의 감염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우리 연구팀과 서울대병원의 합동논문으로 발표됐다.



↑ 노벨상 수상 소식에 Blumberg 박사(앞쪽 가운데) 연구팀이 기념촬영했다. 둘째줄 가운데가 한혜원 박사. 오른쪽 도표는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환자와 받지 못한 환자의 생존을 차이다.

1983년 블럼버그 박사와 Dr. Irving Millman이 최초의 B형간염 예방주사를 고안했다. 이 예방주사는 HBV로 인한 간암 예방효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첫 ‘First Cancer Vaccine’으로 명명했다. 그때 미국의 Merck사가 이 백신을 다량 제조하면서 1984년 블럼버그 박사를 통해 암연구소에 3천여명분의 백신을 기증했다. 그 백신으로 필라델피아 근교 많은 한인들, 특히 어린이들이 예방주사 혜택을 보았다.

▶**HBV의 간암발생 과정** = HBV와 간암의 역학조사는 대만에서의 연구에서 더욱 밝혀졌다. 미국의 Dr. Palmer Beasley가 대만에 파송돼 대만인 2만2천명의 혈청을 매년 정기검사한 결과 B형간염 보균자가 비감염자보다 HBV로 인한 간암 발생률이 63~100배 높다

한 환자들이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HBV로 인한 간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연구 발표는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사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65~80%가 HBV로 인한 것이 당시 사정이었다. 후에 나온 항바이러스제들도 같은 결과를 낸다는 발표가 최근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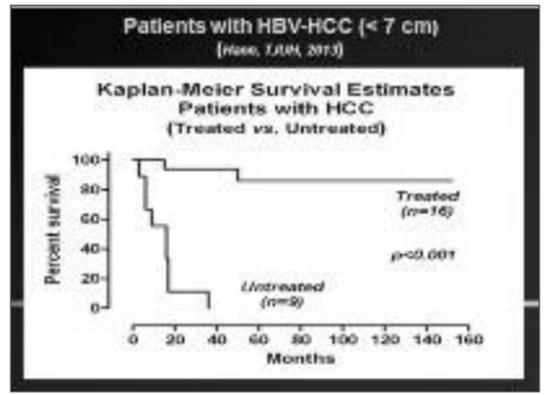
라미부딘 출현 이후 많은 항바이러스제가 나왔다. 2002년 Adefovir(약명 헵세라), 2005년 Entecavir(약명 베이라클루드), 2006년 Telbivudine(약명 타이지가), 2008년 Tenofovir(약명 뷔리아드)가 나와 총 5종류의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다. 한국에서는 또하나의 항바이러스제 Clevudine도 쓰이고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와 간암치료**

남은 간의 HBV 증식을 항바이러스제로 감소 억제시키는 관계로 간에서 새로 간암이 발생한다는 가 이미 치료한 자리에서 간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훨씬 적어졌다. 최근 제퍼슨 대학병원의 우리 팀에서 간암을 국소치료 후 항바이러스치료를 13년간 생존한 환자들을 비롯해 여러 간암환자들의 장기 생존률을 보고했다. 미국에서는 처음 나온 결과였다. 일본·중국·대만에서도 비슷한 그러나 훨씬 짧은 기간의 관찰을 발표했다. 13년 이상의 생존률은 미국에서 발표한 우리팀의 것이 가장 장기관찰로 주목되고 있다. 지금 이 환자들은 계속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정상생활을 유지해 왔고 그렇게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바이러스 치료와 간암치료** 이들은 전 같으면 간이식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었다. 항바이러스제의 대두로 미국에서는 HBV로 인한 환자들(심한 간경화, 간암)이 간이식을 받게되는 빈도가 감소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간암의 원천적 예방(Primary prevention)은 B형간염에 걸리기 전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그러면 B형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한 간암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B형간염에 걸린 사람들은 의사가 적시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 치료받아야 하며, 이미 간경변까지 된 환자는 장기간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암환자에 대해서는 위에 이미 서술했고 이들도 장기적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다.

▶**HBV 치료의 전망** = 그런데 현재의 HBV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들은 바이러스 증식 억제효과는 크지만 근치(根治)는 어렵다. 바이러스의 원조(cccDNA, Covalently closed circular DNA)는 환자 간세포의 핵 속에 있고 무증식 상태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가 미치지 못하는 탓이다. 이런 문제는 이때까지 치료해 힘들던 C형간염을 근치할 수 있게 된 최근의 성공과 대조가 되고 있다. 이에 많은 학자와 제약사들이 앞으로 B형간염도 근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나서고 있어 HBV도 근치의 가망성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B형간염 환자들은 하루 한 알씩 항바이러스제를 의사 지시대로 따르고 장기간 끈기있게 치료받아 실제로 정상생활을 해오고 있다. 근치는 불가능 하나 평생의 약물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그 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B형간염 환자들도 장기간 치료에 용기를 얻을 것이다.\*\*\*



<건강 의학> 칼럼

# 연암 박지원(燕岩 朴址源)과 일본 난의학(蘭醫學)



김일훈(의대 51) CH  
미주 동창회보 전 논설위원

우리 옛 조선은 지식인이 지배하는 사회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화기 이전의 조선 인물들 책을 읽는 가운데, 깜짝 놀랄 식견과 선견지명을 지닌 선현들을 자주 접하며 과연 우리 조상은 위대한 분이 많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중에서도 이씨조선 시대 의학도가 아니면서도 우리나라 의학의 후진성을 개탄한 연암(燕岩) 박지원(朴址源 1737~1805) 선생의 한 단면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으뜸가는 실학파 학자 = 조선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중국여행 기행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쓴 연암은 조선 후기의 으뜸가는 실학파 학자다. 그는 주자학을 비판하고 조선의 개화에 눈을 뜬 대표적 인물 중 한 분이다. 쇠국의 암흑시기였던 조선사회에서 그가 보인 외국서적에 대한 탐구욕과 조국 개화에 대한 정열을 접할 때, 마치 캄캄한 밤 하늘에 선듯 비치는 번갯불을 연상하듯 너무나 실리(과학)적이고 서구적 안목의 소유자였다는 점에서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씨조선을 지탱해 온 절대적 사상인 주자학에서의 이탈이나 그에 대한 비판은 사문난적(斯文亂賊) 유교사상에 배반하는 역적(逆賊)으로 매도되는 사회에서, 외국학문에 대한 향학력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상은 우리 조선의 개화에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일찍부터 외국 의학의 우수성에 주목 = 그의 ‘열하일기’를 읽어가면서 필자를 더욱 감탄케 한 것은 그가 중국 땅에서 외국 의학(醫學)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관한 책을 구하려 무던히 애썼던 장면이다. 그 내용의 글을 옮겨본다.

<우리나라는 의학 수준이 낮은데다 약재마저도 많지 않다—열하(熱河)에 있을 때 이 점에 대해 느낀 바 있어 전문가 한 분에게 물었다.  
“근래 의학서적 가운데 새로운 처방이 실린 책으로 구입해 갈 만한 책이 있습니까?”  
“근세 일본에서 발간한 ‘소아경험방(小兒經驗方)’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원래 서양에 있는 화란(和蘭)사람들이 저술한 책이라고 합니다.”

나는 북경으로 돌아와 화란인의 저술인 ‘소아 경험방(小兒經驗方)’과 서양책인 ‘수로방(收露方)’을 사려고 서점으로 돌아다녀 봤으나 없었다.>

몇백년 전 일본에 서양의학인 ‘난의학(蘭醫學)’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대 한국 지식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0년 전 쇠국(鎖國)나라 조선의 유교 선비가 이 ‘난의(蘭醫)’에 주목하여 난의학 책을 찾아 해냈다는 사실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그의 강한 집념을 말해준다.

외교 사신으로 중국 나들이를 하면서 조국 개화를 위해 외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물, 그것도 자기 전공과 거리가 먼 의학서적마저 구하려 했던 그의 애국심에 감탄한다. 근래 국민의 혈세로 외유하는 한국 선량들의 불미스런 일들이 자주 보도되나, 연구자료를 수집해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옛 선비는 일본서 만든 ‘화란의학서적’이 중국에 수입, 번역되어 이름높은 의학서적으로 정평이 나 있음을 주목했던

## “200여년 전 우리 선현 연암 선생은 캄캄한 쇠국 조선 의학의 후진성을 한탄하며 낯선 중국 땅에서 야만국 일본의 난의학에 주목해 그것을 찾아 암중모색했으니...”

것이다. 야만국 왜국(倭國)이라고 일본을 무조건 멸시하던 다른 유학자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그 책을 구하려 무던히 애썼다.

▶선진문명에 먼저 눈을 뜬 일본에게도 배워야 = 여기서 옛 일본의 학을 잠시 소개하자면, 일본은 발달된 서양의학 기술을 화란(和蘭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내과·소아과는 물론 외과·안과 등도 서양의학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동양에서는 지금처럼 최첨단을 걷는 의학수준의 나라였다. 개화기 훨씬 전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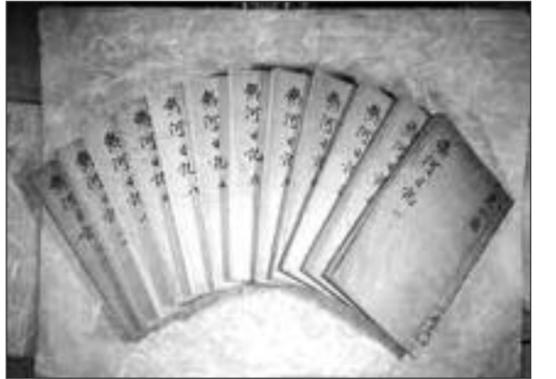
원래 옛 일본도 우리 이씨조선 500년과 같이 쇠국주의 나라였다. 그러나 조선과 다른 점은 ‘나가사키(長崎)’라는 조그만 자유항을 개항하여 그곳에서 선교에 관심 없는 외국인 화란과 무역을 했으며 그곳을 통하여 서방세계의 학문과 정보를 얻고 있었던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씨조선 500년이 캄캄한 상자 속에 갇힌 시기였던데 비해, 쇠국 일본은 나가사키라는 바늘구멍을 통해서 상자 속에 바깥 세계의 햇살이 가냘프게나마 들어오던 나라였다. 그래서 일본의 선구자들은 이 바늘구멍 빛을 통해서 개화로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끈질긴 노력을 했으며, 여기서 생겨난 학문이 다음에 말하려는 일본의 난학(蘭學) 즉 네덜란드 학문이다.

그런데 캄캄한 나라 조선에서는 외교관인 연암이 난학과 접할 수 있는 길은 난학의 중국 번역서를 찾아 암중모색하는 일이고



↑연암 박지원의 초상화와 그의 작품 ‘열하일기’. 박지원은 당대 최고의 실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쇠국적인 우리 조선의 의학을 개탄, 선진의학 도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작이었던 것이다.

우리 조선 선비 모두가 연암 선생 같이 일본인의 신학문을 향한 왕성한 학구열을 본받아야만 했었다. 그것이 일본의 선진화와 나아가서는 경제대국과 세계열강이 되는 밑거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은 그러하지 못했다. 과거 조선과 일본 통신사의 행적을 살펴봐도 너무나 달랐다. 일본 사신들은 조선에서 행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있는 이름있는 서적은 모조리 구해서 일본서 출판했다.

▶우물안 개구리의 우리 선조들 = 반면 조선 사절이 일본서적을 구해왔다는 기록은 없으며, 왜국 땅에서 오직 유교학자라는 입장에서 뽑내기만 하고, 일본인의 언행이 주자학 예법에 맞고 안맞

없어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고 술회했다.

▶작아도 강한 나라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유럽의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해외무역으로 한 때 (4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였으며 상공업이 가장 융성한 곳이었다. 여담이지만, 러시아의 피터 대제(大帝)가 그곳에 발달된 조선술(造船術)을 직접 배우고자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으니 300년 전(1697년)의 일이다.

미개국 러시아의 주인으로서 조국 근대화에 야심만만했던 피터 대제는 그곳 의료계 시찰도 했다.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 화가 람브란트의 그림 ‘톨프교수의 해부학 강의’로 유명한 바로 그 해부학 교실에 찾아가서 인체 해부를 직접 견학했다. 이때 그를

두 독일 의사였다고 한다.(주: 정부에서 지불하는 외국 교사의 연봉은 총리와 같았다고 함).

명치유신(明治維新) 즉 일본개화기 초기에는 신 의학교육기관의 부족으로 한방의 수가 전체 의사의 8할을 차지했지만, 애당초 일본 정부는 국민의 보건담당을 ‘서양의 일변도’로 몰아갔던 것이다. 근대화·국제화의 길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1875년 제정된 의사 국가시험 과목이 전적으로 서양의학 일색이 됨으로써 한방의는 기득권만 인정받아 개업하는 불안한 존재가 됐다. 의사시험도 국가시험으로 통일했다. 유일한 한방 의학교도 1883년 의료법 개정으로 문을 닫게 됐다.

여기에 한방의는 전국적으로 결속해서 정부의 서양의 편중정책에 저항해 봤지만, 국민보건 근대화 의지가 굳은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리고 한방의의 최후 로비이자 필사적인 청원으로 1895년 ‘한방의 존속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건만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장래를 위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 의원들처럼 한방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 결과 합법적인 한방의는 19세기 일본서 영원히 자취를 감춘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국의 과학입국과 국제화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신념 굽은 정부 지도자와 실무자들,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을 계몽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계 지도자와 의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난의학(蘭醫學)으로 씨뿌리고 뿌리내린 일본 의학은 그후 독일 의학, 미국 의학으로 접목되어 현대 의학이라는 거목으로 자랐으니 그 혜택은 바로 국민이 차지한다. 일본이 건강수명 최장수국이 된 연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 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일본의 학은 탄탄대로에 놓여있다고 할까!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릴세 잎이 무성하고 백화만 발하기 때문이다. 몹시 부러운 일이다.

200여년 전 우리의 선현 연암 선생은 캄캄한 쇠국 조선 의학의 후진성을 한탄하며 낯선 중국 땅에서 야만국 일본의 난의학에 주목하여 그것을 찾아 암중모색했으니, 국민보건 백년대계를 염려하며 조국 근대화에 공헌하고자 했던 그 애국심이 우리는 다만 머리가 숙여질 따름이다. 오늘의 의료대란을 예방하려는 선견지명을 지녔던 선현 연암 박지원 선생을 생각해본다.\*\*\*

고 하는 비평가 행세가 전부였다고 한다.

난학(蘭學) 이야기로 되돌아 가 본다. 지금부터 400여년 전(서기 1600년) 유럽의 신흥국가인 네덜란드의 상선이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에 입항했으며 그곳에서 무역관 설치 허가를 받았다. 마치 북한이 선봉지구를 개항하는 격이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알고자 하는 많은 지식층 인사들이 외국어(네덜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신학문에의 붐이 일어났다. 여기서 네덜란드어 공부를 막 시작한 의사(한방의) 몇 사람이 서양책 ‘해부학 도본’에 나온 인체 해부도 그림을 보고 감동했다. 일본 난의(蘭醫)의 선구자인 수기다(杉田玄白)라는 한의는 우연한 기회에 사형수의 시체 해부에서 보여준 실물과 ‘화란 해부학 그림’이 완전 일치함을 보고 탄복했다. 그는 네덜란드어를 학습하는 몇 동료와 뜻을 같이하여, 갖은 고생 끝에 해부학 도본을 번역해서 ‘해체신서(解體新書)’란 이름으로 책을 간행했으니 1774년의 일이다.

이때 조선은 신학문은 커녕 고루한 유학자들의 4색당쟁 시대였는데, 여기서 일본인의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해체신서’의 출현이 일본의 ‘난학’, 그 중에서도 ‘난의학’의 효시라 하겠다.

수기다는 그의 만년에 번역당시를 회상하면서 “똥대도 없이 배를 태평양에 띄운 거나 다를 바

수행했던 귀족 2명이 시체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자 “조국 근대화를 싫어하는 놈”이라며 그들 입에 시체 근육을 집어넣어 처벌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야기를 되돌려, 나가사키에 머문 열 몇 명의 네덜란드인의 영향이 일본인 유지의 손을 거쳐, 후진국 일본의 개화에 크게 공헌했음은 문명사상의 기적이라고도 하겠다.

옛 중국 한의학은 ‘음양오행설’에 의거하며 인체의 내장은 ‘5장 6부’ 밖에 없다고 했다. 한의학은 관념의 학문이었다. 한 의사는 의사가 되기 전 유교의 ‘음양설’부터 마스터해야 했다. 난의학의 출현(1774년)이래 일본의 많은 재래의(한방의)들은 관념 아닌 사실, 즉 과학을 추구하는 난의로 개종했다.

개화기 이전에 이미 여러 명의 네덜란드 의사가 일본 의학 교육에 관여했던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그래서 1858년 동경에 난의의 관립 의학교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2백몇십년 전 ‘난의학’으로 일본땅에 서양 의학의 틀을 잡은 그들은, 명치유신 이후 독일 의학으로 변신해갔다. 난의학이 주로 독일 의학의 번역 학문이고 독일 의학이야말로 당시에는 세계 최고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사로 채워진 동경 의학교 = 종전의 동경 의학교는 1877년 동경대학 의학부로 개칭되어 새 출발했으며 이때 교사들은 모



↑ 지난 1958년 9월 Boeing사 엔지니어로 부임하기 위해 부푼 가슴을 안고 워싱턴주 시애틀을 향해 항공기에 오르던 때의 모습이다.

### 60여년 전 이야기<4>



홍용식(공대 51) VA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중신회원

나에 대한 기사도 물론 신문에 크게 나왔다. 1958년 9월 부푼 가슴으로 시애틀로 향했다.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 받은 미국 = 1957년 인류 최초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소련에 의해 발사돼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에 대응해 각종 대형 우주사업을 시작했으며 연구분야에도 집중 투자하였다.

NACA(NASA의 전신)를 설립했고 우주관련 연구 보고서와 자료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무제한 보내 줬다. 연구과제 신청서에는 '우주' 라는 단어만 들어 있으면 모두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돌기까지 했다.

우주에 대한 경험자가 별로 없었기에 우주업계는 그나마도 우주에 가까운 항공기 분야 엔지니

어들을 많이 데려갔다. 그 결과 그동안 외국 엔지니어를 채용하지 않았던 항공회사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나도 이중한 명이었던 것이다.

Boeing에 입사해보니 나의 서울 공대 선배인 전계상 박사(기계공학)와 이만영 박사(전기공학)가 나보다 몇 달 먼저 와 있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1958년 우리 셋이 Boeing에 입사한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추진분야 일을 하였고 가스터빈을 직접 설계하는 행운도 가졌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장남을 낳았다.

여기까지가 1945년 서울 상공에 나타난 B-29를 보면서 미국유학과 Boeing사를 꿈꿨던 때부터, 유학하고 Boeing의 엔지니어가 된 1958년까지의 이야기이다.

▶박사 장학금 심사위원이 후에 Boeing 사장으로 재회 = 1960년대 Boeing의 미국내 총 종업원은 10만명이 넘었는데 박사 장학금을 1년에 한 명씩 주고 있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를 내가 그 장학금을 신청해서 박사 학위를 끝내기를 원했다. 외국인인 데다가 단 한 명만 주는 데 내가 뽑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원서를 휴지통에 버렸는

## 음악 자체가 세계적 언어



지종근(농대 56) CA

세계적인 몬트리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1천500명의 합창단이 야외 공연에서 주는 감명.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과 문화의 풍요함이 넘치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올림픽 파크에서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 30분, 한국의 광복절이기도 한 이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계 3세대 미국인 켈토 나가노 지휘자가 수준 높은 몬트리올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서, 부지휘자 5명과 1천500명의 대합창단을 이끌고 야외에서 무료로 공연한 것은 환상적이었다.

클래식 음악과 현대음악을 연결시키는 가교적 역할을 한 파격적 작곡가 칼 오프(Karl Orff((1895-1982)의 '칼미나 브라나(Carmina Brana)' 전 무대곡 칸타타를 1천500명 합창단의 합창이 한 목소리로 모아져 부르며, 오케스트라의 반복되는 리듬이 수만 명의 청중을 향하여 심장을 박동시키는 공연의 순간순간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을 문화라는 용광로에 넣어 하나의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이 곡의 작사는 10세기부터 14

세기까지 세계적 유랑승이나 음유 시인들의 시를 14세기 콜리 아드라는 사람이 250편을 골라 라틴어로 번역해 보관해오던 것이 독일의 브라나(라틴어) 지역 성당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후 이 중 25편을 독일의 작곡가 칼 오프가 19세기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 혁신적으로 변형시킨 현대적 발상으로 작곡하여 '칼미나 브라나(브라나의 노래)' 곡으로 공연돼 일약 유명해졌다.

1편 '오 운명의 여신여! (Fortuna)' 는 마지막 25편 연주 후 다시 반복 연주되는 너무나 유명한 곡으로 세계적 공연에 자주 연주되기도 하며, 과거 서울대 합창단도 월트 디즈니 홀에서 합창을 부른 것이다.

캐나다는 앵글로 색슨족이 형성한 영어권(Anglophone) 시민이 토론토시 중심에 상공업과 금융업을 통한 부를 형성한 경제도시라고 한다면, 프랑스인들이 형성한 불어권(Francophone) 퀘벡의 중심지 몬트리올에는 인구 300만에 유명한 4개 대학이 있는 교육 도시로,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고 도시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세계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도시다. 파리 노트담 성당을 모방한 노트담담 성당이 있고, 불어를 사용하는 파리만큼 같은 사람들 다수인이 거리를 활보하는 문화의 도시로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한 도시가 된 것이다.

수많은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려져 많은 민족이 몰려오고, 퀘벡 독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갈등 속에서도 굳건한 민주주의 제도와 단합으로 지상 천국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문화행사를 바라보며 다민족이 모여도 정치체도와 법질서가 확립되면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한국은 단일민족인데도 왜 70여년이 지난 오늘 까지도 남북으로 분단되고 있으며, 남북 160만 명의 무장병사들이 서로 총뿔리를 맞대고, 핵과 미사일 등 살상 무기를 가지고 전시 태세로 대치하는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가. 의문의 회오리가 내 머리를 강타하고, 내가슴을 막히게 하여 울분이 폭발할 것 같이 느껴진다.

문화는 한 국가의 선진국 진입의 척도가 되고, 각종 단체의 문화 행사는 비록 작아도 사회봉사의 하나라 그가 속한 사회에 등불이 되어, 자신들만이 모여 놓고 먹고 마시는 단체와는 차별화 되어 세상을 밝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다.

서울대 동창회 최고 수준의 합창단이 지난 2005년 창단되어 6년간 세계적 음악 전당인 월트 디즈니 홀에서 LA 한인사회에서 가장 수준높은 합창을 관현악단과 같이 공연하여 미주 사회에 문화 민족의 자부심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부 갈등에 의해 2012년 이후 3년간 중지돼 왔다. 따라서 본 회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미주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현 동창회에서 다시 합창단 재건에 온정력을 기울이면 더욱 훌륭한 합창단이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 조국 선진화에도 작지만 의의있는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문화와 예술이 있기 때문이며, 선진국이 후진국과 다른 것은 수준 높은 문화행사의 유무에 좌우되는 것을 이번 몬트리올 문화 행사를 보고 뼈저리게 느끼어 이 글을 몬트리올 여행 중 올린다.\*\*\*

### 동문 시 감상

#### 한낮, 개심사에서

김운기(미대 78)  
동단건축 대표·시인

바람이 솔솔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풍경 끝에 달린 물고기 꼬리를 보았지요  
구름이 몇 번인가  
모였다 흩어집니다

노 스님 오수에 든 시간  
세심연(洗心淵)의 수련도 즐기고 있습니다  
뗏마루 밑  
적막에 쉬인 누렁이가  
귀찮은 듯 꼬리를 몇 번 흔들 뿐

새 물내 나는 빨래처럼 펄럭이는  
법어(法語)를 찾아  
일백여덟 계단을 걸어 온 숨 소리만  
북소리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

데, 내일은 그 원서를 다시 꺼내어 책상 위에 놓고는 신청하라고 고집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신청한 결과 생각지 않게 내가 장학금을 타게 되어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아내에게 고맙다.

그 때의 심사위원이 내가 일하던 Division의 경영진에서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내게 귀띔해 주던 것이 기억난다. 이 때의 Division Manager였던 Malcolm Stamper는 후에 Boeing의 사장이 됐는데, 15년 후 나는 대한항공의 고문으로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

▶과학기술 한림원 원로회원으로 은퇴 = 1970년대 중반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를 대거 유치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도 상관없이 유치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Aerospace Corporation에서 미 공군 우주국(USAF Space Division)의 우주추진 분야 연구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한국정부 초청으로 1974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항공우주 담당 부소장으로 가족과 함께 귀국해 일하다가 대한항공 연구소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보냈다.

Boeing과 관련한 일화가 있다. 내가 대한항공 고문으로 있을 때 조중훈 사장과 함께 영국의 Farnborough Air Show에서 Boeing의 Stamper사장을 만난 일이 있었다.

그는 내가 Boeing재직시 나의 Division Manager였고 나의 박사 장학금 수여를 강력히 추천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즉각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조중훈 사장에게서 내 소개를 받고 "조 사장, Boeing이 얼마나 투자를 현명하게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라고 멋지게 한 마디 했다.

Boeing의 최대 고객인 대한항공에서 앞으로 일할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내게 박사 장학금을 줬으니 현명한 투자가 아니냐고 위트있게 자랑한 것이었다.

나는 한국 항공우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인하대 명예교수와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원로회원으로 은퇴하여, 한국에 귀국한지 29년만에 자식과 손주들이 있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현재 아내 민병희(인하대 명예교수)와 함께 버지니아 주 타이슨스 코너에 거주 중이다.

▶부자가 모교 기계과 졸업 기념패 받아 = 큰 아들 홍준서(John) 역시 모교인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졸업으로 부자 기계과 졸업 기념패를 받았다. 현재 IDA(Institute for Defense Analy-

ses)의 수석 연구위원이다.

딸 홍수진(Julie)은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연구원이며 둘째 아들 홍원서(Dennis)는 Virginia Tech의 기계과 교수다.

한국 정부에서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낸 것은 연구와 현장시설이 좋은 미국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 오라는 것이었다. 첨단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려면 미국 시민권과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교수는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를 채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유경험자를 교수로 채용하지 못하고 사립대학교, 연구소, 기업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재미 과학자들이 대거 귀국하던 1970년대 중반에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첨단 과학기술 유경험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이 점을 강연이나 보고서 또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했다. 다행히 몇년 전 서울대법이 통과하여 이제는 서울대에서도 외국의 유명 학자를 많이 교수로 초빙하고 있고, 세계 대학 랭킹에서도(통계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0년도에 100위권 이하였던 서울대의 최근 순위는 31위로 나와 있다고 한다. \*\*\* <끝>

등문 및 등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반기문(외교 63) UN사무총장

### 한국 대선후보 지지도 압도적 1위 본인은 UN일에 전념하려는데 소문만 난무

반기문(외교 63)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조국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2위의 지지율에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 단체들은 조국의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맨 처음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반 총장은 후보에서 제외했었다.

실제로 지난 해 초기 몇 조사단체가 반 총장을 포함시킨 지지도 조사에서는 반 총장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단체들이 이후 반 총장을 제외시켰다가 이번 조사에서 반 총장을 후보에 넣었더니 반 총장이 바로 1위에 오른 것이다. 따라서 반 총장이 2017년 대선에 실제로 뛰어들 경우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란 전망이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 단체 한길 리서치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

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등 그간의 선두권 3인방을 밀쳐잡고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반 총장이 39.7%의 지지율로 1위였고, 박원순 시장은 13.5%에 그쳐 2위였다. 1위인 반 총장과 2위인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 격차는 무려 26.2%포인트에 달해 박원순 시장은 반 총장의 거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9.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4.9%)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직 반 총장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지만 2016년 UN 사무총장 임기를 끝내고 귀국하면 여야 정치권에서 반 총장을 둘러싸고 구애 경쟁을 벌이게 될 것” 이라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반 총장의 대권 의지인데, 이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을 뺀 차기 후보 결과는 여전히 박원순-문재인-김무성 3인방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4·6위권도 안철수-정몽준-김문수 등 중위권 3인방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결기(RDD) 방식의 유무선 전화면접법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다. \*\*\*

### 최재현(수의대 66) LA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회장 모교 서울대 수의대에서 특강

LA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평통) 최재현(수의대 66) 회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의 특별 강의를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최재현 회장은 지난 10월 20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수의과 대학에서 후배 수의과 대학 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수의학 실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북한 지역의 수의학에 대해서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최 회장은 24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대구평통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26일 LA에 입국했다.\*\*\*



### 한국 음악무용예술단 김동석(음대 64)단장 LA한국문화원에서 ‘가을 콘서트’

승무·살풀이... ‘전통춤 한마당’ 한국 중견무용가들과 함께 ‘한국국악·무용의 향연’ 벌여

김동석(음대 국악 64) 한국 음악무용예술단장이 미주지역 공연가들과 함께 전통 춤사위를 펼치는 공연 한마당을 지난 9월 10일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했다.

LA한국문화원의 ‘아리 프로젝트 2014’ 다섯번째 무대로 펼쳐진 이 공연은 미 주류사회에서 우리 무용과 국악 전파에 가장 오랫동안 힘써온 김동석 한국음악무용예술단과 한국·일본·미국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춤추는 스님’ 김묘선(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씨가 제자들과 함께 마련한 공연이다.

김동석 단장은 영어해설을 곁들여 한국 무용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승무’를 시작으로 궁중무용 ‘기원무’와 ‘검무’, 민속무용 ‘살풀이’ ‘대강놀이’ ‘화선무곡’ ‘소고춤’ ‘진도북춤’, 가야금 산조, 사물놀이 ‘풍물’ 등 대표적인 전통춤은 모두 선보였다.

김동석 단장은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인 양성소에서 가야금을 전공한 뒤 서울대 국악과에서 이론을 전공했다. UCLA 민족음악과를 거쳐 호프 인터내셔널 칼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7년부터 2013년까지 UCLA 민족음악과 한국음악프로그램에서 교수로 강의했다.\*\*\*

### 모교 서울대 유안진 명예교수 미주 4개문학단체 ‘연합캠프’ 강의

LA 한인 커뮤니티의 4개 문학단체(미주한국문인협회·미주한국소설가협회·재미수필문학가협회·재미시인협회)가 합동으로 마련한 ‘연합문학캠프’가 지난 9월 20일, LA의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캘리포니아 외 타 주에서 참여한 20여 명을 비롯해서 160여 명의 문인이 모인 가운데 ‘2014 미주 문학인의 큰 뜻, 큰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11시간 동안 ‘한국 문학’이라는 주제로 뜻있는 프로그

램이 진행됐다.

본 행사의 프로그램에서는 시인이기도 한 유안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백시중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이 초청돼 하루 종일 강의했으며 질의문답과 뒤풀이 한마당이 이어지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안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는 것으로 이기려는 자의 거짓말하기’에 이어 백시중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오늘의 한국 소설,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강의했으며 유안진 교수는 다시 ‘나의 수필 쓰기’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학과 창작에 대해 강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뒤풀이 한마당을 통해 문인들끼리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 강정식(외교 81) 신임 토론토 총영사 한인언론사 방문 “동포에게 신뢰받는 신개념 공관”



←신임 강정식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오른쪽)가 토론토 한국일보 김완수 발행인과 함께 한국일보 인쇄 플랜트를 둘러보고 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경제의 중심인 온타리오주의한인사회까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히 주캐나다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각종 활용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Q. 한인동포사회를 위한 중점 업무 계획은

- 우선 한인 사회가 자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한인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동포에게 신뢰 받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Q. 신임 총영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출신으로 모교 정치외교학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1987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후 문화협력과장, 안보정책과장, 국제기구협력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국제법률국장으로서 재직했다.\*\*\*

지난 10월 15일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로 공식 부임한 강정식(외교 81) 신임 토론토 총영사가 16일 부임 인사차 이 지역 한국일보를 방문했다. 다음은 인터뷰로 밝힌 취임소감과 동포사회를 위한 그의 청사진이다.

Q. 취임 소감은.

- 벤처부 총영사관에서 영사직을 지낸 경험은 있지만 공관장으로서의 첫 경험이다. 각 단체 방문을 통해 토론토와 한인동포사회에 대해 최대한 빨리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Q. 한개 FTA체결후 실질적인 첫 총영사다. 활용방안은.

### 김영민(물리 86)·김수현 박사부부 아들 앤소니 김 과학영재 전국대회 최종 10인에 올라

캘리포니아 팔로스 버디스에 거주 중인 김영민(물리 86) 박사와 김수현 박사의 1남1녀 중 둘째인 앤소니 김(12세 7학년)이 전국적인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에서 최종 10인까지 올라 화제가 됐다.

김군은 3M사가 주관하는 Young Scientist Challenge(YSC)대회에 지난 봄 출전해 전국에서 10인만 뽑는 파이널리스트에 올랐고 10월 13-14일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열린 최종 대회에 출전했다.

YSC는 디스커버리 에듀케이션과 3M사가 공동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로 3개의 특정 카테고리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 아이디어를 1-2분짜리 비디오에 담아 경쟁하는 것이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2만5천달러의 상금과 ‘미국 최고 영사이언티스트(America's Top Young Scientist)’라는 영예가 주어진다.

이번에 김군이 내놓은 발명 아이디어는 우천시 자동차들이 겪게 되는 큰 어려움으로, 자동차의 빗길 사고 첫번째 원인이기도 한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앞에 물을 견어내는 장치다. 김군은 모형 자동차에 컨셉을 구체화해 비디오를 출품했고 전국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김군은 10인 중 유일한 한인이기도 하다.

또 김군은 지난 10월 7일에는 NBC에서 진행되는 ‘웨이킵 워드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초대받



아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군은 이날 장래 희망을 엔지니어라고 간단히 소개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가 수많은 빗길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박사는 모교 물리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노스롭사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며 김수현 박사는 모교 교육학 박사로서 팔로스버디스 베리타스학원을 운영중이다.\*\*\*

문창극(정치 68) 서울대 교수 워싱턴에서 특별강연

### “한반도 통일 이루려면 기술적 핵보유국 돼야...”

한미경제연구소 한미클럽 공동 주최로 ‘통일 대박론’ 세미나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이 기술적 핵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처럼 유사시 몇 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창극(정치 68) 서울대 초빙교수는 한미경제연구소(KEI 도널드 만줄로 소장)와 한미클럽(이사장 봉두완) 주최로 지난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통일대박론과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중앙일보 주필을 지냈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바 있었다.

문 교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일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국의 영향으로 통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의 의식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 3성을 새로운 프론티어로 삼아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이 생길 것이며, 한·중·일 3국의 실질적인 평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통일을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다”며 “북한 핵과 남남 갈등”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자의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억제



↑안호영 주미대사(왼쪽)가 20일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창극 교수(왼쪽에서 두번째), 도널드 만줄로 KEI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 핵보유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약속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일본처럼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교수는 최근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예로 들며 “평화 통일의 최종 방식은 국민투표일 것이며 현재같이 남남 갈등이 지속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인구가 북한의 두 배이고, 경제도 우위이며, 재래식 무기가 앞선다 해도 표가 분

열되면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북쪽에 바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데니스 헤스터 전 하원의장도 참석해 한미동맹과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계를 갖춘 한국과 그렇지 않은 북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며 “양국은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군사적·경제적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냉전 시절에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결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



### 한국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개발주역 최순달 박사 10월 18일 한국에서 작고

모교 공대 전기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박사 출신으로 JPL 연구소 등에서 일했으며 1970년 대중반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3호’ 개발의 주역을 담당했던 최순달(공대 50) 박사가 지난 10월 18일 한국에서 83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최순달 박사는 한국에서 체신부

장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최순달 박사는 한국 정부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확정됐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과학기술인은 고(故) 이태규 박사와 고 최형섭 박사, 고 전재규 박사에 이어 최순달 박사

까지 네명이 됐다. 최순달 박사는 지난 1974년 남가주 한인회장 선거에도 출마해 동포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투표장엔 ‘좋은 사람 바로 뽑아 우리 일꾼 만들자’ 등의 각종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길거리 유세진도 치열했다. 역대 한인회장 선거는 항상 뒷말을 남겼다. 치열한 경합을 벌였을 경우엔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한인회장 선거는 오히려 지금은 단독출마도 낫고, 관심도 시큰둥해진 모습이지만 과거엔 경쟁이 치열했다. \*\*\*

### 박은희(미대 68) 동문 ‘드로잉과 판화전’

박은희(미대 68) 동문이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MK 갤러리(대표 김미영)에서 ‘드로잉과 판화전’을 주제로 한 6인전의 일련

으로 10월 4일 작품을 출품했다. 이 그룹전에서는 서양화가이며 판화가인 박은희 동문을 비롯해 김원숙, 이정아 교수(숭의여대)와 루이스 세네쉬, 마이클 셀마이어 교수(몽고메리칼리지 미대), 데이빗 갈락 씨 등이 총 50여점의 근작을 선보였다. 워싱턴과 뉴욕 화단에서 활동

중인 박은희 동문은 무수한 알파벳과 음표, 선으로 구성된 밝고 경쾌한 추상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김원숙 씨는 동양적인 고요함과 신비로움 등 자연친화적 정서를 캔버스에 옮긴 작품을, 전시작들은 주로 추상과 반추상의 소품들이다. 전시회는 10월 17일까지 계속됐다. \*\*\*

세계 한인변호사회 신임 최병선(외교 77) 회장

### “한인 법조인 플랫폼 될 것”



뉴욕에서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2차 세계 한인변호사회(IAKL) 연차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된 최병선(55·사진 외교 77) 변호사는 앞으로 임기 2년간 벌일 주요 활동으로 ‘멘토링’을 꼽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인 최 회장은 “멘토링이야말로 IAKL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멘토링은 우리 변호사회에 딱 맞는 일”이라며 “전 세계 법률가들이 풍부한 멘토 자원인 만큼 관심을 집중해(로스쿨생들을) 도울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IAKL은 그간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격년마다 해외에서 여는 총회 때는 해외 로스쿨 학생들이 멘토링 대상이다.

실제로 201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었던 총회 때에는 현지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뉴욕에서도 총회와 함께 열린 학술대회에서 예비 법조인들과 함께 상담 시간을 마련했다.

‘공익’을 모토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는 IAKL은 멘토링뿐만 아니라 해외 총회 때마다 현지 동포를 대상으로 펼치는 무료 법률 상담 등 현장형 공익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 회장은 임기 동안 IAKL이 회원간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보니 연차총회나 지역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서 서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 회원간 정보 공유나 친목 도모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최 회장은 “우리 변호사회를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모임이 있었느냐’며 굉장히 반가워한다. 해외에서 변호사회를 통해 한국에 취업한 경우가 많고 동포 후손들이 한국과 연을 맺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변호사회를 잘 만들어나가면 한국과 해외를 잇는 법조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나부터라도 해외 지역 모임에 나가 보려 한다”고 밝혔다.

모교 외교학과를 나와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 회장은 30년 가까이 국제금융·외국환거래·기업 구조조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1992~93년 영국 필드 피셔 워터하우스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경험했고 2010년 법무법인 세종이 중국 상하이에 낸 사무소에서 수석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은행연합회 은행 신상품심의위원,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한국 공항공사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 등도 맡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법대 82)의원

### 뉴욕 밀알선교단 방문 장애인 격려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나경원(법대 82)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24일 뉴욕 밀알선교단(단장 김자송)을 방문해 한인 장애인 동포들을 격려했다.

제69차 유엔(UN)총회 기간 중인 9월 25일 개최된 ‘제7차

World Focus On Autism’에 한국 대표 기조연설자로 참석하나 의원은 행사에 앞서 뉴욕밀알선교단을 방문해 미주내 한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다. 특히나 의원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을 두고 있어 이번 뉴욕 밀알선교단 방문에 보다 큰 관심이 쏠렸다.

선교단 김자송 단장은 “나 의원이 자폐성 장애인 권익옹호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에 앞서 뉴욕밀알의 장애인 식구들을 만나 그 의미가 무척 크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뉴욕밀알선교단 방문과 함께 대표적인 뉴욕의 친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과도 각각 면담을 가지고 한국과의 우호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나연수(사대 53) 동문

###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첫 작품전

버지니아 락빌에서 거주 중인 나연수(사대 53) 동문이 첫 미술 작품전을 열었다. 버지니아의 애난데일 소재 코리아 모니터 갤러리에서 지난 11월 1일(토) 시작돼 8일까지 일주일간 계속된 전시회에서는 그가 5년간 화폭에 담아 온 작품 가운데 추린 오일 페인팅 32점이 공개됐다. 전시작 가운데는 첫 작품 '와일드 브라질리언 로즈'도 포함돼 있어 5년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전시작 대부분은 생동감 넘치는 '미모사' '베리' '아담과 이브' '아이리스' '분홍 연꽃' 등 정물화와 풍경화가 대부분이다.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소박한 풍경화 가운데는 '그레이트 세네카 크릭'과 '락빌 맨션' '운하' 등은 메릴랜드 지역의 풍경들을 읊길 것들이다.

드 브라질리언 로즈'도 포함돼 있어 5년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전시작 대부분은 생동감 넘치는 '미모사' '베리' '아담과 이브' '아이리스' '분홍 연꽃' 등 정물화와 풍경화가 대부분이다.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소박한 풍경화 가운데는 '그레이트 세네카 크릭'과 '락빌 맨션' '운하' 등은 메릴랜드 지역의 풍경들을 읊길 것들이다.

←나연수 동문(왼쪽)과 작품

뉴욕의 화백 김봉중(미대 84) 동문

### 맨하탄 첼시에서 '중독' 개인전

김봉중(미대 서양화과 84)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뉴욕 맨하탄 첼시의 엘가월머-현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봉중 작가는 새로운 연작 '중독'을 통해 현대 문명의 발달에 따르는 생활에 무의식적으로 젖어드는 중독 아닌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다룬 작품들을 보여 주었다. 그의 작품들은 인터넷이나 전자 기기 등에 익숙해져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형성됨으로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상 기기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심각성 혹은 위험성을 지적한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화려하게 채색된 아름다운 자태의 양귀비 꽃과 그 꽃 수술 부분에는 물감으로 채색된 전자 부품과 전선 줄등 이렇게 상반되고 어울리지 않는 재료들을 절묘하게 혼합



시켜 또 하나의 새로운 21세기형 중독, 인터넷 양귀비를 만들어 낸다. 김 작가는 모교 미대를 졸업한 뒤 9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을 중심으로 꾸준히 작업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서 그의 다양하지만 주관성에는 흔들림이 없는 작품들을 만나 왔으며 이번이 첼시에서 여는 첫 개인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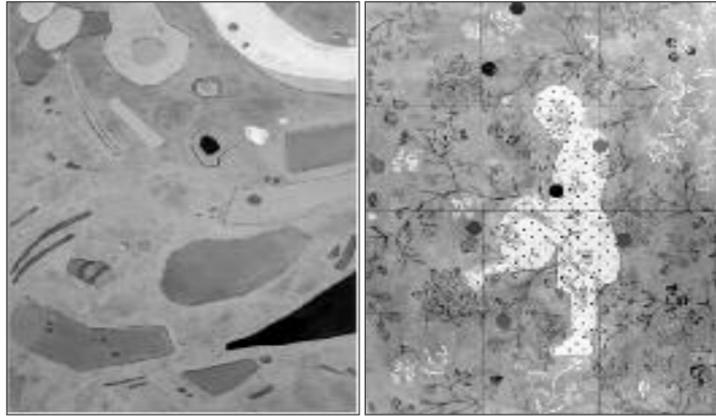
이탈리아 국제피아노 대상 받은 박초현(음대 94)동문

### 11년 콘서트의 꿈 '카네기홀 공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박초현(음대 94) 동문이 인고의 노력 끝에 뉴욕 맨하탄의 카네기 웨일홀 무대에 선다. 박 동문은 지난 여름 39세로 이탈리아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세 자녀를 키우며 11년 동안 콘서트 데뷔의 꿈을 키워 왔던 박 동문은 지난 7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라구사 이블라에서 개최된 제33회 바르토크 카발레브스키 프로코피에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 콩쿠르는 헝가리 작곡가 벨라 바르토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981년 창설, 신진 피아니스트들의 등용문 구실을 해왔으며 이후 러시아 작곡가 드미트리 카발레브스키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를 함께 기념하는 대회로 성장했다. 박 동문은 1998년 미국 이주 후 텍사스 주립대 음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박사과정이 끝난 후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인 성리씨와 결혼했고 샌디에고로 생활터전을 옮겼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콘서트의 꿈



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 해부터 조지 켈츠 교수의 사사로 하루 10시간씩 연습했고 이번 대회에서 독창적 곡 해석과 뛰어난 연주로 대상을 차지하게 된 것. 대회기간 이탈리아에서 크리스 오네 콘서트홀, 폴라 광장 등에서 진행된 8회의 연주를 무리 없이 소화해 냈던 그녀는 지난 8월 IBLA 재단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우승을 통보를 받았다. 이번 우승으로 박 동문은 2015년 카네기 웨일홀을 비롯해 미국 각지에서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다.\*\*\*



신정연(미대 61) & 현혜명(미대 61) 동문

### 갤러리 웨스턴 6주년 기획전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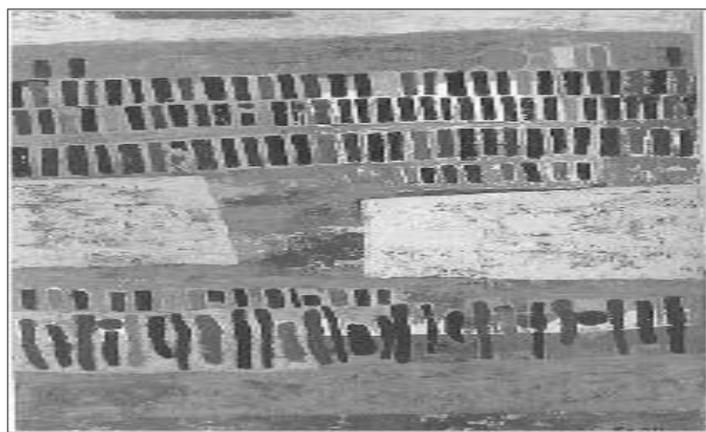
캘리포니아의 갤러리 웨스턴(관장 이정희)이 개관 6주년을 맞아 중견작가 4인의 작품기획전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했다. 신정연(미대 61), 현혜명(미대 61) 동문을 비롯해 김휘부, 김희

옥 화가의 작품전이다. 이들은 한인 미술계 뿐 아니라 주류화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중진들이다. 현혜명·신정연 작가는 모교 미대 동창생으로 네 사람은 모두 오랜 세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

일상에서 친근하게 만나는 풍경과 사물, 가족 등이 등장하며 80세를 넘긴 작가의 삶과 자연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나 동문은 "8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림을 통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동안의 삶이 컬러와 형태로 마음 속에 떠오르고, 캔버스에 그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교 사대 영문과 출신의 나 동문은 1971년 도미, 뉴욕에서 30여년간 생활하다 2004년 은퇴하며 워싱턴으로 이주했다. 지난 2010년 베다니 시니어 센터 서양화반에서 그림에 입문했다.\*\*\*

←왼쪽이 신정연 동문의 작품 '오딧세이', 오른쪽이 현혜명 동문의 '내 마음 속의 정원'

며 각자 독특한 미술세계를 발전시키며 작업해온 작가들로, 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늘 새로운 작품을 선보여왔다. 네 사람은 또 오랜 화우들로서 때때로 만나 점심도 먹고 그림 얘기들을 나누며 교체한 지가 여러 해 되었다고 한다. 신정연 작가는 창조의 신비와 자연의 흐름, 미지의 세계를 소박하고 단순한 회화적 느낌으로 표현한 '오딧세이'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혜명 작가는 그가 평생 벗하며 화폭에 담은 자연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집어넣은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이다. 어린아이처럼 자연에서 놀며 즐거워하는 소녀가 들어있는 '내 마음 속의 정원(Garden In Me)' 시리즈다. Gallery Western 210 N. Western Ave. LA, CA 90004 (323)962-0008 \*\*\*



강창환(법대 68) 동문 LA의 FT 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

### '자연 삶의 본질 화폭에 담다'

최근 LA의 8가에 새로 오픈한 FT 갤러리(대표 이영수)가 개관 전으로 강창환(법대 68) 동문의 초대전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11일 오픈, 25일까지 계속된 이번 전시회에서 강창환 동문은 '자연과 삶의 본질'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였다.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독일로 유학, 함부르크 대학에서 헌법과 공법 연구를 한 독특한 이력의 작가인 강창환 동문은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체험을 모두

화폭에 담아 작품 역시 매우 다채롭다. 하지만 그의 꿈은 심플하다. '자연과 인간 본연의 모습', '변질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삶의 가치'를 그리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며 기대다. "전통적인 유화의 미감을 버리고 싶지 않아 오늘도 캔버스 앞에 앉곤 합니다. 우리가 나서자라고 죽는 이 땅을 품고 사랑하고 그 향기를 맡으며 그 땅에 감사 전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그림은 흙의 향기와 냄새가 묻어나서 황토 같다는 말을 듣기

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변하며 인간을 꿈쩍 달작하지 못하게 움아내는 기술 문명의 해독 속에서 이제 헤어 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 현실이 안타까워 땅에 대해 미안한 마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의도에 맞게 그의 그림은 순박하면서 해학적이고, 순수하면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 2011년 Ls 갤러리, 2012년 럭키 갤러리, 2013년 소파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4년 다이소나 갤러리 그룹전에 참여한 강창환 화백은 지난 5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 서울 시립 경희궁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라디오 코리아에서 뉴스 앵커를 지낸 바 있는 강창환 동문은 "작품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열을 북돋아주기 위해 사심없이 갤러리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이영수 갤러리 대표의 마음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품을 준비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모든 이들을 전시회에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FT갤러리는 3440 W. 8th St. LA에 위치하고 있으면 문의는 전화 (818)331-9098이다. \*\*\*

←강창환 동문의 작품



**휴스턴 동창회**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가을 음악회**

텍사스의 휴스턴 동창회(회장 이호성 공대 72)가 지난 10월 11일(토) 휴스턴 한인 중앙장로교회에서 '2014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이 음악회에는 다섯 명의 동문 성악가와 동문의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자, 그리고 합창단과 170여 명의 관객이 함께 하는 가을 밤의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이었다.

지난 해와 달리 올해에는 특히, 음악회장 입구에 마련된 특별 공간에 동문과 가족들의 그림과 사진 조형물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이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과 중간 휴식시간에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라성신씨가 음악감독을 맡아 소프라노 박성애, 테너 유병진, 바리톤 김정규, 피아니스트 김연희, 정민옥씨 등과 함께, 오페라, 전통민요, 한국의 가곡 등을 관객들에게 선사하였다.

바이올리니스트 장병지씨는 피아니스트 레이첼 차오씨와 호흡을 맞춰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을 들려주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주희채 지휘자와 김예자 단장이 이끄는 이니스프리 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었다.

소프라노 정찬이씨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성악가들의 오페라 듀엣곡, 한국의 민요와 가곡, 다시 오페라 아리아로 이어졌으며, 특히 소프라노 라성신씨의 새타령에는 특별 출연으로 송주언씨가 부채춤, 이연희씨가 장고를 맡아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보여 주었다.

중간 휴식에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2중주, 그리고 합창단의 연주에 이어 성악가와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하는 한국의 노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부 마지막 순서에는 네명의 성악가가 모두 함께 자진 방아 타령을 힘차게 불러주었다.

앵콜 곡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인 벨라 판타지아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2시간여의 아름다운 가을 밤을 장식하는 음악회를 모두 마쳤다.

동문과 가족 미술 작품 전시회에는 임광국(문리대 64) 동문의 그림, 문혜련(미대 73) 동문의 아들 Mathias Kang씨의 사진, 이재정(미대 73) 동문의 조형물 등이 전시되었다.

또한 최인섭(공대 75) 동문의 큰딸 지연씨의 조소 작품과 막내딸 지인 양의 그림, 김정환(공대 80) 동문의 부인 김성혜씨의 그림, 그리고 필자(김건호·공대 91)의 아들 수빈의 그림 등이 전시되었다.

더불어 유유미 동문이 제공한 화가 이종옥씨의 그림 2점도 함께 전시되었다.

임원진과 더불어 이날 여러 동

↓교회 중앙 홀에 마련된 동문과 가족 미술 전시물. 화가 이종옥씨의 그림과, 와이어로 제작된 이재정 동문의 작품이 보인다.



↑윗 사진은 음악회가 모두 끝난후 이호성(맨 왼쪽) 동창회장이 출연진과 함께 기념 촬영. 아랫사진은 왼쪽부터 소프라노 라성신씨, 소프라노 정찬이씨, 소프라노 박성애씨, 바리톤 김정규씨, 테너 유병진씨

문들이 음악회 행사를 위해 봉사 해주었다.

김대현(공대 95)·장현철(공대 95)·엄태성(공대 99)·이용석(공대 04) 동문들이 자원 봉사자로 크게 수고해 주셨다.

또한 유유미 동문(약대 62)께서는 이날 행사 뒤 봉사료 수고해 준 동문들을 위해 뒷풀이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김예자님께서 뒷풀이를 위한 음식마련에 수고해 주셨다.

그밖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 = 김건호(공대 91)총무국장  
사진 = 김대현(공대 95) 동문>

↓음악회가 열린 교회 예배 홀. 관객과 출연자가 모두 함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부르며 이날 음악회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뉴욕 동창회

### Blue Hill G.C.에서 추계 골프대회

뉴욕 동창회(회장 박승용·의대 65)가 지난 10월 1일 '2014 추계 골프대회를 뉴욕 근교 Blue Hill Golf Course 에서 개최했다. 40여 명의 동문과 가족(배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날 오전의 날씨에 간간히 가을을 재촉하는 이슬비가 내려서 조금 쌀쌀하였지만, 오히려 운치있는 분위기가 되어 시원하고 쾌적한 자연 속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메달리스트는 77타를 기록한 방수철(공대 73) 동문이 차지하였고, 남자 1등은 한경수(문리대 57), 남자 2등 이대영(문리대 64), 여자 1등 Mrs. 조달훈, 여자 2등 Mrs. 김치갑님 등이 입상했다. 톱기스트엔 장영식(법대 59), 이규용 기념 근접상은 최병

우(공대 67)동문이 차지했으며 팀 상은 이능석(의대), 이명희(의대), 윤영섭(의대), 김치갑(의대) 동문 팀이 차지했다. 박선섭(공대 61) 동문은 고급 반지를 부상으로 기증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디너와 시상식은 골프장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State Line Restaurant 에서 열렸다. 참석한 동문 규모에 알맞은 High Ceiling의 독립된 장소에서 식사와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2014년 송년회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행사를 마무리 했다. \*\*\* <글·사진 = 김원영(미대 81) 미주 동창회 웹마스터>



뉴욕 골든클럽

### Sheepshead에서 바다낚시 대회

뉴욕 골든클럽(회장 이준행·공대 48) 회원들이 지난 9월 3일, 연중 행사 가운데 하나인 바다 낚시 대회를 가졌다.

모두 13명의 회원과 게스트가 참가한 가운데 참가 회원들은 부르클린 남쪽 Sheepshead Bay를 다녀왔다.

이날 9월 초순의 날씨에 걸맞게 따뜻하고, 바람도 잔잔하여 바다 낚시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아침녘에는 별로 입질이 없어 참가 회원들이 다소 한가하였으나, 오전 10시가 지나자 최철용 낚시 위원장이 드디어 대어를 낚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광어(fluke)와 농어(sea bass)들이 낚싯대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선상에서 즐기는 싱싱한 광어 회도 좋았으나 농어회가 좀 더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상대로 최철용 회원이 대어를 차지하여 부상으로 고급 전기밥솥을 받았다. 오후 3시경 Pier로 돌아온 후, 이날 잡은 고기 fillet를 한 봉지씩 나누고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의 참가 회원 및 가족은 손경택·손영철·송성문·송학린·이대영·이진구·이준행·이수호/정행화, 정인식·최철용·한경수·홍종만 동문 등이다.\*\*\*

<글·사진 = 김원영(미대 81) 미주 동창회 웹마스터>

←뉴욕 골든클럽 회원들이 바다 낚시를 위해 배를 타기 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남가주 공대 동창회

‘작가의 집’서 ‘원로 선배의 밤’

남가주 공대 동창회(회장 김영도·기계공학 67)가 지난 10월 9일(목) LA ‘작가의 집(대표 김병연·응용수학 68)’에서 제4회 원로 선배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7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민(공업화학 77) 남가주 공대 동창회 전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건축 기반이 잘 다져지듯 공대 특유의 위계질서가 가득한 우렁찬 음성으로 무게감이 느껴졌다.

김영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입학이 50년 되는 64학년 이전 선배님들 모시고 오랜만에 동문들을 만나보고, 소음악회 향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과 건강 세미나를 들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인생을 즐기면서 부담없이 추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가졌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앞으로 남은 남가주 동창회 행사 및 공대 연말 송년 모임에도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모교 Homecoming Day참석차 불참한 남가주 동창회 이서희(법대 70) 회장을 대신한 남가주 동창회 김창신(문리대 75) 총무국장은 “그동안 행사 때마다 많은 참석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가주 총동창회 창설 40주년을 즈음한 기념행사를 Queen Mary의 낭만적인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처럼 멋진 추억이 될 행사에 많은 동문과 가족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했다.

동문 개인 소개시간에서는 위종민(자원 64)동문과 옥윤태(화공 64)동문이 40년만에 만나는 애틋한 우정의 장이 돼 주



변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개개인 소개와 발언 중 어느 한 동문이 “동창회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나와라’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것이 협조의 지름길이다” 라는 발언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행사를 위해 홍광식 동문이 1천 달러, 김병연 동문 200 달러, 김영도 회장이 200 달러를 기증했으며 김인중(농대 74)서울대 미주 사무소 사무국장은 ‘서울대 미주 사람들’ 책자와 지갑용 돌보기를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했다.

작은 음악회 1부는 이지연(USC 음대 박사과정) 양의 Violin 과 박정현(USC 음대 박사) 양의 Piano 연주로 첫번째 곡 E. Elgar: Salut d' Amour(엘가의 사랑의 인사)는 고결한 사랑의 멜로디로 참석자 모두의 마음을 황홀케 했다.

두번째 연주곡 J. Williams: Theme from ‘Schindler’s List’ 존 윌리엄스의 영화 ‘권들러 리스트’ 테마곡은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로 마음 깊숙히 저며들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 7개 부문에서 수상한 대표적 음악이다.



↑공대 원로 선배의 밤 행사에서 합창단원들이 백정현(음대 66 오른쪽)동문 지휘에 따라 합창하고 있다. ←남가주 공대 동창회 김영도(기계 67) 회장이 ‘원로 선배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번째 연주곡 Paganini: Caprice no.15 는 고난도의 개성있는 연주기량으로 환상의 무대를 만들었다.

김경세 박사(의대 60)의 건강 세미나가 원로 선배의 밤에 걸맞게 강연되었다.

Brain에 대한 기억력이나 치매에 대한 강연으로 강연 후 질의 응답이 있었다.

홍선례(음대 70) 음대 전 회장은 화요일마다 모이는 영화감상 동우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작은 음악회 제2부 순서에서는 남가주 합창 동우회 16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백정현(음대 66) 동문의 지휘로 첫번째

곡 Come in from the Firefly Darkness by Amy F. Bernon 을 원곡으로 불렀는데 ‘친구야 문 열고 나를 들어오게 하라’ 로 시작되는 가사는 모임과 어울리는 감상적인 내용이었다.

두번째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의 윤소희 편곡으로 가사와 곡이 너무 좋았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것은 없을꺼야, 시월에 어느 멋진 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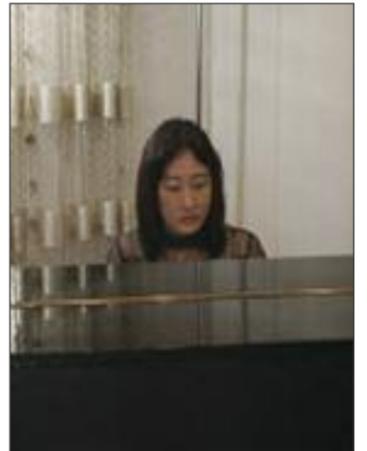
음악의 잔잔함이 메아리되어 가슴에 안은채 다음에 만남을 기약하며 애착있는 행사를 마

쳤다. 이날 참석한 공대 원로 선배들과 참석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 이중희(섬유 52)·이해영(전기 56)·정동구(기계 57)·김영규(건축 58)·한효동(건축 58)·김동근(전기 60)·홍광식(조항 62)·고윤석(화공 62)·남중우(전기 62)·옥윤태(화공 64)·위종민(자원 64)·이호주(전기 64)·김영도(기계 67)·김병연(응수 68)·김경무(응수 69)·양민(공업화학 77)·김용상(항공 79)·박찬민(기계 81) 동문 등이다. \*\*\*

<글 = 백옥자(음대 71) 사진 = 박찬민(기계 81)>

↓사진 왼쪽부터, 김경세(의대 60) 박사가 노년기 건강생활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작은 음악회 1부에서 이지연(USC 음대 박사과정) 양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박정현(USC 음대 박사) 동문이 이지연 양의 바이올린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 중이다.





**남가주 농생대 동창회**

**Clark Regional Park에서 야유회**

남가주 농생대 동문회(회장 정병혁 농공학 70) 정기 야유회가 지난 10월 18일(토) Buena Park 소재 Clark Regional Park에서 60여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년 10월 열리는 야유회지만 금년에는 서울의 농생대 동창회장(농화학 60)도 참석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처음 참석하는 동문도 있고 10여년 만에 돌아온 동문들도 있어 평소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가함으로써 시종 반가움 속에 활기를 띠었다.  
12시부터 시작한 모임에서 푸짐

한 음식과 마실거리를 즐기며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누었으며 장기투병 끝에 건강을 되찾은 동문들, 회수를 맞아 책을 발간한 동문 등의 동문 동정, 총동창회 소식, 본교 소식 등을 전하며 본교의 발전을 위한 장학 사업 등도 협의하였다.  
옛 추억에 얽힌 대화와 본교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 대한 질의응답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당초 준비한 Quiz game, 제기차기 및, Badminton을 생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서인 Line Dance는 인기가 좋아 인



↑ 남가주 농생대 동문들이 Clark Regional Park에서 열린 야유회에서 Line Dance를 즐기고 있다.

근 타민족들도 동참할 정도로 열기를 띄었다.  
주최측이 준비한 기념 타올과

서울의 동창회장이 직접 가져온 서울대 Logo가 독특하게 새겨진 동창회 모자를 나누고, 농생대의

대학가인 '상록의 아들'을 제창한 후 아쉬움 속에 야유회를 마쳤다.\*\*\*



**남가주 미대 동창회**

**lee & lee Gallery에서 동문전**

남가주 미대 동창회(회장 그레이스 임)가 지난 10월 11일(토)

LA의 Lee & Lee Gallery에서 제12회 동문전을 개최했다.

↑ 남가주 미대 동창회 제12회 동문전에 출품한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모두 28명의 동문들이 출품한 작품이 전시된 가운데 lee & lee gallery에서 열린 이 정기 동문전의 Opening Reception에는 많은 동문들과 친지,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풍성한 친구

의 시간을 함께 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그레이스 임 남가주 미대 동문회장은 "서울대 미대 남가주 동

문회에 속해 있는 많은 작가들은 현재 미 주류화단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전시회와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례 동문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현대미술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레이스 임 회장은 이어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8명의 독특하고 다양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함으로써 더욱 원숙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됐다"고 말했다.

개막식이 거행된 11일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이서희·법대 70)에서는 동문전 축하 화분을 보내주었고 남가주 동창회 김상찬(문리대 66) 전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김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 법대 동문회 최희경 회장, 조무상(법대 70) 총무 등이 왕림해 미대 동문전을 축하 해주었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11일 개막돼 24일(금)까지 계속됐는데 동문전에 출품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장정용·장원경·최열자·정동현·한석란·현혜명·김혜숙·김화자·김구자·김경애·김옥경·김순진·김윤진·백혜란·박다애·박영국·박영구·신동인·배윤숙·심영자·신정연·손남수·송경자·오성주·임 그레이스·최열자·윤태자·홍선애. \*\*\*

<글·사진 = 홍선애(미대 62) 남가주 미대 동창회 전 회장>



MD·VA·DC 농대 동창회

### 정원자 동문 신입 회장 선출

지난 10월 11일(토) 버지니아 애난테일의 한식당에서 MD·VA·DC 지역 거주 농대 동문 모임이 있었다. 올해는 현재 모교 농대 동창회장 이현수 박사(식공 62)께서 미주지역 농대 동문회를 순회 방문하는 계기를 미리 알려주셔서, 이를 계기로 DC 근처 동문들이 함께 자리를 갖게 되었다. 삼양제넥스 부사장과 셀트리온 신규 사업부분 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장학재단 운영과 우간다에서의 사업 및 선교활동에 헌신하시는 이현수 동창회장께서 동창회의 목적과 현 조직, 연혁 및 활동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1월 졸업 50주년이 되는 학년이 주관해 동창회 임원과 모교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 해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5월 상록의 날 행사는 농생대 동창회 정

기총회도 겸한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로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과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시상식이 있다. 동창회보는 1·5·9월 연 3회 발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커버 스토리', '칼럼', '만나뵈고 싶었습니다', '모교 증진교수를 찾아서', '동문 탐방' 등이다. 재능기부의 일환인 보람심기 사업이 진행 중이고, 동문활동 현장탐방 연 1회, 대회협력 활동으로 한국 최초의 국제 농업 NGO인 Good Farmers가 2013년 11월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상록문화재단은 한국 농업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학술지원 및 포상,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발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까지 학기마다 60명 이상에게 1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 설립 후 총 343명에



↑MD·VA·DC 지역에서 지난 10월 11일 새로 농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정원자(농가정 62) 회장(왼쪽 사진). 모교 농대 이현수(식공 62) 동창회장이 동창회 조직과 연혁, 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게 6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법인 서현도 제2의 상록문화재단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해외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업데이트하고 회원 동정 및 기사를 찾으며 지역회원 모국 방문시 동창회를 방문토록 격려하고 있다.

모국 동창회의 소식을 이처럼 자세하게 전해들었고, 슬라이드를 통해 예전 캠퍼스를 보면서 과거 학창시절 추억에 많은 감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60학번대 선배부터 90년대 말 학번 동문들까지 한 자리에서 처음 뵈는 동문도 많았지만 학창시절 농대의 끈끈한 정 때문인지 쉽게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모임에는 정원자(농가정 62)·이규복(농공 62)·안선미(농가정 65)·박평일(농경제 69)·김선희(원예 78)·이경상(농화학 80)·김남철(농화학 85)·이우진(농화학 86)·한정민(농가정 87)·필자(강정구·원예 90)·김선태(식공 92)·배희경(식공 94)·한태운(식공 97)·이상미(식공 98)·이형주(식공 석92) 동문 등 15명이 함께 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지속적인 모임을 위해 새로 회장단을 구성했는데 정원자 동문이 회장직을 수락하셨고, 필자가 총무직을 맡기로 하였다.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정원자 회장 댁에서 연말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곧바로 이병평(임학 62)·이혜승(원예 89)·정연희(농가정 90) 동문이 연락해주어 계속적인 새로운 동문의 참석이 기대되고 있다. 이현수 회장께서 준비해주신 서울대 로고의 모자와 또다른 선물도 받고 4시간 여의 짧은 만남을 아쉬움으로 남긴 채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동창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며, 지속적인 모임 가운데 이전에 받은 배움에 대한 감사함을 후진들에게도 물려주는 전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워싱턴 DC 동창회**

### 공 고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태 사대 75)는 2014년 9월13일 이사회에서 2014년 12월 30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결정한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건 1호(회칙개정)** =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과 임기.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개정안>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건 2호(회칙개정)**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 W. Virginia 주 거주 동창으로 한다. 다만 인접 주에 거주하는 동창은 회원 가입을 희망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각 대학 또는 대학원을 정규입학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개정안> 본 회 회원의 자격은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 West Virginia 주에 거주하는 동창으로 한다(이하 같음).

▶**안건 3 호(경조비 지출예규)**  
워싱턴 지역 서울대 동창회 경조비 지출 예규.  
제1조 = 본 예규는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함) 경조비 지출 예규'라 칭한다.  
제2조 = 본 예규는 동창회 회원들의 경조사에 즈음하여 동창회원들의 뜻을 전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경사'라 함은 동문들에게 결혼, 학위 취득, 저서출판 등의 경사스런 일이 생겼을 때며 '조사'라 함은 동문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사에는 배우자의 학위 취득, 저서 출판 등을 포함한다.  
제4조 = 동창회 경조사 수혜대상은 워싱턴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원이다.  
제5조 = 동창회 회장단은 동창회 명의로 동창 경조사 때 그 행



사장에 워싱턴 지역 서울대 동창회 경사 깃발(SNUAA-DC Congratulation Flag), 혹은 조사 깃발(SNUAA-DC Condolences Flag)을 비치하여 동창회원들의 경조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사진>

제6조 = 본 예규는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정되며, 개정시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 개정할 수 있다.  
제7조 = 본 예규에 따른 업무기록과 재정서류는 매년 동창회 감



사를 받는다.  
제8조 = US Federal Government IRS Audit에 대비하기 위해 이 예규를 영문 번역해 사용한다. 모든 재정 서류와 회의록은 한글과 영문을 병기토록 하고 만약의 IRS Audit을 위해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9조 = 본 예규는 동창회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예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창회 회칙과 관례에 따른다.\*\*\* <장경태 동창회장>

<글·사진 = 강정구(원예 90)총무>



뉴잉글랜드 동창회  
**North Bridge 야유회 및 음악회**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음대 76)가 지난 10월 11일 Concord에 있는 유서깊은 North Bridge에서 가을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이보다 앞선 9월 27일과 10월 5일에는 '화음 보스턴 챔버' 주최로 각각 동문 음악회를 개최했다.

▶가을비 우산 속 North Bridge 야유회 = 지난 10월 11일 가을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음에도 열렬히 모인 동문과 가족들이 단풍이 곱게 드는 아름다운 주위 경관과 가을비 우산 속 산책이 주는 즐거움에 같이 젖어든 운치있는 소풍이었다.

김문소 동문(수의대 61)은 "이 지역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미국 독립에 중요한 역사적인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 날 처음 찾은 North Bridge에서 새로운 미국의 역사 공부도 하게 되었다"고 즐거워했다.

동문과 가족들은 이 지역 산책 후 Acton Clubhouse로 옮겨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며 뒷풀이를 가졌다.

3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함께 한 이날, 선배들의 덕담과 후배들의 진솔한 대화가 따뜻하고 정겹게 이어졌다.

뒷풀이에 함께 참석한 사대 55학번 김인수·이춘순 동문은 7명의 서울대 동문을 자녀로 둔 101세 어머니의 정정하신 모습과 덕담으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모임의 최고 선배인 문리대 50학번 모정자 동문은 "은퇴 전 교수로 봉직하였던 Brown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해서 지금 매우 기쁘고 흥분되어 있다"고 말해 후배들로부터 존경의 박수를 받았다.

공대 58학번인 김정일 동문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 '성공'이란 단지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공을 이루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풀이로 큰 관심을 끌었다.

동문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MIT에 있는 젊은 동문들은 "본인 자신 뿐만 아니라 함께 온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모임 참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자녀들도 본인의 장래 소망과 포부를 부모의 동문들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위 사진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North Bridge 산책 후 뒷풀이로 모인 동문들의 모습, 아랫 사진은 이날 행사에 모인 동문들 전체가 자리에 함께 한 모습이다.

이 지역에 온지 이제 50일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동문은 지난 번 가을바다 여행(동창회보 10월호 18면 참조)에 이어 주위의 좋은 곳을 소개해준 장수인 회장과 동문회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고, 오늘 무료 행사에 감사해 하며 기부금을 쾌척한 동문도 있어 아름다운 동문들과의 만남의 시간에 의미를 더했다.

▶환상의 가을 음악회 = 화음 보스턴 챔버(대표 장수인·음대 76)의 가을 음악회가 9월 27일과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열려 보스턴의 아름다운 가을이 돌아왔음을 알려주었다.

지난 9월 27일 하버드 스퀘어의 First Church in Cambridge 에서

열린 2014 ~ 2015 season 첫 연주회는 아름다운 연주 장소는 물론 이겨니와 멋지게 어우러진 보스턴 지역 young 한인 음악가들의 환상적 연주로 관객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았다.

귀에 익은 모짜르트의 Divermento를 시작으로 차이코프스키, Janacek, 쉐베르그 곡이 연주될 때 아름다운 선율과 생생한 화음이 실내에 꽂 찬 듯, 눈에 보이는 듯 관객을 매료시켰으며 Respighi의 화려한 색채의 무곡들로 아름다운 가을음악회의 막을 내렸다.

양콜 곡으로 비틀즈의 Yesterday 곡이 연주될 때에는 그 새로움과 친숙함에 관객들의 박수가 그칠

줄 몰랐다.

장수인 대표는 "박진욱 지휘자의 열정과 단원들의 출중한 실력이 돋보인 연주회였다"고 전하며, "특히 새 연주 장소가 하버드 스퀘어였고 학생 무료 입장이었던 만큼 학생 관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고 전하였다.

관객 중 미국 학생 Kristen(Harvard)은 "챔버 뮤직의 아름다움이 vivid하게 전달된 훌륭한 연주였다"고 감동을 전했다.

10월 5일 RI의 Brown 대학에서 열린 250주년 기념 음악회(주최 Brown KGS)에선 1회 RI 한인회 장학금 모금도 함께 이뤄져 의미 있는 음악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보스턴 연주는 이재신(공대 57) 동문 외 여러 동문들이 후원해주었고 브라운 공연은 정정욱(의대 60)·이길자 동문이 후원해주었다.

단원 중 박기나(음대 03)·고은애(음대 02)·이영숙(음대 01)·최혜민(음대 01)·정현지(음대 03) 동문이 악장, 수석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필자(이재형·공 91)가 행정기획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월 13일에는 연말 파티와 함께 동문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다.\*\*\*

◀글·사진 = 이재형(공대 91) 동창회 기획국장

←왼쪽 사진은 지난 10월 5일에 있었던 브라운 공연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9월 27일에 열린 보스턴 공연 장면이다.





관악세대/Acro광장

## ‘결’은 없애고 ‘편’만 만들어

**이원영(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지인의 권유를 받고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 있는 미국교회를 찾았다. 설교 시간에 ‘종교와 과학의 대화’란 토픽이 있어 흥미로울 것 같으니 함께 들어보자는 제의였다.

건물은 지은 지 130년이나 돼 고풍스러웠다. 높은 천장, 목직판 파이프 오르간 선율이 경건함을 더했다. 중·노년층 백인 신도들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교회에서 ‘종교와 과학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는 게 신기했다.

목사는 설교 대신 루시 존스라는 지질학자와 단상에 앉아 ‘창조’와 ‘우주 빅뱅’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박사가 주로 얘기를 했고, 목사는 “흥미롭다(interesting)”라는 반응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다. 신도들도 전혀 지루한 표정 없이 이색적인 대화를 즐겼다.

40여 분간의 대화가 끝난 뒤 목사는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고 넓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주제가 차분하게 대화하며 교집합을 넓혀가는 모습에서 나는 ‘성장’을 읽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단속사회’라는 책에서 “만남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장이란 관계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관계의 확장이란 ‘남’이 ‘너’가 되는 과정이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라는 관계의 끊임없는 확장이 곧 성장이란 설명이다.

엄기호는 스스로 안으로 쫓겨 들어오려는 ‘단속(團束)’과, 관계를 끊었다 뺏었다를 반복하는 ‘단속(斷續)’이라는 두가지 뜻을 담아 한국사회를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오프라인에서는 끊임없이 관계를 차단하면서, 온라인에서는 과도하게 접속한다. ‘결’은 없애면서 ‘편’은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

만남을 통해 남을 너로 만들어 ‘우리’라는 공동체를 함께 형성하는 시스템은 고장났다. 그런 한국사회를 ‘사회가 아닌 사회’, ‘성장이 정지된 사회’라고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을 지겨워하게 되었고, 말하는 입이나 듣는 귀나 모두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번역해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한국이나 미주 한인사회에 눈을 돌려 보면 ‘단속사회’가 이미 우리 생활과 의식의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실감한다.

함께 어깨동무 하며 나아갈 결의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외로움은 깊어가고, 그 보상은 온라인의 ‘과도한 접속’으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버 세상에서도 남이 너가 되고 우리로 ‘성장’하는 모습보다는 ‘편’에 고립되고 ‘편’을 나누고 확장하는, 성장의 종말 그림자만 어른거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층·다면적 갈등구조가 왜 ‘사회 아닌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으며, 그 속의 사람들이 왜 점점 힘들고 외로워지는지 알 것 같다.

그렇다면 ‘편’을 강요하여 끄적한 악몽의 사회가 되어버린 현실을 어찌 극복할 것인가.

엄기호는 “결에 있는 이의 ‘말’이 되지 못한 말”을 ‘말로 들릴 때까지’ 끊임없이 묻고 들어줄 때 파괴된 ‘결’이 회복될 수 있다”고 썼다.

자식과 부모, 아내와 남편, 고용주와 종업원, 국가와 국민, 남한과 북한..., 결에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이 되지 못한 말’을 단숨에 걷어차버림으로써 스스로 ‘사회 아닌 사회’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종교와 과학이라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만남이 만나 서로에게 ‘말이 되지 못한 말’을 경청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의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았다.\*\*\*

## 10년 전의 나, 10년 후의 나

**신복례(인문대 83) CA**  
미주 중앙일보 사회부장

얼마 전 회사에서 외부강사 초청 강연이 있었다. 우리 신문처럼 소수계 언론이 40년 후에도 살아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거 소수민족 언론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며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였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강사는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10년 전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10년 후의 모습은 어떠할지, 그리고 40년 후 누가 자신이 쓴 기사를 기억해줄지 짧게 적어내도록 했다.

제출한 메모를 쪽 읽어본 강사는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총평을 하자면, 10년 전에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았고 행복감을 느꼈지만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40년 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전했다.

내가 쓴 메모도 비슷한 내용이였다. 10년 전 난 참 행복했었다. 미국 이민 초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덕분에 종교를 만났다. 한국의 법륜스님이 만든 정도회가 주관하는 4박5일 수련회가 LA에서 열렸는데 맡고 있던 분야가 종교라 취재 차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쓰며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는데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등불을 만난 양 당시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겨워했다.

수련회를 마치고 한 동안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흔들림없이 매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자신감도 ‘한가득’이었다. 물론 약발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게 딱 10년 전의 일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강사가 느닷없이 던진 ‘10년 후’란 단어에 꽂혀 하릴없이 동네를 거닐며 ‘10년 후’를 되뇌고 있었는데 법륜스님의 미국 방문 소식이 들려왔다.

10년 전 법륜스님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진보적인 스님이였다. 조계종 승적이 없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는 극구 조계종 스님이 아니라고 시비를 걸었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님이기보다는 환경, 통일, 세계빈민구제 활동에 힘을 쏟는 사회운동가로 더 대우를 받았다.

그때도 1년에 서너번씩 미국에 와서 강연을 하곤 했는데 LA와 뉴욕, 워싱턴 DC 정도가 다였다. 그런데 지금 법륜스님은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님이였다.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계를 통틀어 가장 존경

받는 인물 리스트에 올라있고 ‘힐링캠프’ 등 방송 출연을 통해 세대를 초월한 국민 멘토로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특히나 놀라웠다. 115일 동안 세계 111개 도시를 돌며 매일 한 차례 씩 115회 강연을 하는 일정이었다. 지난 8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9월23일 아일랜드 더블린까지 유럽 16개국 29개 도시를 돌며 20회 강연을 마쳤고 9월24일부터는 북미주 강연을 시작했다. 보스턴과 뉴욕, 캐나다 몬트리올 등 동부에서 시작해 플로리다, 텍사스, 일리노이, 유타를 거쳐 11월 11일 남가주 일정이다. 북미주 전역의 강연이 무려 58회다. 뉴욕, LA, 휴스턴, 샌호세, 엔아버 등 지역에 따라서는 따로 외국인만을 위한 강연도 마련했다.

거의 매일 1개 도시, 1차례 강연이라는 강행군을 하면서 스님이 전세계 한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어떤 질문이 됐든 청중이 물으면 스님이 명쾌하게 답변해주는 즉문즉설 강연의 제목은 ‘희망세상 만들기’다.

10년 후, 똑같은 질문을 갖고 다시 스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나 뵈야겠다. 잊고 살았던 희망과 행복했던 마음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 약발 역시 오래가는 양이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또 다른 10년을 새롭게 내디딜 수 있는 첫발은 되지 않을까.\*\*\*

## 남겨진 이의 상실과 애도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20년을 알고 지낸 지인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1년 반 전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 대신 ‘quality of life’를 택한 후 가족들과 여행하며 추억을 만들고 매일의 일상을 겸허하게 살아내신 분이 이제 침대에 누워 남겨질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계셨다.

얕을 기운조차 없어 누워서 방문자를 맞으시는 모습이 어쩌나 답답하고 맑은지 몇 년 전 읽었던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의 주인공 모리 교수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나 여객기 사고처럼 ‘어느날 갑자기’식의 상실은 더욱 힘들고 혼란스럽다. ‘살아 있는 동안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상실(bereavement) 앞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애도(grief)’라 한다. 즉 애도는 상실에 대한 정서적 고통 반응이다.

상실에 반응하는 애도의 방법과 표현은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 ‘마지막 강의’의 파우치 교수는 채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질 아내가 겪게 될 상실과 애도를 돕기 위해 함께 상담

을 받는다. 추도모임에서 떠난 사람과의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서양의 문화와는 달리 동양의 문화는 떠난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고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다.

상실 후 애도하는 기간이나 과정도 문화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변에 흐르는 공통의 과정이 있다. 이를 미리 알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슬픔에 압도된 우울감이나 자살충동 등의 심적 혼란과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인생수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는 애도 과정을 다섯 단계로 설명한다.

첫 단계는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 단계다. 충격과 함께 모든 감정이 마비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하루를 견디기 힘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둘째는 ‘분노’ 단계다. “어떻게 나에게..., 왜 나에게...”란 질문을 끝없이 던지며 ‘신’에게 분노하고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게 분노하며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 분노의 과정은 치유에 필요한 과정이다. 종교심이 깊은 이들 중에 ‘믿음이 깊으면 분노의 과정 없이 치유가 이뤄진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해결 과정 없이 온전한 치유는 힘들다.

다음은 ‘타협’과 협상의 단계다. “그 사람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더 착하게 살고 잘 할 텐데...” 등 일어날 수 없는 협상을 계속한다. 시간이 더 흐르면 자포자기 상태인 ‘우울’에 빠졌다가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람에 따라 위의 몇 과정이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거나 반복되기도 한다. 스스로 돌아보며 떠난 이와 상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 충분한 감정입, 공감,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 상담사를 찾거나 목사님, 신부님 같은 영적 멘토를 찾기를 권한다.

애도를 돕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마음에 떠오르는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솔직하게 써보는 애도일기나 떠난 이에게 쓰는 편지도 도움이 된다. 상실과 애도를 주제로 한 책이나 영화를 보며, 주인공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치유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좋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과 모임을 갖거나 기일에 그와 함께 한 일을 생각하며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의식(ritual)을 만드는 것도 좋다.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는 말처럼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분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상실의 상태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떠난 사람을 진심으로 떠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맑고 곱던 그 분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과 추억들을 회상하며 이제 그를 떠나보낼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관악세대/Acro광장

## 깡패들에 둘러싸인 법대 교수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인터넷 공간을 뜻하는 'cyber'는 원래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를 뜻하는 그리스 말인 'kyber'에서 왔다.

'통치자'를 뜻하는 'governor'도 어원을 따져보면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이란 뜻이다. 배를 몰고 지중해 전역을 누비며 장사를 해 먹고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장과 국가의 지도자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았던 모양이다.

훌륭한 선장의 자질은 뭘까. 선장은 물론 배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거기다 바다의 물살과 암초의 위치, 또 계절과 바람의 변화, 폭풍의 조짐에도 밝아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돛을 올리고 노를 젓고 지도를 보는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정말 뛰어난 선장이 되려면 바람이 이 정도로 일고 파도가 이 정도로 거셀 때 배를 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를 띄운 후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밀고 나갈 것인가를 결정할 판단력과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좋은 선장의 조건이 배와 자연,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이라면 국가를 이끌 지도자의 조건도 비슷하다. 선장이 배를 잘못 몰면 피해를 입는 것은 배와 선원, 선장 자신이지만 국가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간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것이 국가의 중대사인 것은 그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이다. 그가 이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양단에 관한 결정은 신중히 내려져야 하고 일단 내린 후에는 일관성 있게, 끈기 있게 추진되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오바마가 이와 관련해 1년 내내 두들겨 맞고 있다. 요즈음 그를

비판하는 사람은 공화당 의원도, 우파 보수 단체들도 아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밑에서 오바마를 보좌하던 부하들이다. 연초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그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여름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의 외교 정책을 흠잡고 나섰다.

그리고 최근에는 CIA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레온 파네타가 회고록에서 오바마는 '전쟁을 피하는 오락가락하는 지도자'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오바마는 "전투를 피하고 불평을 하느라 기회를 놓치곤 하며 상대방과 맞서 토론하기보다는 침묵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지를 모으지도 않는다."

그는 또 "오바마는 지도자의 열정보다 법대 교수의 논리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바마가 이라크에서 서둘러 철군하지 말고 온건과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라는 자신들의 충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전직 각료들이 이처럼 일제히 전 보스를 비난하는 책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중에서 가장 아픈 것은 파네타의 비판이다. 게이츠는 아들부시 시절 임명된 사람으로 공화당과 친분이 있고 힐러리는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후보로 인기가 바닥인 오바마와 거리 두기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부터 예산국장, 비서실장, 정보부장, 국방장관을 두루 거친 민주당의 원로인 파네타가 민주당과 오바마를 해칠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할리 없기 때문이다.

평화주의자인 오바마가 오랜 전쟁에 지친 미 국민을 이끌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란 중인 시리아와 무주공산인 이라크 일대를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킨 IS의 등장이다. 선장도 지도자도 때로는 지친 선원과 국민들을 독려해가며 험하지만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또 인사 이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바마는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깡패들에 둘러싸인 법대교수"라는 누군가의 평이 떠오른다.\*\*\*

### 건강의학 칼럼

## 갑상선 종양(Thyroid Tumor)과 갑상선 암(Thyroid Cancer) <2>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최근 고국의 가수 엄정화씨가 갑상선 암을 발견하여 수술로 치료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갑상선에 생기는 혹을 '갑상선 종양'이라 부른다. 즉, 모든 혹은 종양(Tumor)인데, 이것을 양성종양(Benign Tumor)과 악성종양(Malignant Tumor)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악성종양을 암(Cancer)이라 부르는 것이다.

요즘 갑상선 종양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것 중 모두가 암은 아니며, 많은 숫자가 양성종양이다. 그러나 반드시 악성종양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Case 1 = 6개월 전 32세 여자 환자가 목 앞쪽으로 3개월 전부터 혹같이 약간 튀어나왔는데, 이것이 암이 아닌지 알아보려고 찾아왔다.

만져도 전혀 아파하지 않았다. 초음파 검사로 목 부위를 조사해서 2.5cm 정도의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주 가는 바늘로 조직검사(Fine Needle Aspiration)를 한

결과 양성종양으로 판명되어,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로 Follow-Up을 권했다.

▶Case 2 = 1년 전 일이다. 55세 여성이었는데, 앞의 케이스와 똑 같이 2.5cm 정도의 갑상선 혹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이분의 갑상선 종양에 가는 바늘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갑상선 암으로 판명되었다. 그 중에서 유두상암(Papillary carcinoma type)이라 수술로 이 암 조직을 제거하여 완치시켰다.

이상에서 보듯이 갑상선 종양은 양성종양이나 악성종양 둘다 증세는 거의 없고 놀러도 아프지 않다. 갑상선 암은 한국 여성 암 가운데 4-5위를 차지한다. (갑상선 암의 80%는 여성에게서 발생한다.)

갑상선 암의 증세가 양성종양과 큰 차이는 없지만, 혹이 최근에 빨리 자라거나 아주 단단하고, 침을 삼킬 때도 위 아래로 잘 움직이지 않으면 암일 가능성이 높다.

갑상선 암인 경우 혈액검사 즉,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면 대

부분 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갑상선 암의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과거 목 부위에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든가 가족 중에 갑상선 암 환자가 있는 유전적인 요소다.

갑상선 혹이 만약 2-2.5cm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목 초음파와 가는 바늘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실시 한다. 일단 진단된 뒤에는 CT검사로 암의 주위 조직 침범이나 임파선 전이 여부를 조사한다.

갑상선 암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대부분 암은 분화도가 좋은 유두상 암과 여포상 암이 차지하며, 예후는 아주 좋다. 그 외 수질 암, 미분화 암이 있는데, 미분화 암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후가 아주 나빠서 대개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

치료는 수술로 갑상선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하며, 때로는 기관지 주위나 측경부 림프절의 절제를 동시에 하기도 한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여야 한다. 또 먹는 방사선 치료제인 방사능 동위원소 요오드 치료를 하기도 한다.

하여간 갑상선 암의 예후는 아주 좋은 편이므로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목 앞부분에서 갑상선 종양이 만져지면, 빨리 전문 내과의를 찾아가 검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스마트폰 없이는 못사는 세상

**노재원(인문대 82)CH**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한 토막이다. 숲 속에 살던 원숭이 앞에 어느 날 신발장수가 나타나 꽃신 한 켤레를 내놓았다.

'공짜'라는 말에 처음엔 의구심을 보이던 원숭이는 신발장수의 말재간에 넘어가 결국 꽃신을 받았다. 폭신평신했던 꽃신은 원숭이에게 그만이었다. 돌부리에 채어도 발이 아프지 않았고 나무를 탈 때도 편했다.

꽃신이 해질 즈음 다시 찾아온 신발장수는 이번엔 공짜가 아니라 도토리 몇 개를 요구했다.

원숭이는 "그 정도 썸이야" 하며 도토리를 주고 꽃신을 샀다. 몇 달 후 꽃신이 닳아 마음대로 걸지도 못하게 된 원숭이는 신발장수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이윽고 애가 타던 원숭이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발장수는 "새신을 갖고 싶으면 도토리 한 가마니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미 꽃신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원숭이는 신발장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원숭이는 신발장수의 노예 아닌 노예가 됐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차례로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 등을 선보였다. 화면은 넓어지고 카메라와 앱 등 각종 기능도 개선되고 확대됐지만 무게는 더 가벼워진 첨단 제품들이다.

얼마 전 2년 정도 사용하던 스

마트폰을 새로 교체한 처지여서 이들 제품의 성능과 가격 등에 눈길이 갔다. 화면 크기는 어떤지, 두께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카메라의 화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 스마트폰과 비교하며 하나 하나 살펴보게 됐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외에 특별히 사용하는 것도 없으면서 4년 전 '2년 계약, 스마트폰 무료'라는 유혹에 빠져 이제는 2년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신발장수의 갑인시설에 속아 어느 새 꽃신 없이 살 수 없는 원숭이 신세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처량함마저 든다.

"원래 스마트폰은 2년 정도 사용하면 조금씩 문제가 생겨 바꿔야 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2년 주기로 주요 제품을 출시하는 이들 업체와 2년 단위 계약을 하는 이동통신사의 영업 전략에 끌려다니는 꼴이다.

전원 스위치에만 문제가 있었을 뿐인 스마트폰을 수리하기보다 이 참에 바꾸자고 판단한 것이 그렇다. 새 것에 대한 욕망이나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누군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훗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의 몫을 낭용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휴대폰을 사용한 지 10여 년, 스마트폰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생활 필수품이 됐다.

지난 달 하순 타주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을 때 휴대폰은 거의 유일한 문제 해결 수단이었다. 토잉 업체는 물론 보험사, 자동차 수리업체, 호텔 예약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혹시 휴대폰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며 '신주단지' 처럼 모시고 다녔다.

사실 예전엔 휴대폰 없이도 큰 문제 없이 살았다. 불편은 했지만 일상이 마비되는 일은 없었다.

외려 더 많은 여유를 누렸던 것 같다. 친구나 연인을 기다리며 다방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던 일은 설렘이었다. 또 탁자 위에 성냥개비로 탑을 쌓거나 책장을 넘기던 시간은 덤으로 누리는 느긋함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친구가 "길이 막혀서..." 또는 "약속시간을 잘못 알아서..."라며 숨가쁜 목소리로 말할 땐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반가웠다. 공중전화 부스에 줄을 서서 앞 사람의 대화를 흘러듣거나 유추하는 것은 색다른 재미였다.

첨단기업들이 다투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때, 불현듯 자본과 물질의 노예가 돼 소중한 그 무엇을 너무 쉽게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불어오는 바람이 슬슬하다. \*\*\*



## 영화 이야기

## 'The Descendants' (후손들)



이건일(의대 62) CA

오랫동안 극장에 가지 않다가, 며칠 전 영화관에서 'The Descendants(후손들)'를 보게 되었다.

▶**제일 좋아하는 감독에 연기할 줄 아는 배우** = Alexander Payne이라는 감독은 'About Schmidt'와 'Sideways'를 본 후 현재 활동 중인 미국 영화감독 중 내가 제일 좋아 하는 감독이 되었다.

'Sideways'에서 주인공이 pinot noir에 관해 뱉어내는 독백은 이포도 품종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다. 또한 친구가 파티에 가자는 말에 주인공이 하는 대사 "Merlot가 나오는 파티에는 난 안가. 멀로라면 지긋지긋하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 때 멀로 소비량이 줄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감독이 만든 작품이니 어느 정도의 기대를 품고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역시 그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George Clooney가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라는 것이다. 일반들은 그의 잘 생긴 용모와 못 여정들이 그에게 열광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단지 movie star가 아닌 배우라는 것을 잊기 쉬우나 역시 배우였다.

클루니는 이 감독과 일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했다고 한다. 비록 그가 상을 못받았지만 그 해 3월에 있었던 Oscar상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지난 4월 영국계 레바논 인이며 큰 법률회사에서 일하는 인권 변호사이다 미인이며 부잣집 딸인 Amal Alamuddin과 약혼했다. 한동안 할리웃의 무수한 미녀들과 염문을 뿌리던 그가 마음 잡

고 정착하려나 보다. 그의 말로는 "할리웃 미녀들은 머리에 든 것이 없어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이 약혼녀가 좋다"고 한다.

이 동네에서 살다 은퇴 준비로 부인과 딸만 우선 하와이로 이사 가서 살고 있는 아내 친구인 양반이 작년엔가 딸이 고교 졸업반인데 학교에 영화 제작자들이 와서 딸은 그가 유명한 Alexander Payne이라는 것도 모르고 감독더러 일자리 하나 달라고 해 여름 내 인턴일을 했다고 한다. 당시는 이 말을 흘려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있자니 그 생각이 나서 영화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 제작진 명단을 훑어 보았지만 그집 딸 이름은 볼 수가 없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맨 마지막에 나왔다고 한다. 아마 내가 놓친 모양이다.

▶**영화의 즐거움** = Matt King(Gerge Clooney)은 하와이 최초의 백인인 광대한 토지 소유자의 후손인데 부동산 관계 일을 하는 변호사다. 그의 아내 Elizabeth(Patricia Hastie)는 와이키키 해변에서 스피드 보트로 수상 스키를 타다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인공 호흡기에 매달려 겨우 생명이 유지 되고 있다.

그에게는 10대인 큰 딸 Alexandra(Shailene Woodley)라는 젊은 여배우의 연기가 일품이다. 앞으로 이 배우의 이름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이 영화를 볼 당시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그녀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여러 편이다.

그중 최근 잘 만든 영화로 생각한 것이 'The fault in our stars'다. 작은 딸 Scottie역에는 Amara Miller가 나온다. 큰 딸은 big island (Hawaii island)의 기숙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마약 중독 문제도 있었고 술도 많이 마시는 문제야, 작은 딸은 왜 엄마가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어 자기를 돌보지 않느냐는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담담 의사에게서 아내의 병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듣고 아내의 유언장대로 인공 호흡기를 떼내 죽는 것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날, 그는 큰 섬에 있는 큰 딸을 데리러 간다. 집에 돌아와 딸에게서 아내 엘리자베트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그는 반신반의한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같은 동네에 사는 가까이 지내는 부부를 찾아간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받자 그의 잘 유지되던

←영화 'Descendants(후손들)'의 DVD 표지

## "갈라서고 합치고..."

장석정(법대 68) CH  
일리노이 주립대 경영대 교수

얼마 전 영국으로부터의 스코틀랜드 독립 시도가 불발로 끝이 났다. 300여 년을 같이 해 온 영국과 갈라서려던 노력이 무산된 것이다.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다르고 역사와 문화와 풍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이 있기를 거부하고 따로 독립하려는 노력과 투쟁은 인류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근세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별도로 치더라도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했으며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같은 독립국들이 생겼고, 동 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됐고,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갈라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등이 독립국이 됐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 스페인의 바스

세계가 허무러져 내리는 것을 그는 느낀다.

▶**훌륭한 연기자들** = 딸 둘과 큰 딸의 보이프렌드인 Sid (Nick Krause; 이 친구도 대성할 조짐이 보인다)를 데리고 장인인 Scott Thorson(Robert Forster; 아주 훌륭한 연기자로 'Diamond man'에서의 멋진 연기를 잊을 수가 없다)를 찾아간다.

장인 스콧은 어느 아버지가 다 그렇듯 자기 딸인 엘리자베트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여자인 줄 알고 있고 사위인 맏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기 짝이 없다. 같이 따라온 10대 비행 청소년 히피 같은 Sid를 말대꾸 한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버린다.

죽어가는 아내가 바람 피웠던 남자를 죽기 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세 아이들을 데리고 Kauai에 휴가 중인 당사자인 복덕방 중개인 Brian Speer(Matthew Lillard)를 찾아 간다.

그의 집에 구실을 붙여 방문한 그들을 맞는 것은 브라이언의 아내 Julie (Judy Greer; 그냥 무심히 지나칠 그런 역할이 아니다)인데 여기서부터 얘기는 좀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게 된다.

한 편 맏이에게는 그가 대주주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Kauai섬에 있는 광대한 미개척 해안 지역 땅이 있다. 일가친척들이 의

크와 카탈루냐, 러시아의 체첸, 터키와 이라크 지역의 쿠르드, 중국의 위구르와 티베트 등지에서 독립 움직임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에서도 텍사스가 과거 연방으로부터 분리를 거론했고 캘리포니아를 두 개 또는 세 개의 독립된 주로 분리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민족주의, 국가주의, 또는 분리주의로 표현되는 독립의 운동이 물결치고 있다. 그 결과 2차 대전 직후 세계의 독립국가는 70개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유엔 가입 195개국을 비롯해서 대만처럼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까지 합치면 206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분리주의의 확산으로 국가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치 핵이 분열하듯 정치적으로 너도 나도 갈라서는 이러한 현상과 추세를 정치적으로 (핵)분열(Political Fission)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으로는 반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적 분열과는 정반대로 경제적 (핵)융합(Economic Fusion)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주, 독립을 원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잘 살아보자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유엔 28개국이 경제를 통합해 각국의 통화마저 버리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지만 이러한 경제통합 또는 경제블록화 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어 왔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국이 만든 아태경제협력체(APEC)는

논한 결과 그 땅을 개발업자에게 팔기로 정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맏의 사촌 Hugh (Beau Bridges)는 길게 기른 머리에 하와이안 셔츠, flip-flop(소위 쥘리)를 신은 히피 같고 얼른 보면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대하기 쉬운 좋은 사람 같으나 실은 그렇지 못하다.

웃을 어떻게 입었던 변호사는 다 변호사다. 그러고 보니 주인공도 변호사다. 사촌 휴는 이 땅 매매를 강력히 추진하는 일가의 선봉이다.

아내의 부정과 문제아인 딸 둘을 갑자기 떠 맡은 single parent가 된 자신, 조상이 물려준 땅을 그것도 자신이 자라난 땅인 하와이라는 자신의 일부 같은 것을 과연 호텔과 도박장과 골프 코스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영 중 잡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나는 조지 클루니가 역시 '배우'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Ocean's eleven'에서 보는 것 같은, 그의 전매특허 같은 약간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띤 표정은 어디로 가고 없다. 모든 것에 회의와 의문을 느끼는 어리둥절한 길 잃은 청년 남자의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본 그가 주연한 다른 영화 'The American'과 더불어 클루니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세계 인구의 40%, GDP의 약 52%, 교역량의 45%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다. 이밖에도 동남아 10개국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사우디 등 중동 6개국의 걸프협력회의(GCC), 러시아 등 12개국의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카리브해 15개국의 카리브공동체(CARICOM), 나이지리아 등 15개국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등등, 수많은 경제공동체들이 결성되어 왔다.

이중에는 정치적 통합을 표명할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협력체들도 있지만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이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하나로 뭉뚱 그려지면서 어느 누구도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국가들은 경제통합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체나 경제협력기구들 외에도 다자간 또는 일대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서비스협정 등을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채 50개가 안되던 FTA가 지금은 350개에 달하고 전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블록이나 광역경제권을 통해 국가들이 합쳐질 때 서로 이득을 도모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럽이 하나가 되고, 아프리카가 하나, 남북아메리카가 하나, 아시아 한태평양권이 하나로 되고 결국 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거라는 '환상'도 가져 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핵융합의 뒷면에서 정치적 핵분열이 계속되는 한국인들이 갈라서고 합치는 모순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기심 충만한 사람들 뿐** = 이 영화에는 진짜 악인도 선인도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감독 알렉산더 페인은 배우들의 특성을 제일 잘 끌어내어 활용할 줄 아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 관객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많은 다른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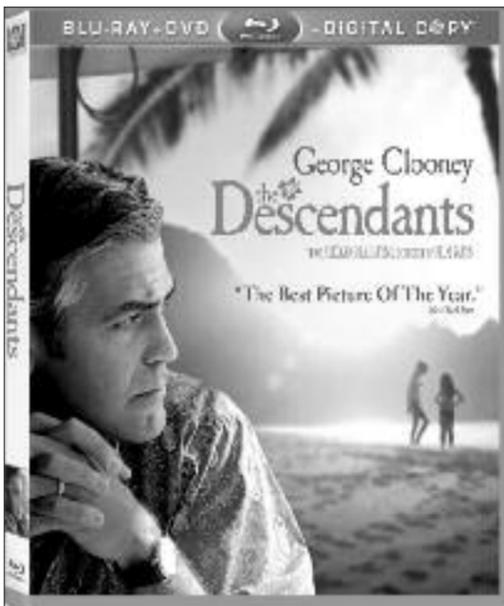
플롯 밑바닥에는 상당한 도덕적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걸 우리는 또한 알게 된다.

이 영화의 원작은 하와이 출신의 Kauai Hart Hemmings의 소설인데 주인공의 두 딸 모습에서 우리는 작가의 젊은 시절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랫만에 좋은 영화 한 편 감상하게 되는 일은 참 기쁜 일이다. 마치 잘 쓴 소설 한 편 읽고 낫을 때 같은 만족감을 가지고 극장 문을 나왔다.

### Cast & Credits

Matt King George Clooney  
Alexandra King Shailene Woodley  
Scottie King Amara Miller  
Sid Nick Krause  
Hugh Beau Bridges  
Mr. Thorson Robert Forster  
Brian Speer Matthew Lillard  
Julie Speer Judy Greer \*\*\*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 아메리칸 드림 50년<16>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동내 반장, 학부모 회장, 동창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시며 항상 사회활동을 즐기셨다. 위의 3남매를 먼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중풍으로 반신불수 되신 아버지를 6년 동안 집에서 치료하셨다. 아래 3남매를 시집 장가보낸 다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모두 미국 이민 가도록 주선하셨다.

▶**어머니** = 어머니는 내가 한국을 떠난 지 20여 년 동안에 이사를 3번이나 하시면서도 자식들의 학교 기록과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일했던 승려문 자료는 잘 보관하셨다. 그것들을 들고 가족이민의 제일 끝으로 미국에 오셨다.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시려고 노인 아파트에 살며 노인회 활동을 시작하셨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 후 LA에 들렀을 때 태극기를 허리에 묶어 세우고 노인회를 대표하여 공항에 나가 환영하셨다.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내 아이를 기르며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았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설명해 주었다. 사회에 나가면 잘못을 저지른 값으로 벌을 받기에 우리 집안에도 벽에는 매가 항상 걸려 있었지만, 내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일 없듯이 나도 내 아이들에게 매질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매를 들고 몇 차례 맞을 실수였는지 논쟁을 하다가 함께 울고 웃으며 수습하는 때도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자라난 하늘이며 땅이다. 보름달이 열 번 비추는 동안 우리는 어머니 품 안에 바다가 있어 헤엄치며 꿈틀거리는 벌레 모양, 지느러미 흔드는 물고기 모양, 팔과 다리 움직이는 짐승 모양으로 자라다 땃줄 끊겨 소리치며 세상 밖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는 동안 네발로 기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두 발로 서서 걷는 인류의 진화과정을 재연한다. 처음에는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다가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어머니의 품 안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한 사람으로 자라는 과정은 자연이 억만년의 아련한 추억을 띄워 보이는 길고 긴 실타래가 아닐까.

어머니의 몸 한 조각이 자라서 아기가 되고, 아기에게 주는 그 지없는 정성은 모든 목숨의 뿌리이며 삶의 바탕인 듯 하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거침없이 주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땅 위에 어떤 목숨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 기르는 동안 어머니는 새벽에 목욕하시고 뒷뜰 바위 앞에 정화수를 떠놓으시고 앉드려 기도드리며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어머니가 앉드려 기도드리던 하늘의 영(靈)은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 느끼면서 함께 사는 듯 하다.

삶 속에 흐르는 시간은 눈물과 웃음을 데려오고 빠르기도 늦기도 하지만 지구는 한결같은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해서 해가 오고 달이 가듯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어른으로 자라서 세상 삶에 어려움을 겪는 때가 오면 어눌한 생각에 두려움이 덮치고 외로움이 구렁이를 깊이 파서 죽음의 속도보다 빠르게 쓰러뜨리려 하는 역경이 온다. 이 순간에 어머니가 내 안에 심어준 하늘을 보게 되고 나를 붙들어 올리는 손

## “보좌관이 전화로 예약하려 하자 주인은 식당규칙에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과 보좌관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식사를 마쳤다. 이것이 평등의 미국사회다”

길을 느껴서 외로운 길 허덕임에서 헤어나게 한다.

수렁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하늘이 마음의 빛이 되어 그 힘으로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기적(奇蹟)을 만들기에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세워 올렸다.

진정한 고마움을 얻고 고개 속여 기도하며 눈물 흐르는 경지에 이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하늘 없는 사람은 하늘이 사람을 잊었는지 사람이 하늘을 버렸는지 판단장외의 외로운 길을 걷다가 한 세월 텅 빈 무덤으로 홀로 떠나는 사람도 있다.

사형수 중 형장에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한 마디를 물으면, “어머니!” 라고 힘껏 외쳐 교도소 벽을 울리고 삶의 부조리에 막을 내리는 인생의 막장도 있다. 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 땅 위에 어머니는 평화의 여신으로 모든 목숨이 다시 돌아가는 꿈속의 고향 땅이라 할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왼쪽 사진 가운데)이 보좌관들과 함께 대중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는 모습이다.

믿음은 사람이 사는 동안 언제나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믿음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겠는가.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생명이 있고 노래와 춤으로 보여 주는 감성이 있고, 더불어 살며 말을 하기 시작하여 지성이 따라 왔기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서게 되었다. 사랑이 있기에 목숨이 있고, 삶 속에 종교가, 예술이, 과학이 있다. 그 사랑과 믿음은 하늘에서 어머니의 옥합에 담겨 우리에게 전해진 삶 속에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

우리 어머니께서 막내동생 가까이 로스앤젤레스 요양원에 계시고 나는 오하이오 주에서 건축 설계 사업에 바쁜 날들을 보내던 때였다. 83세의 연세에 아이들과 가족 친척들 이야기로 한 참 꽃

넣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언제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웃음 짓고 눈물 흘리시는 우리 어머니! 지금도 보고 싶은 어머니! 어머니!

동부의 보스턴에 출장 가면 항상 들르는 식당이 있었다. 유니언 오이스터 하우스 식당은 부두에서 멀지 않은 해물시장 가까이 있고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다.

병원건축 설계 회의를 마치고 직원 3사람과 찾아갔을 때 1~2층은 이미 만원이라 우리는 3층 지붕 밑 조금 컴컴하지만 아늑한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잠시 후에 웨이터가 와서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 고 대답하자 의자 등받이에 붙어 있는 글씨를 보라고

재를 외면하였기에 나는 당황하고 실망스러웠다. 뽕뽕 살아 있던 생물에 정든 아이들이 살생한 아빠를 잔인하게 보는 듯 했다. 결국 며칠 동안 혼자 얼려 먹었던 기억이 새롭다.

나와 아내는 별로 싸울 일이 없었다. 나는 집 밖의 일에 충실했고 집안 일은 거의 아내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다른 가정들에서는 돈과 아이들 때문에 가끔 싸운다는데 나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은 아내가 주인이었고 나는 옆에서 보조하며 협조하는 노력을 했을 뿐이다.

한 번은 아내가 신발 모으는 취미가 있었기에 차고의 가구마다 신발이 가득 채워졌다. 나는 참다 못해 아내가 집에 오기 전에 모든 신발을 차고 바닥에 늘어놓고 벽에 ‘필리핀 대통령의 아내 이멜다의 신발’ 이라고 써 붙여 놓았다. 아내가 집에 와서 성난 고양이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기에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은 다시 없었다.

▶**첫 중국 방문** = 우리 부부는 데이튼 시청 초청으로 중국 방문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People to People's Ambassador Programs으로 데이튼 City Manager Valerie Lemmie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우리 부부와 동행하기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북경, 서안, 계림, 상해를 방문하고 그곳의 지방정부, 학교, 병원, 등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관광도 하게 되는 14일간의 여정이었다. 1945년 해방되는 해에 나는 만주를 떠났고 이제 다시 중국을 찾아가는 가슴 뿌듯한 여행이었다.

1997년 10월 26일 우리 일행은 북경에 도착하였다. 공항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누추한 시설을 보며 택시에 나누어 탔다. 낡은 유럽 차에 합승하는 불편은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데다가 운전기사는 화난 사람처럼 불친절하여 우리와 커다란 여행 가방들을 호텔 가까운 큰길가에 내려놓고 가버렸다.

비탈길을 끄끄거리며 간신히 호텔 대기실에 도착하였을 때 침울한 분위기는 1945년 해방되었을 때 내 어린 눈으로 보았던 중국과 달라진 게 없었다. 벽에 걸린 중국지도에 북한의 도시들을 명시하였고 남한은 공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침 식사는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먹는 중국음식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큰 접시에 담은 음식을 각자가 먹는 젓가락으로 가져다 먹기에 위생관리가 전혀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자신의 새끼에게 다가간 흑인 남성에 대해 캐나다 기러기가 맹렬하게 공격하는 장면이다.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1767년 3월 15일 출생해서 1845년 사망했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1829년부터 1837년 까지도.

<달려 속 주인공의 이야기>

## 20달러 지폐의 앤드류 잭슨

이영목(공대 59)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이제까지 달려 지폐 초상화의 인물들을 알리고 이곳 저곳 글들을 읽고 뒤지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품이랄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 글을 써내려 가지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시 세 말로 좀 헛갈린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받은 대통령** = 우선 일생 중 결투를 13번이나 했다고 한다. 또 그는 13살에 미국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연락병으로 참전한 독립전쟁의 마지막 세대다. 그런데 한 때 포로로 잡혀 영국 장교가 구두를 닦으라는 명령을 하자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해 장교가 그의 손에 상처를 남기게 된 일화도 있다.

불같은 성미에다가 자기 스스로는 정의감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잔인한 방법의 인디언 대학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도 됐다. 그는 한 마디로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다. 또한 거부권을 꽤나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의 부모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그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마을 왁스 하우스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노스 캐롤라이나 접경지역으로 그곳에서 태어나 지금도 양 주에서는 잭슨 대통령이 서로 자기네 주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 식민시절부터 건국 초기를 거쳐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북부 상공업 지대의 상공인, 그리고 남부의 최소한 몇 십명 이상의 노예를 가진 대농장주들, 이 양대 인물들이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한 시대에 앤드류 잭슨은 특이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시절 탄핵을 받았으나 서민 출신답게 관료제의 개혁, 시민권 확대를 통한 투표권의 확대, 기회균등 대중주의 정책을 펴서 시민들의 인기 가운데

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Old Hickory 라는 별명을 얻어** = 사실 그의 대통령 시대는 한마디로 격변의 시대였다. 산업혁명과 서부 개척의 시대로 북쪽에서는 노동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노예문제로 남북의 갈등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의 출세는 전쟁 영웅으로 시

### “대령시절 레드 스틱스 크릭 인디언을 아주 비참하게 말살시킨 사건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화폐 초상으로 쓸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쓸쓸히 나온 것이 흠이다”

작된다. 어쩌면 지금 세대의 눈길로 보면 시작은 인디언 학살(?)로 시작했으나 그는 1812년 미영 전쟁 중에서 1815년 가장 격전지였던 뉴 올리언스 전투에서 지형을 이용하여 미국 군인은 21명 전사한 반면 영국군 2천여 명을 전사시키는 대승으로 엄청난 인기로 ‘히코리 나무처럼 꺾이지 않는 장군’ 이라는 뜻으로 ‘올드 히커리(Old Hickory)’ 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스페인 점령지였던 플로리다를 공격해 미국에 편입** = 또 하나의 군으로서의 큰 공을 세운 것은 미영 전쟁시 스페인이 비밀리에 영국군을 도운 것을 알게 되어 플로리다를 공격하여 스페인을 내쫓았다. 그리고 이른바 ‘에덤스 오니스’ 조약으로 플로리다를 미국에 편입시키면서 1821년 잠시 플로리다 첫 군정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행적은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된다. 그는 첫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은 되지 못했다. 그는 선거에서는 이겼으나 선거인단의 과반이 되지 못해 존 퀸시 애덤스가 다른 후보 헨리 크레이의 연합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 선거로 인하여 민주 공화당이 앤드류 잭슨파와 반대파로 갈리어 잭슨파는 민주당, 반대당은 휘그당(현 공화당)으로 갈리게 된다.

▶**어부지리로 대통령** = 이야기가 좀 빗나갔지만 존 퀸시 애덤

↑국회 의사당 로트unda 룸에 있는 앤드류 잭슨의 동상 앞에서

스는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의 아들이다.

그 역시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될 뻔 했을 때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 역시 차기 대통령이 당시 라이벌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부자가 모두 이상하게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라이벌이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는 기이한 역사의 반복의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 중 큰 사건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1828년과 1832년 제정된 관세법에 반발하여 집행거부 사태를 일으켰는데 이를 군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을 했다. 사실 이 사건은 농업 중심, 원자재 유럽 수출의 남부와 공업지대의 북부의 갈등의 시작이요, 남북 전쟁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역시 서민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중앙은행의 존재를 그리 좋아하지 않은 듯 하다. 그는 연방 돈을 각 주에 일정액 예치시키며 소위 Pet Bank라는 애칭의 은행을 출범시켰으나 공황으로 실패를 한 주가 생겼고 자기 자신도 돈을 이 Pet bank에 예

금해서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일생 중 13번의 결투, 인디언 부족 말살** = 그는 일평생을 통해 13번이나 결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13번의 결투 중 하나는 1806년 테네시 내슈빌의 부호 찰스 디킨슨과의 결투인데 이혼한 부인 레이첼의 이혼이 법적으로 좀 애매했던 것 같다. 이를 비양 거리자 결투를 신청해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부인 레이첼 옆에 묻힌 것을 보니 꽤나 부인

가 높았다.

그의 20달러짜리 지폐의 초상은 결코 영타리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가 군 대령 시절 레드 스틱스 크릭 인디언 족을 아주 비참하게 말살시킨 사건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미국 화폐의 초상으로 쓸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쓸쓸히 나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일 것이다.

▶**낙수(落穂)** = 나의 문우(文友) 가운데 한 명인 조 모라는 분이 테네시 주 한 지방 신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앤드류 잭슨 부부가 아주 열렬히 사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혼이 확실하지 않은 전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 하였으며 복수를 꾀하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스페인 국적을 취득했다는 기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분명히 그 신문을 스크랩을 해서 보관했는데 못 찾겠다고 아쉬워 했다. 혹시 그 진위를 나에게 알려 줄 분은 없는지?

그의 동상은 라파에트 공원 가운데 말이 경충경충 뛰는 장면의 조각이고 공원 4귀퉁이에는 프랑스의 귀족 라파에트를 비롯하여 폴란드·프러시아, 그밖에 독립전쟁을 도운 사람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사실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하나 실상은 업관제에서 행정학의 도입으로 행정의 기틀을 잡았고, 대중 민주주의를 태동시키고 보통 선거로 선출의 틀을 잡게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꽤나 인기

를 사랑했고 인정도 있는 듯 하다. 또 하나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라틴어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일부에서는 “라틴어의 첫머리 ‘라틴’의 ‘라’ 라는 자도 모르는 주제에 뻔뻔하게 어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느냐”고 수근수근했는데 실상 그는 그 자신도 “사실 박사 학위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꽤나 겸양했다고 한다.



↓사진 왼쪽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 오른쪽 사진은 라파에트 공원 일부 모습이다. 이 공원에는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프러시아 장군의 동상과 프랑스의 귀족 라파에트 장군의 동상 등이 세워져 있다.

여행기

# 전녀가 본 두만강<2>



김원호(약대 63) CA

35세 가량 돼보이는 운전자는 간간이 오가는 트럭 외에는 별로 통행량이 없기 망정이지 하필이면 왜 상대편 도로로 주행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점은 연길에서 올 때의 조선족 운전자도 마찬가지였는데 매우 불안했다. 이런 운전버릇은 사회가 좀더 개발되면 고쳐지지 않으려나 싶었다.

▶**나진과 선봉시** = 도시에 들어서니 stop sign을 ‘셋’ 이라 쓰고 있다. 드디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내에 들어선 것이다.

나진과 선봉시는 약 25년 전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대로 시도했으나 개방의 어려움으로 규제가 까다로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근래 두 개 시를 합쳐 ‘나선특별시’로 승격시켜 다시 재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초청장, 여권 복사본, 신상명세서만 해외 동포사업 지원처에 제출해 허가를 얻으면 된다.

시내를 지나며 중국계 은행간판들을 보았는데 지난 1-2년 사이 생긴 것들란다. 어떤 구좌에 누가 이용하느니 궁금했다.

지나는 자동차는 많지 않았으나 인터넷에서 본 교차로의 여자 교통 정리원의 단정한 모습을 보며 오후 5시 경 나진시 남산동의 넓은 광장 모서리에 위치한 남산호텔에 도착하였다.

‘1976년 위대한 수령께서 묵고 가신 곳’이라는 표지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현관 로비에는 커다란 한 쪽 벽면을 모두 차지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강변을 걷는 대형 화폭이 걸려 있었다.

▶**장마당 구경** = 저녁식사 전 멀지 않은 곳의 장마당을 잠시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여 따라 나섰다. 장터마당 한 쪽에 많은 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걸 보고 연전 여행했던 암스텔담 기차역 광장의 bicycle parking place가 연상됐으나 자전거 품질과 주위환경에는 차이가 많았다. 자전거 앞 부분에는 철제 바구니를 얹어 고착시키고 모두 붉은색의 동그란 번호표가 부착돼 있었다. 아마 license plate에 해당하나 보다는 싶었는데 물어 보지 않았다.

질척거리는 장마당 안으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서니 많은 아낙네들이 좌판에 채소나 아이 운동화등을 놓고 살 사람을 기다리면서 줄 지어 앉아 있었다. 매매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보였으나 ‘아, 시장경제의 걸음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전혀 거부감이 느껴지지

는 않았다. 왜냐하면 어릴 때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흔히 보았던 장면이니까 시대를 앞서거나 뒤쳐거나 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다. 전자제품을 파는 건물은 월요일마다 낀다고 해 볼 수 있는 행운을 갖지 못했다.

▶**더운 물도 안나오는 호텔** = 호텔로 돌아와 방에 안내되어 들어갔더니 너무 오래 전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침대 매트리스 박스도 나무 판자로 맞추어 삐걱거렸고, TV는 켜지질 않았다. 욕실은 더운 물이 안 나와 샤워도 못 하겠구나 걱정하며 손만 씻고 가방도 풀지 않은 채 현관으로 내려가 커피숍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온 운전기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며 TV를 보고 있었다. 내용은 북한 공군 파일럿트들의 충성 맹세식 프로그램인 듯 커다란 극장 포디움 마이크 앞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북한방송(the GreatVituperator) 특유의 톤으로 연설하는 장면들이었다. 북한소개 또는 선전 방송에서 흔히 보던 내용인 것 같아 별로 감흥되지 않았으나 약 20분간 북한 다방 분위기에 젖다 호텔 옆 식당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택시, 호텔, 커피는 영어 단어를 쓰는



↑ 왼쪽 사진은 박찬모 POSTECH 전 총장과 함께, 오른쪽 사진은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과 함께한 모습.

것이 습관이다.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북어를 잘게 찢어 무친 명태볶음과 소고기 절편에 단물을 입힌 절친고기두부를 시켰는데 매우 맛있었다.

▶**식사 전 기도에 아무 제지없어** = 구 본부장이 식사 전 기도를 간단히 하는데 지도원은 개의치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모든 가정의 안식을 기원하니 무어랄 게 있겠는가. 식사 도중 지도원이 사진에 관해 속내를 들려주었다. 보이고 싶지 않은 누추하고 사회의 낙후한 부분을 찍어가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니 자연경관만 찍으라고 했다. 그래서 뉴욕의 할렘이나 LA의 남부 빈민촌에 가면 이보다 훨씬 흉한 곳도 많다고 말하려다 아내가 “당신은 술을 자시면 다변해 지니 조심하라”는 말이 또 생각나 다시 말을 멈추었다.

내일 아침 8시 구내식당에서 조

있었다. 광장에는 출근하는 시민들의 오가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밝았으며 찡그린 얼굴은 없어 보였다. 걸어가는 젊은 여자들은 모두가 하이힐이 유행인지 특이하게 보였으며 옷차림은 단정했다. 남자건 여자건 모두 왼쪽 가슴에 빨간 배지를 달고 있었고, 때로 트럭 뒤에 열두어명이 타고 가는 모습도 보였다. closed system 안에 살며 밖의 세상과 비교할 경향이 없으니 지금 상태로 만족한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또 한가지 눈을 끄는 것은 사치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탁아소 유치원 중학교 방문** = 조반을 마치고 미주 두레에서 지원하는 창평 탁아소, 지경 유치원, 신흥 초급중학교와 외국 어학원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탁아소 아이들은 보모들이 옷을 깨끗이 입히고 내가 귀한 손님인



## “외국어 학원 복도에는 아직도 ‘미제국주의 놈들을 때려 부수자!’ 라는 표어가 붙어 있음은 영어교육과 함께 정신무장도 많이 시키는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반을 하기로 하고 지도원은 집으로 가고 호텔방으로 오니 잠을 청하기 힘들었다. 이스탄불·예루살렘·카이로·지브랄타·카사블랑카 등 어디 tour를 가든 저녁식사 후 가이드와 헤어지면 혼자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또 다른 나의 여행 습관이다.

▶**어디서나 체제 선전** =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본 프로파간다의 중요성을 이들이 사용하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광장 주위 아파트 건물들은 페인트 칠이 군데 군데 벗겨져 있어 안스럽게 보였다.

식당에 들어서니 카운터에 굵게 생긴 한복차림 처녀가 자리로 안내하는데 방마다 칸이 막혀 있어 서울의 룬살롱이 연상돼서인지 약간 움츠러졌다.

따뜻한 물수건을 주기에 손을 닦고는 메뉴를 보며 지도원에게 주문을 일임하였다. 그리고는 종합 비타민과 밴드에이드 한 각을 주며 부인에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흡족치 않았는지 예전 방문자들이 spoil시켰는지 아무 말 없이 가방에 쑥 집어넣고 만다. 연길 시내 모란봉식당에서 돌솥비빔밥으로 점심을 하고 떠났으나 긴장하고 작은 차로 다섯시간을 달려와서인지 허기가 왔다.

북한에서 처음인 식사로 돌솥비빔밥을 시켰다. 여행하면서 날것과 찬 음식, 우유제품은 피하는

양 오르간에 맞추어 노래하며 율동을 보여 주었다. 나도 잠시 율동을 따라하면서 큰 손녀 Abigail 생각을 했으나 쓸데 없는 비유다 싶어 억지로 지워버렸다. 건물 입구에는 “00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표어가 쓰여져 있었다. 유아원은 연변 과거 대에서도, 뉴욕의 어느 천주교에서도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 여러 곳이 있다고 알려준다. 유치원에 가서는 아내가 포장해 가져온 초코파이 열두 박스를 선물했으나 원생 수에 비해 너무 적었다. 본부장은 다음에 올 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메모하고 있었다.

▶**초급 중학교에 들어서니 체육시간인 운동장 한 편에서 몸 풀기에 한창이었고, 교장은 우리를 체육관으로 안내했다. 농구코트 중앙에 의자를 놓고 약 30명의 여중생들이 펼치는 발레체조 공연을 관람했다. 저 아이들이 잘 하면 앞으로 아리랑 축제, 더 잘 하면 올림픽에 나가겠구나, 생각되었다. 체조 담당 여교사의 검은색 양장과 하이힐 모습이 무척 세련돼 보였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외국어 학원 시설도 무척 좋게 보였고 계속 보강 중인 것 같이 보였다. 아직도 복도에는 ‘미제국주의 놈들을 때려 부수자!’ 라는 표어가 붙어 있음은 영어교육과 함께 정신무장도 많이 시키는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시내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선계

약공장으로 가기 전 약국 간판이 있는 곳에 잠시 들러 보았더니 거의 모두 건강식품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종이 포장지에 싸여 있을 뿐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마 개발이 더딘 지역의 병균은 확산도 더딘지 아픈 사람이 별로 없다면 다행이었으나 이번 여행의 목적이 역학조사가 아니지 않은가.

▶**염치없는 지도원** = 책 가게에 들렀으나 역시 눈을 끄는 책은 찾기 힘들었고 ‘나선특구 투자방법’이란 책을 30위안에 한 권 샀더니 지도원도 한 권 집어 들고 내가 돈 내기를 기다리는 눈치라 속으로 ‘염치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는 LA친구들에게 주려고 100위안 짜리 칠보산 버섯술 한 병값과 함께 지불하였다.

그동안 본부장은 제약공장장 Charles에게 계속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할 수 없이 그냥 공장으로 가서 생산부장과 말이 잘 되어 출국 전 공장 내부를 견학 할 수 있었다. 역시 간단한 항생제와 수액제 등을 만들고 있었으나 서방세계에서는 오래 전 잘 안쓰는 약들이 대부분이었다. 중간 원료를 중국에서 들여다가 포장만 하는 공정으로 보인다. 공장장은 10여년 전부터 북한을 돕는 미국인 선교사지만 전혀 교리전파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다.

이로써 만 하루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다시 원정지로 향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도착했다는 제 1-2 부두를 멀리서만 보고, 러시아의 하산 도시가 보인다는 공원 방문도 마다하고 서둘렀다. 이곳은 한반도 토끼 귀의 맨 윗 부분이다.

LA Times의 서울 특파원 Barbara Demick이 쓴 청진 이야기, 탈북자가 많이 온다는 회평과 무산 이야기가 어찌면 오늘날은 나의 관심 밖이라고 해도 좋다. 그냥 내가 태어났다는 북한 땅의 공기를 마셔본 것으로 이번 여행은 더 없이 만족하였다. 좀더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중국 쪽에 와서는 차에서 내려 북한 쪽을 보며 또 찍었다. 북한을 다녀 온 것이 무척 기뻐다. ‘언젠가 통일도 될 것’ 이라고 굳게 믿으며 연변에서 아내에게 전화하고 인천에 도착하니 마중 나와 있었다. 나의 이메일을 열어 보니 평양과기대 방문건으로 비자가 나왔다고 북경에서 메일이 들어와 있었다. 사람은 찡그리면 무섭고, 웃으면 편안하다 - 언젠가 체제의 다름이 극복되면 우리 모두 같이 웃으리라.**

“어머니, 제가 대신 북한엘 다녀 왔습니다” 라고 되뇌었다.\*\*\* <끝>

<여행기> 아일랜드

# 아름다운 에메랄드섬<1>



김명자(문리대 62)  
Heartland

Newark에서 Dublin까지는 6시간 밖에 안 걸렸다. 기내에서 주는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으나 싶었는데, 아침을 먹으라고 남편이 깨웠다. 비행장에는 여행사의 직원들이 나와 있었지만 나의 가방이 Munich으로 가는 바람에 짐 없이 호텔로 가려니 맘이 좀 불편했다. 별의 별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인구 120만의 Dublin = 120만이 산다는 더블린은 깨끗한 도시였고, 12.5%의 세금혜택(미국 39%)으로 인해 델타 컴퓨터 회사 등 미국 26개의 큰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좋은 직장들이 생겼는데 4만-5만 달러씩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꿈과 같은 거액이었고, 그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덕분이었다.

2008년 지나친 과잉투자로 미국에 Bubble이 생겨 주가가 30-40%씩 떨어졌듯이 이 나라도 같은 고통을 겪었으나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군다나 관광사업이 갑자기 늘어 작년 대비 35만명이 더 왔다고 했다.

4-5세기에는 바이킹들이 쳐들어와 지배했고 6세기에 St. Patrick이 16세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와 10여년을 노예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도망갔다. 10여년 후 신부가 되어 다시 이 섬으로 돌아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

톨릭을 전파해 Pagan을 믿던 사람들을 다 가톨릭 신자로 만들었다. 오랫동안 가톨릭이라는 이유로 영국으로부터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고, 작은 섬에 할 일이라고는 농사와 양과 염소를 기르는 일 뿐이었다. 물론 일할 수 있는 공장은 하나도 없었다.

이 때는 북쪽 아일랜드가 남쪽과는 거의 300여년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차이가 있었다. 2차대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유일한 직장인 영국 군대에 들어갔는데, 월급을 주고 먹여주는 군대가 이곳의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Irish들의 숙명 = 그들은 영국군대에 입대해 싸웠으나 전쟁이 끝난 후로는 Irish들이 원수인 영국을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냉대했고, 일생을 나라의 보조를 커녕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는데 2011년에 드디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노후 연금은 물론 사회의 복지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거의 반세기 동안 동북쪽의 아일랜드 한쪽 구석 Belfast에 5천여명의 영국 군인들이 주둔했고, 그곳을 나오거나 들어갈 때는 책 포인트를 거쳐야 했으며 매일 총질이 있었고 때로는 광신자들의 자폭도 뒤따랐다.

도시 한복판에 큰 린넨공장이 있었고, 많은 아이리시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지만 장엘 가다가, 또는 학교엘 가다가 어느 찰라에 IRA의 총을 맞고 쓰러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표면상으로는 구교와 신교의 종교 싸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싸움이었고 어쩌면 권력을 가진 깡패들의 주먹다툼이었다. 주먹다툼치고는 너무나도 희생자가 많았고 오랫동안 살상은 지속되었다.

남쪽 아일랜드(Republic of Ireland)는 몇 백년 동안 영국의

침략과 업신을 받았다. 영국의 군주들은 심심하면 수천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 정복했고 그 땅들은 자기들의 장군이나 영국의 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농부들을 부려먹었다.

2011년 처음으로 영국 여왕이 이 섬을 방문고, 공식적으로 처음 과거를 사과했는데, "We regret..." 이라고 했지 "We apologize..." 는 하지 않았다.

그것을 같은 뜻으로 해석한 우리의 영어실력에 다시 한 번 실망했다. 그 후 답례로 Republic of Ireland 대통령도 초대하여 4일간 여왕의 극진한 답례를 받았다고 했다.

▶1900년까지 가톨릭 자녀의 교육을 금지시켜 = 100여년 전 이곳에서 타이타닉(Titanic) 여객선을 제조했는데 그 기념박물관(Titanic memorial Museum)을 세워 배를 만들던 모양과 당시의 사회사정과 발달되었던 기술을 잘 묘사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6인용 바스켓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 가면서 용접하는 그림도 코앞에서 보도록 했으며 마지막 3D 화면이랄까 내가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모든 것을 한 눈에 보는 듯한 Imax의 영상은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박물관을 연 것은 3년 전이건만 2년만에 본전은 다 찾았다고 하니 이들의 관광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리시들은 거의 80%가 가톨릭이고, 종교를 너무 잘 믿어서인지 10명 내지 15명의 아이들을 낳았으니 가난한 것은 당연했고(우리 가이드 Tom의 형제도 11명), 영국의 법은 1900년이 될 때까지도 가톨릭 아이들의 교육을 금지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몰래 숨어 공부하거나 넓은 들판에서 공부하다가 영국 군인들이 오면 선생과 학생들은 달아나거나 나무나 숲 속에 숨곤 했다.

린넨 방직공장이 있던 담을 따라서 전 세계사람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종교적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도 벽에다 그리고, 나무조각으로 조각품을 만들어 걸기도 하는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딴 곳에서 할 수



↑ Ireland의 감자 기근으로 남겨진 폐허에서 잠시 목상에 잠겼다.

없는 말을 이곳에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통쾌했을까를 상상해보면서 나의 미소도 한 동안 떠날 줄을 몰랐다.

오늘도 비는 부슬 부슬 왔지만 여행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비는 하루 종일 오는 것은 아니고 오다가 멎다가 하루종일 번덕을 부리곤 했는데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비가 안 오면 아일랜드가 아니라고 할 정도였다. 도착하는 날만 빼놓고 오늘까지 6일째 계속 비오는 날이었고 심지어 16-17도의 으스스한 날씨였는데 긴 소매와 스웨터를 못 가지고 온 것을 후회했다. 왜 항상 철저한 준비를 못하는 지...

▶Giant's Causeway' = '거인의 방죽' 이라고 할까. 'Giant's Causeway' 로 갔는데 유네스코에서 물론 보호하는 지역이었고, 600만년 전에 흘러나온 화산의 돌들이 바닷물에 썩기기도 하고 추위에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이상한 모양의 돌모습이 되었는데 바닥에는 높이가 5-6센치미터에 육각형 모습의 돌들과, 내륙쪽으로는 높고 큰 돌기둥들이 빼죽 빼죽 몰려서 있기도 했다.

바닷가의 광대한 지역이 이 희귀한 돌들로 차곡 차곡 쌓여 있었고, 방문객을 위한 크나 큰 건물 안에는 과학적인 설명을 잘 해주는 화면들과 흥미를 돋구어 줄만한 여러 가지 모형들과 실험 도구들도 많았다. 가는 곳마다

대형버스는 대여섯대가 있었고 관광객들이 와글거렸는데, 작년보다 이미 35만명의 관광객들이 더 다녀 갔다니 이 나라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관광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긴 100여년 전에 감자 부족(Potato Famine)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200만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후예가 미국에 4천500만이 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의 조상들이 4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조금씩의 아이리시 피는 섞여 있는 듯 했다. 버스를 타고 해변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파란 들판에는 많은 양들과 젓소들이 보였고, 그들은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는 것이 일이었다. 하도 풀을 많이 먹어 양이나 젓소들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1400년 대에 돌로 견고하게 세운 성 웨스트 포트에 갔다. 넓은 초원과 호수가 아름다웠고 그 성의 주인은 5피트 2인치의 자그마한 여자 해적두목이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배와 부하들을 물러받아 얼마나 통치를 잘 했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날렸던 두목이었다. 말년에는 많은 돈을 벌어 방이 30여개가 되는 큰 성(Grace O' Malley Westport)도 지을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

- 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 : 임성용 과장(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전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 : 김봉은 전문위원(010-3032-5913)
5. 제공자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 모교 역사자료 수집에 동문 148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9월 1~30일 9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8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39명(서울 동창회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7면, 433호 8면, 434호 9면, 435면 6면, 436호 4면, 437호 5면, 438호 7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48명의 동문과 교직원들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故 李基昌(경성사범 38졸)동문: 경성사범학교 관련 자료 ▶故 柳明植(기계공학 47~52)동문: 공과대학 관련 자료  
▶羅東鎬(행정 49~55)동문: 졸업장 ▶金正基(농학 56~61)동문: Grain 1호 ▶金鏞秀(화학 59~63)동문: 1951~1986년 서울대 대학신문 영인본(부록포함) 총11권 <사진> ▶金正基(전기공학 63~67)동문: 졸업장 ▶朴明潤(보대원 74~76)동문: 보건학 박사 동우회 20년사, 학



술세미나 자료집 등 ▶金大午(철학 85~89)·金外淑(사법 85~89)동문: 대학원 학위논문용 원고지, 보고서 용지, 메아리 정기발표회 책자(1985년)·봄 정기대 공연 책자(1988년) 등. \*\*\*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 CA 남가주

###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L A, CA 90010

###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 식품/음식점

###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 의료/ 약국/ 치과병원

### Beverly Cardiology Group

Young Kim MD(의대 65)  
Diana Kim MD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 Gilbert Pharmacy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 재정/ 보험/ 컨설턴트

###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CA 90010  
213-505-8102(0)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apetown, California 92015-0189

### Jim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 자동차 / 서비스

###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우주개발/기술

###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0 Box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 동물병원

###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 변호사

###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 리테일러/보석

###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 부동산/ 클리닉/ 교외

###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묘(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NY-NJ 뉴욕/뉴저지

###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 리테일러

###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1 New York NY 10016

###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 건축/ 부동산

###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esades Park NJ 07650

###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 북가주

###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  
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 GA 조지아

###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건축 설계/레스토랑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MD·VA·워싱턴 DC

치과 / 부동산 / 기계 / 전기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개정/ 보험 / 컨설팅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0)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 ton OR.97007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동문신간

■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 朴相高 지음

오지탐험가이자 심리치료사인 朴相高(기계공학49졸)동문이 47년간 오지를 탐험하고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특별한 성찰을 담은 책. 이 책은 87세 노인이 야지에서 뒹굴며 얻은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장쾌한 인생 특강이다.

현재 강원도 홍천 오대산 북쪽에 위치한 주말레저농원 캠프나비(Camp Nabe)에서 '열린 인성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구순을 앞둔 노인이지만 여전히 걷고 등산하고 캠핑하면서, 인간 DNA 안에 각인된 자연 회귀 본능을 따를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朴동문은 그동안 수많은 강연을 펼치면서 서바이벌 활동, 인생 설계, 자기 경영, 열린 인성, 주말 영농, 오토캠핑, 여가문화 설계, 결혼 경제 등 앞서가는 이슈와 화두로 대한민국의 가정 문화와 여가 문화를 변화시키고 선도해왔다. <토네이도 刊·값 15,000원>

■ 한국 경제 발전시대 - 郭贊浩 지음

일본 섬유신문사(일간) 한국주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郭贊浩(신대원69-71)동문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아일보(일간), 통일신문(주간), 경동신문(월2회), 광진신문(월간)에 기고한 한국경제의 발전상에 대한 해설기사를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郭동문은 발간사에서 1956년부터 국내 통신 및 신문 그리고 외국신문 경제기자로 근무해 오면서 사실에 충실한 正論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언급했다. <신광 刊·값 18,000원>

■ 유럽의 발흥 - 梁東焦 지음

모교 경제학부 梁東焦(경제70-74)교수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위가 왜 발생했는지를 서양 경제사를 통해 살펴본 개설서. 유럽 발흥과 대분기에 관한 책들은 국내에서는 단편적인 내용만 소개돼 있을 뿐, 대부분 해외 저작물들의 번역서이다. 거시사(macrohistory)와 동·서양 비교 경제사는 비교적 최신 분야이고, 이런 면에서 이 책은 국내에서 거의 최초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인용문헌 목록은 27쪽에 달할 만큼 방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각각의 저자가 제시하는 주장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부록을 통해 경제성장의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 刊·값 30,000원>

■ 황인자의 男다른 정치 - 黃仁子 지음

여성 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온 여성정책 전문가 黃仁子(대학원78-82)국회의원이 남다른 생각과 정치를 소개한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 제1부 '나의 히스토리(herstory)'에는 정치 입문과정, 워킹맘으로서의 딜레마, 후배 여성들에게 주는 진지한 충고 등을 수록했다. 제2부 '여성역사의 부활을 꿈꾸며'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제주해녀, 국립여성사박물관 등을 다뤘으며, 제3부 '여성들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여라'에는 여성할당제 운동의 업그레이드, 부부의 날, 파과 쿼터제 등을 소개했다. 제4부 '삶이 그대를 슬프게 할지라도'에는 국정 현안과 정치 격랑 사이에서의 사색을 실었으며, 제5부 '내가 본 황인자의원'에는 吳明 前부총리, 金乙 東국회의원, KBS 柳賢順부사장 등 각계 인사 10명의 오랜 세월 黃의원을 지켜본 소회와 정치에 거는 기대를 담았다. <여성신문 刊·값 15,000원>

■ 미·중 관계 연구론 - 鄭在浩 지음

모교 아시아 연구소 미·중관계연구센터(PUCR) 소장인 정치외교학부 鄭在浩(국어교육79-83)교수가 센터 설립 1년여 만에

미·중 관계 관련 연구성과에 대한 한국학계의 독자적인 평가를 담았다.

鄭교수가 집필한 1장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초래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와 그 함의를 다뤘으며, 2장(모교 辛星 昊교수·외교87-91), 3장(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 4장(명지전문대 김애경 교수)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미국, 중국에서 이뤄진 미·중 관계 연구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다. 5장(모교 趙東 濬교수·외교87-91)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대출판문화원 刊·값 28,000원>

■ 4생결단 코리아 - 朴釘 지음

중국 우한대학(武漢大學)에서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어학원 朴釘(농생물81-86)원장이 '四生決斷'의 개념을 내세워 공존공영의 길을 제시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북한과는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는 경제·문화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우경화 노선으로 고립돼 있는 일본을 다시 동북아 외교무대로 이끌어내고,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이르는 코리아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을 살리는 4대 전략 방안을 담았다.

이 책의 키워드는 '거인의 귀환' 즉 중국의 부상이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외교 방향을 전망하는 데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책보세 刊·값 15,000원>

■ 중국시장과 소비자 - 吳剛敦 지음

제일기획 상하이 지점장을 지낸(주)GENIC 吳剛敦(정치83-87)전무가 분석한 중국진출 핵심 전략을 안내한다. 이 책은 중국인의 기질과 소비성향, 세대별 특성 등을 토대로 거대한 글로벌 마켓 중국을 공략할 전략을 명쾌하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중국에 안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부터 충성고객을 확보해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방법까지, 14억 중국 소비

편집후기

O...너무 긴 글 =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글 중 장편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현재 계속 연재 중인 'My journey to America'도 장편이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기획 연재물입니다. 문제는 이외에도 장편을 많이 보내오기 때문에 이를 모두 게재하려면 몇회에 걸쳐 '다음 호에 계속'하고 연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다음 호에 계

자의 마음을 공략할 다채로운 전략을 담았다.

'현장에서 바라본 중국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란 부제의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를 둘러싼 역사사라든지 중국인, 중국 지리, 문화, 언어 등을 소개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쌤앤커스 刊·값 14,000원>

■ 매혹의 음색 - 金煥鎬 지음

안동대 金煥鎬(작곡84-90)교수가 서양의 예술적 음악사를 통합적이면서 비평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한 인문학적 음악사. 이 책은 음악적 음의 음향학적·인지과학적 논의로부터 시작해, 그러한 음악적 음의 한 차원에 불과한 음고가 어떻게 서양음악사에서 중요한 음악의 재료로 부상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피며, 그렇게 부상된 음고 중심적 음악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거론한다.

金교수는 존 케이지, 피에르 슈베르 등의 구체음악, 전자음악, 리게티 등의 조직음악, 1970년대 스펙트럼음악 등을 소개하며 과거의 바흐와 베토벤 같은 거장들이 음색과 소음에 대해 둔 감했다고 비평한다. <갈무리 刊·값 25,000원>

■ 구글 애플 그 다음 별 - 崔圭憲 지음

IT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崔圭憲(화학공학90-94)동문이 변화무쌍한 IT 세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책을 펴냈다. 시대를 풍미했던 IT 선두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성장했으며, 세

속'의 글들이 많아질수록 바람직한 편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긴 원고는 많이 적체돼 있어 부득이 게재 우선순위에서도 그만큼 뒤로 밀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글이 빨리 게재되지 않는다는 불평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요즈음의 독자들 성향 또한 단 1페이지라도 너무 뻑뻑이 채워져 있는 글들은 읽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글은 간결할수록 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편집주간>

상을 변화시켜 나갔는지 뛰어난 통찰력으로 보여준다.

미국 국방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학의 연구소에서 만든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부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IBM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일찍 간파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의 혁명으로 넘어간 애플과 구글 등 패자의 별의 주인공이었던 과거 기업의 흥망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을 뚫고 IT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다. <한빛미디어 刊·값 13,800원>

■ 이야기가 살아 있는 클래식 상식백과 - 이정현 외 지음

테너 이정현(성악97-03)동문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가 클래식 음악 작품 분석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삶, 음악에 숨어 있는 이야기까지 모두 모아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2백85가지의 클래식 음악의 기초상식이 키워드 순으로 나열돼 있다. 바흐, 헨델부터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테너 최승원까지 시대와 지역을 거슬러 클래식의 구석구석을 모두 소개한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미렐라 프레니가 '꽃성대'를 갖게 된 비밀, 음악가들이 사랑한 여인들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한 불후의 명곡들, 바흐 무덤의 진실, 명연주가들의 괴팍한 버릇, CD 수록시간이 75분으로 결정된 까닭 등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가득 담겨 있다. <돋을새김 刊·값 16,000원>\*\*\*

# 작가의 집

## House of Writers

# 그림이 있는 문화 공간

## Park View Gallery

전시회 · 출판기념회 · 결혼피로연 · 송년회 · 동창회 · 각종모임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www.houseofwriters.org ● 김병연(공대) ● (213)380-3000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중(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주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욱(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 오인환(문)  
 주필 : 백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승(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Homepage Webmaster : 김원영(미대 82)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채진(문)  
                   최용원(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 원 = 서중민(공) · 이민연(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감 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pt@gmail.com	회계연도 Feb-Feb
	차기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Jan-Dec
	부회장	박희레(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룩키마운틴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m@han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부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Jan-Dec
	부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jongjoo@msn.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시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dhkimkim@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용수(농대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성낙일(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one.com

877-HAPPY-81  
장경태(사대 75)

JW 토닉 샴푸

HAPPY SEEDS INCORPORATED

novita usa  
Something better for you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영(82사, 문리대) www.duo.co.kr

#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배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배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배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폐쇄형 커플매니저: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관리를 드립니다.
- 본국 최정규제: 본국 최정규제의 인상을 받을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 2014-2015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5월4일 - 5월13일 - 2014년 SNU 단체 여행: BENELUX 3 COUNTRIES & NORMANDY, FRANCE 9박10일 "갈 다녀 왔습니다" NETHERLANDS(암스테르담, 튜링 속세 잠가, 노르브담)-BELGIUM(브뤼셀, 브뤼헤) - LUXEMBOURG (룩셈부르크) - FRANCE NORMANDY(도벨, 몽생미엘, 루아르)

7월4일-7월16일 1차 7월28일-8월10일 2차 RUSSIA & NEUROPE 13박14일

7월8일 - 7월14일 -AMAZING KOREA TOUR 6박7일 - 2사들을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

9월4일 - 9월14일 -WESTERN EUROPE 10박11일

9월12일 - 9월21일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9월21일 - 9월28일 - 크로아티아의 휴일 7박8일

9월22일 - 10월4일 -GREECE / TURKEY 12박13일

9월25일 - 10월12일 -PORTUGAL / MOROCCO /SPAIN 13박14일

10월7일-10월15일 1차 10월15일-10월23일 2차 고국 전국일주 동서남북한 휴도, 육산도 8박9일

10월23일 -10월28일 -THE BEST OF CHINA 서안, 장가계 계림 5박6일

(특별출판) -THE BEST OF CHINA & ESSENCE OF SOUTH ASIA

10월23일 -11월2일 중국(서안, 장가계, 계림) -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 캄보디아(앙코르와트) 10박11일

(특별출판) ESSENCE OF SOUTH EAST ASIA

10월28일 -11월2일 -1.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캄보디아(앙코르와트) 5박6일

10월27일 -11월7일 -HOLYLAND & THE BEST OF JORDAN 11박12일

2015년.....

1월19일 -1월29일 - INCREDIBLE INDIA (신비의 인도 여행) 10박11일

2월5일 - 2월15일 PATAGONIA SPECIAL 10박11일 BUENOS AIRES, USHUAIA, EL CALAFATE

2월7일 - 2월12일 - 여자동아리 가는 PUNTA CANA GOLF TOUR 5박6일

3월29일 - 4월4일 -SPRING BREAK SPECIAL - SPAIN 6박7일

4월10일 - 4월17일 - GREEK ISLAND CRUISE & ISTANBUL 7박8일

ISTANBUL, MYKONOS, SANTORINI, ATHENS

4월14일 - 4월22일 - 고국 맛자랑, 멋자랑 남해안, 휴도, 육산도, 해변명차 8박9일

4월17일 - 4월26일 -AMADBUS EASTERN EUROPE 9박10일

4월26일 - 5월9일 -PORTUGAL, MOROCCO, SPAIN 13박14일

5월4일 - 5월15일 - WESTERN EUROPE 11박12일

5월18일 - 5월28일 - NORTHERN SPAIN 10박11일

5월30일 - 6월7일 -TASTE OF SPAIN -SPECIAL 7박8일

**한스관광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travel.com, 7601 Little River Tr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자들

1차 2007년(1차)유럽 3주 여행, 2차 2008년 아프리카 나일 강 유람, 3차 2009년 유럽 인도 여행, 4차 2010년 그리스, 남미 여행, 5차 2011년 태국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일본 인도 3주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하라 투어, 8차 2014년 베네룩스 3국 투어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INC.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562) 692-0600

이병준(상대 55)

